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체육학 석사 학위논문

여성 체육교사학습공동체의 탄생

- 중등체육 전문성과 리더십 개발 허브로서의 가능성 탐색 -

2023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체육교육과

김 나 진

여성 체육교사학습공동체의 탄생

- 중등체육 전문성과 리더십 개발 허브로서의 가능성 탐색 -

지도교수 최 의 창

이 논문을 체육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2년 1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체육교육과
김 나 진

김나진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3년 1월

위 원 장 이 옥 선 (인)

부위원장 권 순 용 (인)

위 원 최 의 창 (인)

국문초록

여성 체육교사학습공동체의 탄생

- 중등체육 전문성과 리더십 개발 허브로서의 가능성 탐색 -

김 나 진
서울대학교 대학원
체 육 교 육 과

본 연구의 목적은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의 형성, 운영을 통해 여성체육교사들에게 체육교사전문성과 리더십이 어떻게 함양되는지 알아보고,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조건을 탐색하는데 있다. 이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문제는 첫째,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의 현황과 운영방식은 어떠한가? 둘째,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 참여의 효과와 어려움은 무엇인가? 셋째, 교사전문성과 리더십 개발의 허브 역할을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 로 설정하였다.

연구는 질적 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2022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총 12개월간 이론적 탐구, 연구 설계, 연구 진행, 결과 정리의 단계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연구 참여자는 선정기준에 따른 유목적적 표집을 통해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 참여하고 있는 12명의 여성체육교사들로 구성되었다. 사전 개방형 설문, 개별 심층 면담, 포커스 그룹면담, 관찰, 현지문서 등을 통해 수집한 자료는 기술, 분석, 해석의 과정을 거쳤다. 연구의 진실성을 위해 삼각검증법, 구성원 간 검토, 동료 간 협의의 과정을 거쳤고 연구윤리를 준수하였다.

이상의 과정을 통해 도출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으

로 선정된 6개의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를 활동 동기, 목적, 운영방식 및 활동내용을 토대로 운영현황을 파악하였다.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들은 모두 여성체육교사들의 필요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형성되었다. 발생동기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었다. 친목을 위해 만들어진 경우, 재능을 기부하고자 만든 경우, 여성체육교사 모임의 필요성을 느껴서 만든 경우이다. ①'넘버원 공동체'는 회칙을 통한 정기총회, 정기모임을 지속적으로 하며, 구성원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활동과 환경을 제시하는 모범적 협력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②'에이스 공동체'는 교과연구회로 등록하였고, 여성체육교사를 주축으로 한 여학생 체육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③'함께해 공동체'는 '손잡고 정년까지'를 운영 모토로 여교사들의 농구 기능 향상과 수업 공유,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④'원더풀 공동체'에서는 농구, 축구의 실기종목 위주의 운영이 이루어지며 열정적인 리더가 연수 활동, 수업 적용 사례 등의 자료를 공유하고 있다. ⑤'초신성 공동체'는 여성체육교사들과의 교류를 통해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는 장을 마련하고자 공동체를 설립하게 되었다. 수업 나눔 연수, 동아리, 실기연수 등 다양한 활동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⑥'나이스 공동체'는 전국의 여성체육교사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매달 주제를 정해 비대면 연수를 하고 상반기와 하반기에 대면연수를 진행하고 있다.

둘째,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의 참여 효과로 체육교사 전문성, 리더십, 사회·정서적 지지의 측면에서 살펴보았으며,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 참여와 운영의 어려움으로 사회생태학적 모형을 토대로 개인적 요인, 공동체 요인, 사회적 요인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참여효과로 발달된 체육교사의 전문성은 ①능전문성(수업실행능력, 운동수행능력), ②지전문성(수업평가지식, 체육교과지식, 업무수행지식), ③심전문성(자신감, 체육열정, 반성적 성찰능력)이다. 함양된 체육교사 리더십의 특징으로 ①목표지향성(열정, 동기부여, 체육교과 위상 강화), ②공동체성(공유, 연결, 소통), ③과업주도성(퍼실리테이터로서의 책임감), ④전문성(롤모델, 통로기관)으로 도출되었다. 사회·정서적지지 차원에서는 ①공감과 위로의 장(공감, 휴직공백극복), ②시스터후드(친한 언니·동생 사이, 출산과 육아를 고려한 회칙), ③함께하는

즐거움(모임을 통한 즐거움, 소속감)이 있었다.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 참여와 운영의 어려움으로 개인적 요인은 ①출산과 육아(정체성 변화), ②리더의 희생(혼자 업무, 주객전도)으로 도출되었다. 공동체 요인으로는 ①공동체 성장통(발달 단계, 회원들의 공동체 목표 부재), ②자율성의 양날(행·재정적 운영상 어려움), 사회적 요인으로는 ①물리적 제약(과도한 업무, 거리·시간적 제약, 지역 차이), ②비협조적인 분위기(곱지 않은 시선, 비협조적 태도)로 나타났다.

셋째,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의 교사전문성과 리더십 개발 허브 역할을 위한 성공적인 운영조건으로 개인적 차원, 공동체 차원, 사회적 차원 3가지로 구분되었다. 개인적 차원으로는 ①리더십 공유(임파워먼트), ②적극적 참여(목표 공유, 공동체에 진심), 공동체 차원으로는 ①주체적 운영(맞춤 운영, 참여유도와 홍보), ②지속가능한 활동(함께하는 프로그램, 성장과 발전의 장이 되도록), 사회적 차원으로는 ①협조적 학교문화(협조, 의식개선) ②교육청, 유관기관 지원(행·재정적 지원방안, 정책적 지원방안)의 요인들이 도출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 및 해석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발생하고 있는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들의 전국적인 현황과 효과를 탐색하여, 여성체육교사들에게 어떠한 긍정적인 효과를 제공할 수 있는지, 지속적으로 운영되어질 수 있는 운영조건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실천공동체의 지식 창출 과정을 바탕으로, 자발적으로 운영되는 교사학습공동체들의 참여효과에 대한 기존 연구들의 결과에 더하여, 여성체육교사들만의 교사학습공동체 활동을 통해 나타날 수 있는 효과와 어려움을 탐색했다. 셋째, 남성중심문화의 학교체육 현실 속에서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를 통해 여성체육교사들이 그들의 전문성과 영향력을 어떻게 개발하고 실천하고 있는지 탐색하고자 하였다. 여성체육교사들이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를 통한 전문성 향상과 리더십 개발의 양상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 따른 현장실천을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에 참여 후 실천과 반성, 그리고 나눔의 과정이 필

요하다. 둘째,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 간 네트워크 형성이 필요하다. 셋째,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가 활성화되기 위하여 정책적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기적 관점에서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가 변화하고 유지하는 모습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에 대한 탐색하는 연구도 필요하다. 둘째,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를 통해 향상된 교사의 전문성과 리더십이 학생들의 학습향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연구할 필요가 있다. 셋째, 여성체육교사들의 교사학습공동체에서 비롯하여, 체육계에 존재하는 여성 체육교육 전문인들의 공동체에 대한 탐색으로 연구 대상의 범위를 확장할 필요성이 있다.

주요어 : 여성체육교사, 교사학습공동체, 중등체육, 전문성, 리더십
학 번 : 2021-21271

목 차

Ⅰ.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 1
2. 연구목적 ····· 6
3. 연구문제 ····· 6
4. 용어의 정의 ····· 6
5. 연구의 제한점 ····· 7

Ⅱ. 이론적 배경 ····· 8

1. 여성체육교사 ····· 8
가. 여성체육교사의 현황 ····· 8
나. 여성체육교사 관련 선행연구 ····· 10

2. 교사학습공동체 ····· 15
가. 교사학습공동체 발생배경 ····· 15
1) 교사학습에 대한 관점 ····· 15
2) 교사학습에 대한 공동체적 접근 ····· 18
가) 학교공동체 ····· 18
나) 교사학습공동체 ····· 19
나. 교사학습공동체 유형 및 특징 ····· 23
1) 전문가학습공동체 ····· 23
2) 탐구공동체 ····· 24
3) 실천공동체 ····· 25

다. 체육교사학습공동체 ····· 29
1) 개념 및 정의 ····· 29
2) 관련 선행연구 ····· 29

3. 교사학습공동체의 교사전문성 함양 ····· 31
가. 교사전문성과 체육교사전문성 ····· 31
나. 교사리더십과 체육교사리더십 ····· 35
다. 교사학습공동체를 통한 교사전문성과 리더십 ····· 39
라. 체육교사학습공동체를 통한 교사전문성과 리더십 ····· 42

III. 연구 방법 ····· 45

1. 연구 설계 ····· 45
가. 연구 패러다임 및 논리 ····· 45
나. 연구 절차 ····· 46

2. 연구 참여자 ····· 47
가.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 ····· 47
나. 연구 참여 교사 ····· 51

3. 자료 수집 ····· 52
가. 사전 개방형 설문 ····· 52
나. 개별 심층 면담 ····· 54
다. 포커스 그룹면담 ····· 56
라. 관찰 ····· 57
마. 현지문서 ····· 58

4. 자료 분석 및 해석 ····· **59**

5. 연구의 진실성 및 윤리 ····· **60**
가. 연구의 진실성 ····· 60
나. 연구의 윤리 ····· 61

Ⅳ. 연구 결과 및 논의 ····· **62**

1.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 현황과 운영방식 ····· **62**
가. 함께해 공동체 ····· 63
1) 동기 및 목적 ····· 63
2) 운영방식 및 활동내용 ····· 65
나. 넘버원 공동체 ····· 69
1) 동기 및 목적 ····· 69
2) 운영방식 및 활동내용 ····· 70
다. 에이스 공동체 ····· 72
1) 동기 및 목적 ····· 72
2) 운영방식 및 활동내용 ····· 73
라. 원더풀 공동체 ····· 76
1) 동기 및 목적 ····· 76
2) 운영방식 및 활동내용 ····· 77
마. 초신성 공동체 ····· 79
1) 동기 및 목적 ····· 79
2) 운영방식 및 활동내용 ····· 80
바. 나이스 공동체 ····· 83
1) 동기 및 목적 ····· 83
2) 운영방식 및 활동내용 ····· 85

2.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 참여의 효과와 어려움 ····· 88
가.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 참여의 효과 ····· 89
1) 체육교사 전문성 ····· 89
가) 능전문성 ····· 89
나) 지전문성 ····· 94
다) 심전문성 ····· 99
2) 체육교사 리더십 ····· 104
가) 목표지향성 ····· 105
나) 공동체성 ····· 107
다) 과업주도성 ····· 109
라) 전문성 ····· 111
3) 사회적, 정서적 지지 ····· 113
가) 공감과 위로의 장 ····· 113
나) 시스터후드 ····· 115
다) 함께하는 즐거움 ····· 116
나.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의 어려움 ····· 119
1) 개인적 요인 ····· 119
가) 출산과 육아 ····· 119
나) 리더의 희생 ····· 120
2) 공동체 요인 ····· 122
가) 공동체 성장통 ····· 122
나) 자율성의 양날 ····· 123
3) 사회적 요인 ····· 125
가) 물리적 제약 ····· 125
나) 비협조적인 분위기 ····· 127

3. 교사전문성과 리더십개발의 허브역할을 위한 조건 ···· 130
가. 개인적 차원 ····· 131
1) 리더십공유 ····· 131

2) 적극적 참여 ····· 132
나. 공동체 차원 ····· 134
1) 주체적 운영 ····· 134
가)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 맞춤 운영 ····· 134
나) 참여유도와 홍보 ····· 136
2) 지속가능한 활동 ····· 137
가) 함께하는 프로그램 ····· 138
나) 성장, 발전의 장이 되도록 ····· 139
다) 다양한 프로그램 계획 ····· 140
다. 사회적 차원 ····· 142
1) 협조적 학교 문화 ····· 142
2) 교육청, 유관기관의 지원 ····· 144

4. 종합논의 ····· 149
가.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 발생 ····· 149
나.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 참여 ····· 151
다.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 활성화 ····· 153

Ⅴ. 결론 및 제언 ····· 155

1. 결론 ····· 155

2. 제언 ····· 160
가. 현장실천을 위한 제언 ····· 160
나.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 161

참고문헌 ····· 163
Abstract ····· 177

표 목 차

표 1. 중등학교 체육교원 현황 ····· 9
표 2. 체육계열 대학교 학생 현황 ····· 9
표 3. 초등 여성 체육교사 대상 연구물 구분 ····· 11
표 4. 중등 여성 체육교사 대상 연구물 구분 ····· 14
표 5. 교사학습공동체의 유형 ····· 22
표 6. 교사학습공동체 비교 ····· 28
표 7. 연구의 절차 ····· 47
표 8. 연구 참여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 정보 ····· 50
표 9. 연구 참여 교사 정보 ····· 51
표 10. 사전 개방형 설문의 주요 질문 내용 ····· 53
표 11. 개별 심층 면담의 주요 질문 내용 ····· 55
표 12. 포커스 그룹 면담의 주요 질문 내용 ····· 56
표 13. 관찰기록지 예시 ····· 57
표 14. 현지문서의 예시 ····· 58
표 15. 전문가 그룹정보 ····· 61
표 16. 관찰기록지 ····· 81
표 17.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 현황과 운영 ····· 87
표 18. 교사 리더십 속성별 요소 ····· 105
표 19. 실천공동체 운영조건 ····· 130
표 20.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 발생동기 및 형태 ····· 151

그 림 목 차

그림 1. 실천공동체의 구성요소 ····· 26
그림 2. 교사리더십 개념 모형 ····· 36
그림 3. ‘함께해 공동체’ 소개 내용 ····· 63
그림 4. ‘함께해 공동체’ 안내사항 ····· 65
그림 5. ‘함께해 공동체’ 친선경기 모습 ····· 68
그림 6. ‘넘버원 공동체’ 운영회칙 ····· 71
그림 7. ‘에이스 공동체’ 운영계획서 ····· 74
그림 8. ‘에이스 공동체’ 실기연수 모습 ····· 74
그림 9. ‘원더풀 공동체’ 연수 운영계획서 ····· 77
그림 10. ‘초신성 공동체’ 운영 목표 홈페이지 발췌 ····· 79
그림 11. ‘초신성 공동체’ 활동 사진 ····· 83
그림 12. ‘나이스 공동체’ 활동 사진 ····· 86
그림 13. 체육교과 지식 관련 프로그램 ····· 96
그림 14. ‘나이스 공동체’ 프로그램 포스터 ····· 98
그림 15.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 참여효과 ····· 118
그림 16.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 참여 어려움 요인 ····· 129
그림 17.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 성공적 운영조건 ····· 147
그림 18. 여체공 탄생-효과-어려움-성공요인 ····· 148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이제 곧 첫 출근, 첫 수업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너무 걱정된다.
처음 학생들과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줄은 어떻게 세워야하는지,
준비운동은 어떤 방식으로 하며 수업 때 어떤 활동들을 해야 할지
하나부터 열까지 생각할 것이 너무 많다.

(2014년 2월 김교사의 일기)

동료 선생님께서 추천해주신 체육교사학습공동체에서 자율연수를 진행
한다고 한다. 주제는 '망(亡)망(忘)망(望)' 내가 바라던 주제였다.
그곳엔 엄청난 수업 전문가 선생님들이 계셨다.
다양하고 유익한 활동으로 가득 찬 수업사례들을 배워보니
나도 당장 내 수업에 적용해보고 싶다.

(2018년 11월 김교사의 일기)

오늘은 대학교 동문 여성 체육교사들과 모임을 갖게 되었다.
그동안의 근황부터, 학교 이야기, 수업이야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갔고
서로의 이야기에 공감하며 위로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체육수업
아이디어와 체육대회 때 재밌는 행사에 대한 자료를 공유하였는데
나도 우리학교에 가서 선생님들과 의논해서 꼭 해봐야겠다.

(2020년 5월 김교사의 일기)

위의 체육교사 일기에 나온 것처럼 학교에서 교사들에게 다양한 전문성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선행연구들의 분석을 통해 교사의 직무영역은 크게 수업, 생활지도, 행정업무로 나눠지고 그 영역들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수업, 특별활동지도, 생활지도, 학급운영, 학교경영, 대외관계, 전문성 신

장의 7가지 영역으로 분류될 수 있다(이원희, 2019). 이러한 업무들을 수행하기 위하여 교사들에게 다양한 전문성이 요구되어진다. 홍은숙(2011)은 교사가 가지는 전문성은 교과 및 교육방법적 지식과 기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사라는 직업의 가치와 윤리를 알고 실천하는 측면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교사는 단순한 교육과정의 전달자가 아닌 이를 재해석 하고 실행하는 실천자로서, 그리고 고도의 전문성을 발휘하여 학교의 변화뿐만 아니라 교육의 혁신을 주도하는 리더로서 역할을 부여받게 되었다(주현준, 김갑성, 2015). 교사리더십은 교사들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직무영역에서 학생, 동료교원, 학부모 등에게 발휘하는 목표지향적, 과업주도적, 전문적 영향력이라고 보았다(김병찬, 2015).

체육교사의 전문성과 관련하여 최의창(2010)은 체육교사에게 있어 교과 이론과 실기 기능이 뛰어난 것뿐만 아니라 인성과 심성까지 함께 갖추어야 진정한 전문성을 지닌 체육교사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체육교사는 타 교과 교사들보다 더 많은 수업시수, 교과 수업 외에도 교육활동과 기타 다양한 업무들을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이예훈, 권민정, 전선혜, 2014). 이처럼 체육교사는 학교체육에서 신체활동의 가치를 구체적인 방법으로 실천하며 다양한 교육공동체 대상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인적 자원(강연정, 이의재, 유정애, 2021)으로써 전문적인 교사 리더십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체육교사의 리더십은 감성적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 셀프 리더십, 변혁적 리더십 등으로 발휘되었을 때 학생들의 수업 만족도, 창의력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선행연구를 통해 알 수 있다(강주형, 2022; 김은지, 조송현, 추나영, 2017; 안창규, 2011; 오준식, 2018; 정성우, 표내숙, 정상훈, 2009; 추나영, 2019).

‘19세기 학교에서 20세기 교사가 21세기 학생을 가르친다.’라는 말이 있듯이 새로운 세상이 다가오는 속도는 빨라지고 시대에 따라 학생들도 바뀌어가고 있다. 따라서 교사는 변화해가는 시대에서 자신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다양한 방법과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있다. 예비교사교육을 통해 교직에 입문하기 전 교사로서의 최소한의 자질과 역량을 갖추기 위한 것이라면 현직교사교육은 평생에 걸쳐 끊

임없이 교사의 전문성을 기르고 심화시키는 과정이다. 현직교사교육은 개인 스스로 자율적으로 하거나, 기관중심으로 또는 단위학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까지 교사의 전문성은 교육부에 의해 중앙집권적으로 규정되고 관리되어왔다. 교사가 필요한 전문지식을 일방적으로 전달받는 방식으로 이러한 지식을 습득하여 각자 학교에서 교육을 실천하고 시행착오를 거듭하며 전문성을 신장시켜왔다. 이를 통해 교사 개개인의 전문성은 향상되었으나 교사 개인의 전문성만으로는 날로 더해가는 학생들의 다양성과 교육상황의 복잡성 등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대처하는 데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다(서경혜, 2015). 이제 교사들의 집단 전문성 개발이 필요한 시기이다. 다양한 경력과 전문성을 가진 교사들이 서로 자신의 전문성을 공유하고 교류하면서 공동의 전문성을 발전시켜 나가야한다.

지속적 전문성 개발의 방법 중 하나로 개인의 전문성은 물론 집단전문성 개발을 위한 접근으로 교사학습공동체가 있다. 교사학습공동체는 교사 전문성 신장과 학생들의 학습증진을 위해 협력적으로 배우고 탐구하고 실천하는 교사 집단이다(서경혜, 2009). 교사학습공동체는 통상적으로 학교 안 교사학습공동체와 학교 밖 교사학습공동체로 분류된다(고연주 외, 2017). 전국적으로 수업탐구 교사학습공동체의 구성현황은 모두 1,511개이며, 참여하고 있는 교사는 14,483명으로 나타났다(박영숙, 2016). 특히 체육교사 학습공동체와 관련한 연구에서 251명의 중등체육교사 중 20.1%가 교사학습공동체 활동을 통해 자발적 전문성을 개발한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활동에 대한 만족도도 다른 전문성 개발활동에 비해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이옥선 외, 2018).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도 학습공동체, 실천공동체가 이루어지고 있다. 의학교육에서는 학습공동체가 비교적 최근에 도입되기 시작하였는데 연구에 따르면 2014년 66개의 의과대학에서 운영되어지고 확대되어지고 있다고 한다(김혜원, 안신기, 2021; Smith et al., 2014). 학습공동체를 통해 멘토, 동료 학생들과의 관계 증진, 학생들의 참여와 리더십 향상,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인식 향상 등의 긍정적인 영향이 보고되었다. 또한 간호사의

경우에도 학습조직이론을 적용해봄으로써 간호사의 조직 몰입 및 직무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조직의 성과를 달성하는데 매우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실증적 결과를 보여주었다(강경화, 송기준, 2010; 정석희, 2003). 사회복지분야에서 실천공동체에 참여하는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 지식창출과 공유가 사회복지 직무수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자신의 실천을 뒤돌아보고 재해석하는 반성적 사고 활동을 통해 전문성 개발에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배효승, 이정희, 2020; 정원희, 이용우, 2020).

체육 분야에서도 교사학습공동체를 통한 전문성 함양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현장에서 교사학습공동체에 참여하는 여성체육교사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대부분 기존 체육교사학습공동체는 남성체육교사 위주의 분위기로 인해 가입과 활동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한다고 하였다(정현수, 전세명, 2021). 대부분 기존 구성원이 남성체육교사여서 여교사 개인이 참여하게 되었을 때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쉽지 않았으며, 실기연수에서는 참여를 하더라도 남성위주로 이루어지는 연수 형태로 인해 주변인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주장도 있었다. 따라서 여성체육교사들에게 필요한 지식과 경험, 태도를 공유하고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학습공동체의 장(場)이 필요하다.

최근 현장에서 여성체육교사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그들의 역할과 역량이 증대되고 있다. 중등 여성체육교사구성비는 꾸준히 증가하여 2021년 체육임용경쟁시험 합격자 중 여자체육교사의 비율은 23.3%까지 증가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여성체육교사들은 성별 특성 및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으로부터 비롯되는 수업 부정적 경험, 역할갈등, 체육교사 정체성 혼란, 학교체육문화 적응의 어려움, 교직생활스트레스, 직무소진 등의 어려움을 체육교육 현장에서 겪어왔음을 알 수 있다(이옥선, 조아라, 홍예리, 2021).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체육교사들은 다음과 같은 노력과 헌신을 보여주고 있다. 김혜연(2020)은 여성체육교사들이 체육교사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역할수행에 임하고, 여성체육교사로서 더 잘 할 수 있는 부분을 강조하며, 공동체를 통해 서로 나눔으로써 성장하는

모습을 발견하였다.

여성체육교사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한 해결책 제시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현재 현직 교사연수, 학습공동체 등에서 여성 체육교사들이 요구하는 부분을 완벽하게 해결해주지 못하고 있다. 최근 한 여성체육교사가 만든 모바일 메신저 대화방에서 여자체육교사학습공동체의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 수업전문가가 되기 위해(37.3%), 정보공유(27.8%), 여교사들의 고충에 대한 상담과 응원(12.7%), 선후배 멘토링(8.7%)외 기타의 목적으로 나타났다. 여성체육교사들이 체육교사로서 전문성을 형성해 나갈 수 있는 교사전문성개발 활동 및 프로그램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이처럼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는 여성체육교사들의 지속적 전문성 개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연구는 제한적이었다. 체육교사학습공동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기존의 연구들은 체육교사모임 운영에 관한 연구(박인서, 김승재, 2009), 학습공동체 형성 과정 및 참여 양상에 대한 연구(오승현, 2014; 이기림, 2020; 조기희, 이옥선, 2016)가 있었고, 체육교사학습공동체의 온라인상 교사학습공동체 활동 유형을 보여주는 연구(류민정, 2012; 윤기준, 이계산, 이창현, 2018)가 있었다. 이러한 체육교사학습공동체 활동을 통한 교사의 성장, 전문성 개발 과정과 효과를 탐색한 연구(오승현, 2014; 장경환, 2017; 정현수, 2019; 정현수, 윤기준, 2020; 조기희, 2015; 조기희, 이옥선, 2016; 조기희, 2018; 황인택, 2021)와 부정적 경험 유형을 탐색한 연구(정현수, 전세명, 2021)도 있었다. 하지만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에 대한 연구(최덕묵, 고문수, 2011)는 많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제는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의 발전과 이를 통한 여성체육교사들의 체육교사 전문성, 리더십 발달을 통한 체육교사 위상을 강화시키기 위해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에 대한 초기연구로서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의 형성과 운영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제공할 것이며, 앞으로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 여성체육교사의 발전에 시사점을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의 형성, 운영을 통해 여성체육교사들에게 체육교사전문성과 리더십이 어떻게 함양되는지 알아보고,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조건을 탐색하는데 있다. 이를 통해 현직교사교육에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의 필요성과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3. 연구문제

첫째,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의 현황과 운영방식은 어떠한가?

둘째,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 참여의 효과와 어려움은 무엇인가?

셋째, 교사전문성과 리더십 개발의 허브 역할을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

4. 용어의 정의

○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

교사의 자발적인 요구로 참여를 하며 여성체육교사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운영되어지는 교사학습공동체로 정기적 모임을 가지고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정서적 소속감을 토대로 가치, 비전, 경험, 실천, 지식 등을 공유하고 집단지성과 반성을 통한 협력적 학습이 일어나는 집단이나 단체로 정의한다.

○ **체육교사 전문성**

체육교사 전문성은 체육교사로서 교과지도, 학생지도, 업무처리의 영역에서 능력적, 심성적 측면의 전문성을 발휘하는 자질과 능력으로 보았다. 능력적 전문성은 교과내용 전달 차원으로, 효율적으로 학생들에게 습득시키기 위한 기술이나 방법적 노하우에 관련된 것이고, 심성적 전문성은 학생의 심성함양을 이끌어 내며 교사의 올바른 신념과 태도를 의미한다.

○ **체육교사 리더십**

체육교사로서 학급 안팎에서 리더십을 수행하고, 공동체에 소속감을 갖고 헌신하며, 다른 사람의 교수능력 향상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자신이 발휘한 결과에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한다(Katzenmeyer, M., & Moller, G., 2009).

5. 연구의 제한점

첫째, 연구자는 9년차 경력의 중등체육교사로 다양한 체육교사학습공동체에서 제공하는 연수 및 전문성 개발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이에 따라 연구 참여자들의 모습을 대할 때 연구자의 경험으로 인한 주관성이 개입될 수도 있다. 하지만 연구자로서 익숙한 것을 낯설게 보기 위해 노력하며, 연구의 진실성 절차를 통해 최대한 주관성을 배제하고자 한다.

둘째, 연구기간이 짧다. 학습공동체의 형성과정과 주기를 고려했을 때 현재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 대부분이 형성기, 내면화기 단계(최남정, 임부연, 2013)의 경우에 있으며, 연구기간도 12개월 정도이므로 연구에서 관찰 할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Ⅱ. 이론적 배경

본 연구의 목적은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의 형성, 운영을 파악하고 여성체육교사들에게 체육교사전문성과 리더십이 어떻게 함양되는지 알아보고, 성공적인 운영 조건을 탐색하는데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제시하기 위해 제1장에서는 우리나라 여성체육교사의 현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교사학습공동체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체육교사학습공동체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제3장에서는 교사학습공동체를 통한 교사전문성 함양에 대한 관련성을 파악하여 연구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1. 여성체육교사

가. 여성체육교사의 현황

최근 학교현장에 여성 교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그들의 역할과 역량이 증대되고 있다. 초등학교를 살펴보면 1980년대에는 남교원의 비율이 여교원보다 높았으나, 여교원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2021년 전체의 77.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의 경우 1980년에는 여교원의 비율이 32.8%를 차지하였으나, 1995년 49.8%, 2021년에는 전체 중학교 교원의 71.0%를 차지하게 되었다. 고등학교의 경우 여교원 수가 1980년엔 17.1%에 불과했으나, 그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여 2021년에는 전체의 56.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교육개발원, 2020).

하지만 통계자료에 의하면 중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 총 15,982명 중 남자체육교사가 13,014명(81.4%), 여성체육교사가 2,968명(18.6%)으로 나타났다. 여성체육교사의 비율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편이지만, 남자체육교사가 여성체육교사에 비해 4.4배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교육개발원, 2022). 중등체육교사 중 여교사 비율이 2013년 대비 2022년에 2%가 증가하였지만 18%로 아직 남교사 비율에 비교하면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표1. 중등학교 체육교원 현황(한국교육개발원, 2022; 문화체육관광부, 2022)

연도	남			여			합계		
	중학교	고등학교	소계	중학교	고등학교	소계	중학교	고등학교	소계
2015	6,996	5,617	12,613	1,645	890	2,535	8,641	6,507	15,148
2016	7,069	5,917	12,986	1,643	948	2,591	8,712	6,865	15,577
2017	6,812	5,870	12,682	1,606	922	2,528	8,418	6,792	15,210
2018	6,949	5,839	12,788	1,737	979	2,716	8,686	6,818	15,504
2019	7,002	5,792	12,794	1,802	975	2,777	8,804	6,767	15,571
2020	7,171	5,681	12,852	1,834	988	2,822	9,005	6,669	15,674
2021	7,262	5,639	12,901	1,861	1,015	2,876	9,123	6,654	15,777
2022	7,416	5,598	13,014	1,943	1,025	2,968	9,359	6,623	15,982

*교장, 교감, 휴직교원 포함, 퇴직교원 및 강사 제외 (단위: 명)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체육계열 대학교육에서부터임을 찾아볼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2022)에서 2020년 체육계열 학생 수를 비교, 분석해 보았을 때, 전문대학 체육계열 학과는 총 180개로 남학생 10,574명, 여학생 3,164명이었고, 4년제 대학 체육계열학과는 총 534개로 학생 수는 남학생 51,282명, 여학생 19,541명으로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약 26.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체육계열 대학교 학생 현황(문화체육관광부, 2022)

계열	학과수	학생수		
		남	여	합계
전문대학	180	10,574	3,164	13,738
대학(4년제)	534	51,282	19,541	70,823

(단위: 명)

이와 같은 통계자료들을 통해 현재 우리나라 여성체육교사의 비율이 높지는 않지만 점차적으로 증가되고 있으며 앞으로 여성체육교사 비율의 확대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런 측면에서 여성체육교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들이 양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나. 여성체육교사 관련 선행연구

여성체육교사와 관련한 선행연구물들은 학교급별, 주제별로 분류되어질 수 있다. 학교급에 따라 초등 여교사와 중등 여자체육교사로 구분되어지고, 주제별로는 크게 여성체육교사로서의 역할기대, 수업만족도와 학생들의 인식, 교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과 그에 따른 교직 적응, 사회화 연구로 볼 수 있다.

초등학교의 여성체육교사와 관련된 연구는 체육전담, 체육교과 수업과 관련하여 역할기대(나주영, 고문수, 2015; 장용규, 김동식, 2015)와 그에 따른 어려움, 스트레스와 적응과정(박미림, 이옥선, 조기희, 2015; 백은정, 남재화, 2019; 이호철, 권오륜, 정우식, 2005; 장영화, 박재정, 2018)에 관련한 선행연구들이 있었다. 초등학교에서 여성교사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체육수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박재정, 조순묵, 2003; 이광무, 이유경, 2010)와 여교사들의 체육수업에 대한 전문성 개발 과정과 정체성을 다루고 있는 연구(강지민, 박상봉, 2019; 임혜림, 2016; 홍애령, 2017)도 있다.

양정모(2021)는 초등학교 여교사의 체육수업경험과 관련된 개별 사례 연구물들을 질적 메타 분석방법을 통해 특징과 속성을 도출해내어 경험 극복과 개선에 관한 결과를 도출해 내었다. 체육수업에서 초등학교 여교사의 부정적 경험은 부족한 전문성, 수업부담, 날씨, 열악한 환경, 다중역할 갈등 등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부정적 경험은 지속적인 노력, 전문성 향상, 소통학습 문화의 경험을 통해 긍정적인 경험으로 바뀔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표 3. 초등 여성 체육교사 대상 연구물 구분

역할 기대	나주영, 고문수(2015)	한 초등학교 여교사의 체육수업에 관한 자문화기술지
	장용규, 김동식(2015)	초등학교 여성 체육부장으로서의 삶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수업 만족도 & 학생 인식	박재정, 조순묵(2003)	초등학교에서 교사의 성이 편중된 체육수업을 경험한 학생의 인식
	이광무, 이유경(2010)	초등학교 여교사의 체육수업실태분석
어려움, 스트레스 적응	이호철 외 (2005)	스포츠교육학, 초등 여교사의 체육수업 걱정거리
	박미림 외(2015)	초등 여교사들의 교사 경력 주기에 따른 체육 가르치기의 어려움 탐색
	장영화, 박재정(2018)	여자체육전담교사가 겪는 현실적 어려움과 역할수행 가능성
	백은정, 남재화(2019)	초등학교 여교사의 체육수업에 대한 스트레스와 대처방식의 관계
교직적응 & 사회화 & 정체성	임혜림(2016)	초등학교 체육전담교사 되어가기 : 한 교사의 교육적 성장과 그 의미
	홍애령(2017)	초등 무용교육자의 정체성과 수업 전문성에 관한 이론적 고찰
	강지민, 박상봉(2019)	한 초등학교 여자체육전담교사의 체육수업 전문성 개발의 첫 경험

중등 여성체육교사와 관련한 선행연구의 경우 남상우, 이혜령(2019)은 한 쪽 성의 경험과 관점이 주류적 견해가 되면 다른 쪽 성은 소외되거나 주변화 될 수밖에 없음을 전제로 학교체육 문화 내에서 소수자로 지내는 여성체육교사의 젠더수행을 분석하였다. 여성체육교사들이 인식하는 학교체육 문화는 운동능력 중심의 자격문화, 남성 선호 문화, 남성 지배적인 젠더 위계적 질서 문화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화적 특징 속에서 여성체육교사들은 기존의 여성적 규범을 따르는 순종적 젠더 책략, 아니면 남성적 가면을 쓰고 학생들과 상호작용하는 변형적 젠더 행위, 혹은 여성성도 남성성도 아닌 교사 정체성을 강조하거나 젠더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적은 종목을 선택하는 젠더 지우기 책략 등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원석(2016)은 여성예비체육교사들의 젠더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 이것이 개인의 정체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여성예비체육교사들의 젠더 인식에 있어서 상당한 정체성 혼란과 괴리가 있었으며, 이는 체육교과에 잠재한 남성중심의 문화와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음을 밝혀내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살아 남기위해' 남성중심 문화에 순응할 수밖에 없으며, '남성성의 추구가 곧 훌륭한 체육교사'가 되는 것이라는 편향된 젠더 틀 안에 갇혀버리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우송희(2012)는 여자체육교사가 교수 상황에서 경험하는 두려움 유발 상황을 파악하고 대처 방안을 알아봄으로써 교사의 정서조절이 교수행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여교사들은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선정, 교과지식의 부족, 운동능력의 부족, 부정적 평가와 같이 교사의 전문성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두려움을 경험하였고, 나이와 임신, 출산과 같은 여성으로서의 생물학적 요인들은 여교사의 여성성을 위협하는 두려움의 유발 상황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두려움 대처방법으로 회피하기, 새로운 방향으로 모색하기 등의 적극적, 소극적 방법 사용되었고 두려움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대처는 교사의 교수행동 및 교수전략에 긍정적인 변화를 줄 수 있음을 밝혀내었다.

방서영, 이의재(2019)는 무용전공자가 체육교사가 되는 과정부터 교직에 적응해나가는 과정,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살펴보며 무용전공자의 초임체육교사로서 교직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적응 과정을 살펴보았다.

김혜연(2020)은 중등여성체육교사의 교사 정체성 형성과정과 요인을 탐색하였다. 교직생활을 경험하면서 출현, 긴장, 협상의 과정을 거쳐서 교사 정체성을 형성해나갔고 경력이 높아질수록 신체적 노화, 엄마로서의 역할 등으로 인해 정체성의 변화를 겪게 되기도 하였다. 각 정체성 형성 과정 단계에 미친 영향 요인을 분석하여 개인 요인, 관계요인, 환경요인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교사 정체성 형성에서 드러나는 특징으로 중등 여성체육교사는 성별적 기대를 극복하고 있는 존재로 나타났다.

오늘날 아무리 교직에 여성교사의 비율이 늘었다고는 하지만 체육교과에서 아직 여성교사는 소수에 불과하다. 선행연구들을 통해서 여성체육교사들이 학교에서의 역할과 가정에서의 역할 등 다양하게 요구되어지는 역할들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갈등과 역경 속에서 여성체육교사들은 각자 나름대로의 적응과 해결을 해나가고 있다. 학교체육에서 여성체육교사의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 체육교사의 전문성과 리더십을 기르고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표 4. 중등 여성체육교사 대상 연구물 구분

역할기대	조성식 외(2014)	여고생의 체육수업 참여 갈등요인과 여성체육교사에 대한 역할기대
	최원석(2016)	여자 예비체육교사의 젠더인식에 관한 질적연구
	남상우, 이해령(2019)	초남성적 학교체육문화 내 여자체육교사의 젠더수행이론화
수업 만족도 & 학생 인식	황명구 외(2010)	체육교사를 향한 학생들의 “다른”시선: 성별에 따른 체육교사의 (비)선호요인 범주 분석
	류민정(2011)	체육수업 시간에는 여자 선생님이 더 좋아요?: 학생이 인식하는 운동흥미, 수업노력과 교사 피드백을 중심으로
	최민희 외(2021)	중학생이 인식하는 여성체육교사의 감성적 리더십과 지도행동유형이 체육교사신뢰와 체육수업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
어려움 & 스트레스 적응	박미혜(2011)	중학교 여자체육교사의 교직생활 스트레스 적응 과정
	우송희(2012)	여자체육교사가 교수 상황에서 경험하는 두려움 정서에 대한 이해
	권민정(2013)	중학교 여자체육교사가 경험한 축구부 감독수행 어려움에 관한 셀프 연구
	김세기, 이승만(2020)	여성체육교사의 젠더 고정관념과 역할갈등, 직무소진 및 만족의 관계
교직적응 & 사회화 & 정체성	김해경(2008)	중학교 여자 체육교사의 교직 사회화 연구
	방서영, 이의재(2019)	무용전공 고등학교 초임체육교사의 교직 적응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김혜연(2020)	중등 여자체육교사의 정체성 형성과정과 요인 탐색
	홍예리 외(2022)	결점에서 강점으로; 중등 여자체육교사가 인식하는 긍정적인 전문적 정체성 탐색

2. 교사학습공동체

가. 교사학습공동체 발생 배경

1) 교사학습에 대한 관점

오늘날 21세기는 정보화, 세계화 시대로 창의적이고 자기주도적인 학습 능력을 지닌 인간을 요구하며, 이러한 요구에 따라 교육 역시 커다란 변화를 겪고 있다. 따라서 교사교육의 중요성은 계속 강조되며, 교육개혁의 핵심이 되고 있다. 아무리 많은 교육개혁과, 우수한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도 학교를 변화시키고 학생들의 성취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교사교육이 변해야하는 이유는 사회적 환경의 변화로 인한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로 교육을 담당할 교사들을 길러내는 근본방식과 내용에 있어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교사교육의 비효율성과 비효과성으로 인해 단순한 변화가 아닌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받고 있다(김병찬, 2000). 따라서 교사학습과 교사교육에 대한 배경들을 살펴보고, 교사학습에 대한 공동체적 접근에 대해 살펴본다.

서경혜(2013)는 교사학습과 교사교육에 대해 도제적 접근, 학문적 접근, 반성적 접근으로 분류하였다. 먼저, 19세기 말 공교육 초기 교사들은 공장 같은 대중교육 시스템 속에서 학생들을 지도하였다. 교수방법으로는 설명식 강의가 이루어졌고 질서와 통제를 핵심으로 한 전통적 교수방식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시기에 교사교육은 주로 도제식교육으로 이루어졌는데(Hargreaves, 2000), 가르치는 일은 비교적 단순하고, 한 번 익히면 더 이상의 배움과 도움도 필요 없는 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교사양성 교육으로써 예비교사들은 경력교사의 교육실천을 관찰, 모방하고 교직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기르면서 전문성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교사로 임용이 된 후에는 동료교사들의 수업을 보기도 어려웠고 본인의 수업에 대한 피드백도 받기 어렵게 되었다. 도제식교육은 전문성과 체계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학문에 기반을 둔 교사교육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도제식 교육에 대한 비판과 함께 20세기 초 미국에서는 교사교육개혁을 통해 교직의 전문성을 확립하고자 하였다(Hargreaves, 2000). 이러한 일환으로 교직의 전문지식을 규명하였으며, 그 체계를 구축하고 교직의 학문적 기반을 확립하는데 관심을 기울였다(Cochran-Smith & Lytle, 1999). 학문적 접근은 교직의 전문성을 학문에서 찾았다. 따라서 기초학문(인문학, 수학, 과학 등), 응용학문(일반교육학, 교과교육학 등), 그리고 교수기술의 위계로 교직의 전문지식체계를 확립하였고, 이것은 교사교육과정의 근간을 이루게 되었다. 예비교사들은 먼저 교과의 기반이 되는 기초학문을 배웠고, 다음으로 교육학의 제반 학문을 배우며 교육에 대한 전문지식을 쌓았다. 그 이후 실습을 통해 기초학문과 교육학의 지식을 교육현장에 적용하며 교수기술을 연마하였다. 다시 말해 학문적 지식을 획득해야 교사자격이 주어졌으며, 시험을 통해 학문적 지식의 획득 여부를 확인한 후 교사로 임용하였다. 교사로 임용된 후에도 현직 연수를 통해 교육이 계속해서 이루어졌다. 기초학문, 교육학 분야의 학자들이 해당 학문의 최신 지식을 교사들에게 제공하였고, 교사들은 최신 지식을 습득한 후 각자 자신의 수업으로 돌아가 이러한 지식을 적용하며 새로운 교수기술을 익혔고 그들의 교육실천을 향상시켰다. 학문적 접근의 교사교육에서 배운다는 것은 학문적 지식을 습득함을 의미하고, 가르치는 것은 습득한 학문적 지식을 교육현장에 적용함을 의미하였다. 그러므로 학문적 지식을 더 많이 습득할수록 더 잘 가르칠 수 있고 교사의 전문성은 신장된다고 여겨졌다. 그러나 교육실천의 장은 탈맥락적이고 일반화를 특징으로 하는 학문적 지식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정도로 안정적이지 않고 다양한 가치가 갈등을 빚는 곳이다. 이러한 실천상황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교사들이 습득한 학문적 지식은 죽은 지식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아무리 학문적 지식을 많이 습득해도 가르치는 것은 별개의 일이 되어, 결국 학문에 기반을 둔 교사의 전문성은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교사교육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게 되었다.

반성적 교사교육은 교사교육에 대한 기술적 합리성의 한계를 비판하고 과학적 지식의 적용자, 교육학 지식의 실행자가 아니라 자신의 실천 속에서 반성을 통해 실천적 지식을 구성하는 지식 구성자를 육성하고자 한다. 반성적 교사교육은 교사 스스로가 자신의 실천을 비판적으로 성찰할 수 있고 자신의 실천을 탐구하여, 자신의 실천으로부터 실천적 지식을 구성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교육을 지향한다(서경혜, 2005).

Schön(1983)은 실천상황에서 발휘하는 전문적 실천 행위 기저에 있는 앎에 주목하였다. 그는 전문가가 불확실성, 불안정성, 특수성, 가치갈등을 특징으로 하는 실천상황에서 문제를 규명하고 해결하는 것은 행위 중 반성(reflection-in-action)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하였다. 행위 중 반성은 행위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행위 기저의 앎을 표면화하여 비판하고 재구성한 후 재구성한 앎을 후속 행위에 구현하여 검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행위 중 반성은 앎과 실천의 상호작용을 특징으로 한다. 행위 기저의 앎을 비판적으로 재구성하여 이를 행위에 옮겨 검증함으로써 새로운 앎은 행위의 변화를 낳고, 새로운 행위는 앎의 변화를 가져온다. 이 같은 행위 중 반성을 통해 전문가는 실천적 지식을 형성, 발전시키고 전문성을 향상시킨다. 이를 위해 교사양성교육에서는 반성일지쓰기, 실습 등이 주로 이용되었다. 반성일지쓰기를 통해 예비교사들이 자신의 교육실천 및 교육적 신념, 생각 등을 재검토하고 재구성하도록 하였다(Zeichner, Melnick, & Gomez, 1996). 또한 실습을 통해 예비교사들이 반성적 실천을 해보고 교육실천과 지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Zeichner & Liston, 1987).

도제적 접근, 학문적 접근, 반성적 접근의 과정을 통해 현장의 실천성이 강조되고 교육적 의미가 깊어지기는 했지만, 이 세 가지 접근 모두 전통적으로 학습이 개인의 검은 상자 속에서 일어나는, 개인주의적 접근이라는 한계를 넘어서지 못했다(정현수, 2019).

2) 교사학습에 대한 공동체적 접근

가) 학교공동체

19세기 미국에서 산업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학교는 산업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인력을 효율적으로 양성하는 기능을 하는 곳으로 전환되었다. 따라서 학교는 과학적 관리, 관료제적 원리에 비추어 조직화되고 운영되었으며, 대량의 지식을 많은 학생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개인 간 경쟁을 조장하고 교육내용을 습득시키는 공장시스템의 교육을 추진해왔다. 결과적으로 학교는 지역사회와 분리되고, 학교구성원들의 관계도 관료적, 계약적 관계가 되었으며, 구성원들 간의 연대감이 상실되어 학생 소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는 대안으로 1980년대 이후 서구에서는 배움을 학교의 중심에 다시 놓고자 하는 노력이 폭넓게 확산되고 있다. 그 대안으로 학교를 공동체로 이해하고, 학교공동체 구축을 주장한 대표적인 교육학자로 Sergiovanni가 있다(주철안, 2007).

Sergiovanni(1994)는 관료적 조직으로서의 학교는 효율성, 생산성을 중요시하며 이를 위해 조직 관리를 강조하는 반면, 공동체로서의 학교는 구성원의 관계성, 소속감, 상호의존성 등을 핵심가치로 강조하게 된다고 하였다. 공동체는 학생들과 교사들을 특별한 방식으로, 자신들보다 더 중요한 공동의 가치와 이상으로 결속시킨다고 하였다(주철안, 2004). 따라서 학교를 보다 좋은 학교로 만들고 싶다면, 공동체를 다시 세워야한다고 주장하였다.

변수정(2016)은 학교공동체는 이질적이고 다양한 학교 구성원들이 학교의 교육 목적의 공유를 통해 의지가 발현되어 함께하는 교육 활동을 매개로 공유하는 가치를 생성해내고, ‘우리’라는 연대 속에 자신의 역할에 헌신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다른 삶을 이해하며 각자에게 전문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상태의 단위학교를 말한다고 주장하였다.

학교공동체의 구성 요소 및 형성 조건은 크게 다섯 가지 항목으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구성원들이 비전을 공유하고 목표의식을 가져야 한다.

둘째, 모든 구성원들의 참여와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이 중요하다. 셋째, 구성원들의 상호신뢰와 배려를 기반으로 하는 관계성이 중요하다. 넷째, 개인적 자율성을 존중하고 의사소통을 중시한다. 다섯째, 교육적 기능을 초점으로 하여 학교조직이 운영되어야 한다(김효정, 2016).

학교 공동체는 학교에서 어떤 가치를 우선 하느냐에 따라 전문 공동체, 학습자 공동체, 리더 공동체로 개념화 될 수 있다(Sergiovanni, 1994). 먼저 전문 공동체로서 학교의 모든 구성원들은 자신의 지속적인 전문성 개발과 전문적 이상에 헌신한다. 교직에 있어서 전문적 이상은 수업에 대한 헌신, 가치 있는 사회 목적에 대한 헌신, 돌봄의 윤리에 대한 헌신, 자신의 수업과 교직 자체에 대한 헌신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노력은 교직 전반에 걸쳐 이루어져야 하며, 집단적으로 전환됨으로써 성공적인 교사는 그렇지 못한 교사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학교의 성공사례는 다른 학교에 영향을 줄 수 있게 된다. 학습자 공동체로서의 학교는 학교 내에서 교장과 교사들이 함께 탐구할 때 공동체를 이루게 되며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표현하고, 다양하게 실행하도록 허용한다. 학습자 공동체가 구축된다는 것은 새로운 학습뿐만 아니라 공유적 리더십과 진실한 관계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리더 공동체로서의 학교는 공유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혜와 의지, 열정, 시간,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리더십이 구성원 모두에 의해서 행사될 때 학교는 리더 공동체가 된다(노종희, 1998).

어떠한 유형의 공동체를 세우든 먼저 구성원들이 목표, 가치관, 신념, 등을 공유해야한다. 공동체에서의 이념은 교장과 교사들의 신념과 실천을 형성한다. 또한 학생들의 신념과 실천에도 영향을 미치기에 구성원들이 다같이 공유하는 공동의 이념을 구축하는 것이 학교공동체를 세우는 데 가장 근본이자 핵심이라 할 수 있다(서경혜, 2015).

나) 교사학습공동체

교사학습공동체는(Teacher Learning Community) 1980년대 후반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전통적인 교사 연수의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이자, 교

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또 하나의 대안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교사학습공동체는 학습조직, 전문가 학습공동체 등의 용어와 혼용되어지고 있어 용어의 사용과 관련한 합의된 일치를 보이지는 못하고 있다(윤지희, 2019).

McLaughlin과 Talbert(2006)는 교사가 공동으로 실천을 성찰하고 학생의 학습을 검토함으로써 본인의 교수방식을 개선하고 학생의 학습 또한 증진하기 위해 협력적으로 실천하는 집단으로 보았다.

Sergiovanni와 Starratt(2007)는 교사학습공동체를 학생의 학습증진에 목표를 두는 교사들의 협력적 실천 집단으로 정의하고, 공동체 내 교사들은 자신들의 지식, 경험, 실천 등을 공유하고, 협력적으로 학습하며, 실천에 대해 비판적으로 반성함으로써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설명한다.

서경혜(2015)는 교사의 학습은 자유로운 공유와 교류를 통해 이루어지고, 비판적 탐구활동을 통해 지식을 창출하며, 궁극적으로는 교사의 전문성 신장과 학생들의 학습증진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교사학습공동체는 교사전문성 신장과 학생 학습 증진을 위하여 비판적으로 탐구하고 협력적으로 실천하며 끊임없이 배우고 실천하는 교사들의 결속체라고 하였다. 또한 교사학습공동체의 특성으로 학습지향성, 협력,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한 학습, 반성적 실천을 제시하였다(서경혜, 2008).

따라서 이러한 정의를 종합해보면 교사학습공동체는 교육 전문가인 교사들이 집단지성을 통해 학생의 학습증진과 더 나아가 교사 자신과 동료교사의 전문성을 신장시킴으로써 학교 개혁을 이끌어나가는 공동체라고 볼 수 있다(박효원, 정향윤, 2020). 국내 교사학습공동체의 활성화 배경에는 혁신학교 정책과 관련이 있다. 혁신학교 정책은 2009년 경기도교육청에서 처음 도입되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속가능한 학교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학습공동체, 자치공동체, 생활공동체와 같은 새로운 학교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혁신학교를 '민주적 자치공동체와 전문적학습공동체에 의한 창의, 지성 교육을 실현하는 공교육 혁신의 모델학교'로 정의함으로써 교사의 전문성과 교사학습공동체와의 관계를 강조하였다. 경기도교육청을 시작으로 2017년에는 전국적으로 약 2만여 명의 교사

가 2,000여개의 교사학습공동체에 참여하게 되었다(박희진, 고영규, 권동택, 2018).

교사학습공동체의 유형은 기준에 따라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되어질 수 있다. 기준으로는 구성원의 범위, 학교급, 교과, 교사학습공동체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 등이 있다. 먼저 구성원의 범위에 따라 학교 안 학습공동체와 학교 밖 학습공동체로 구분할 수 있다. 학교 안 학습공동체는 단위학교 안에서 학교 교사들이 중심이 되어 운영하는 학습공동체이다. 여기에는 교과중심 학습공동체, 학년 중심 학습공동체, 교사 동아리 등이 포함될 수 있다. 학교 밖 학습공동체는 서로 다른 학교의 교사들이 외부에서 학습공동체를 조직하여 운영하는 것이다. 교과연구회, 특정 주제 중심 연구회 등이 해당 된다(박영숙, 2016).

두 번째로 학교급에 따라 유아, 초등, 중등 교사학습공동체로 구분할 수 있다. 유아 교사의 경우 교육과정 개발에 초·중등학교의 교사보다 교사의 자율성과 능동적인 참여가 많이 요구되고 있으며, 국가수준, 지역의 특수성, 교육기관의 특성과 상황, 유아의 특성에 따른 흥미와 요구를 자신만의 교육과정으로 개발할 수 있는 전문성을 요구받는다(염지숙, 2011). 유·초등의 경우 공통된 교육과정을 공유하며, 교수학습방법 탐색,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에 대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었다(김경은, 정지현, 2016).

세 번째, 교과별로 교사학습공동체를 구분 할 수 있다. 중등학교는 교과가 세분화되어 있고 가르치는 내용이 영역마다 차이가 크기 때문에, 담당교과에 따라 하나의 교과를 중심으로 한 교과중심 교사학습공동체가 있을 수 있다. 또한 다양한 배경의 교과 교사들로 공통된 주제로 구성된 범교과 교사학습공동체도 존재하게 된다(박다은, 2019).

네 번째, 교사학습공동체 활동이 주로 이루어지는 공간, 장소에 따라 온라인, 오프라인 교사학습공동체로 구분되어질 수 있다. 온라인커뮤니티를 통해 교사들은 공간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고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수업자료를 공유하는 활동이 가능하게 되어 진다. 오프라인 교사학습공동체는 교사들이 시간, 장소를 정해 정기적으로 대면으로 만나서 활동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앞선 내용은 <표 5>에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표 5. 교사학습공동체의 유형 (문화체육관광부, 2019 재구성)

구분	대분류	유형
범위	학교 안	- 학년중심 학습공동체: 학년별 협의회 - 교과중심 학습공동체: 체육교과협의회 - 통합형 학습공동체(교과+학년): 융합형 수업평가회 - 수업연구회: 신임교사 수업연구발표회 - 학교단위 연수 학습공동체: 학교 연수학점이수제 - 취미 중심 교사 동아리: 독서동아리
	학교 밖	- 교과연구회: 체육교과연구회 - 주제중심연구회: 수업방법연구회
학교급	유아	- 유아교사 학습공동체
	초등	- 초등교사 학습공동체
	중등	- 중등교사 학습공동체
교과	범교과	- 협동학습연구회, 융합인재교육연구회
	특정교과	- 교과별 학습공동체: 전국사회교사모임, 전국체육교사모임
장소	온라인	- 온라인교사학습공동체: 인디스쿨, 교컴 - SNS 활용 교사학습공동체: 밴드, 다음카페, 그룹채팅 등
	오프라인	- 대면 정기모임 활동

나. 교사학습공동체 유형 및 특징

1) 전문가학습공동체

일련의 교육개혁 실패를 통하여 학교가 공장모델에서 탈피하여 전문가학습공동체(Professional Learning Community)로 거듭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이는 지지를 얻게 되었다. 전문가학습공동체의 주요 연구자 DuFour와 Eaker(1998)는 전문가학습공동체는 공동의 가치와 비전을 가지고 끊임없이 그들의 실천을 탐구하고 향상시켜 나아가는 전문가 집단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또한 전문가학습공동체의 특징으로 미션, 비전, 가치를 공유하고, 모든 구성원들이 집단탐구를 통해 끊임없이 현재의 상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새로운 방법을 탐색하며, 목적을 공유하는 협력적 팀으로 구성 운영됨을 제시하였다. 또한 새로운 이론이나 방법에 도전하는 실천 및 실험지향성, 결과를 계속적으로 평가하며 지속적인 개선의지를 보이는 특징을 가진다.

Hord(1997)는 전문가학습공동체는 학교의 교장과 교사들이 끊임없이 배우고자 노력하며 배운 것을 서로 공유하고 실천하며, 그리하여 지속적으로 그들의 전문성을 향상시켜 나아감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전문가학습공동체를 가치와 비전의 공유, 집단 창의성, 실천의 공유, 지원적인 공유 리더십, 지원적인 환경으로 특징지었다.

Stoll과 Louis(2007)는 전문가 학습 공동체를 학습에 대한 비전의 공유로 동기화 되고, 학생들의 학습 증진을 가져올 새롭고 더 나은 방법들을 함께 배우고, 그들의 실천을 탐구하기 위한 방법을 공동체 안팎에서 찾으며, 서로 돕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포괄적인 집단이라고 정의하였다.

교사학습공동체, 전문가학습공동체, 전문가공동체 등의 용어가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고 호환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다. 정의에 있어 각 용어마다의 큰 차이는 없었지만, 그래도 찾아볼 수 있는 차이점은 교사학습공동체는 구성원들이 교사로 한정되어 있고, 전문가학습공동체는 교사뿐 아니라 교장, 교감, 장학사, 교육행정가, 대학 교수 등 다양한 교육전문가들을 포함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학습공동체에 대한 정의와 특징을 종합해보면 교육에 대한 가치 공유, 학습중심, 협력의 세 가지 요소로 범주화될 수 있다(서경혜, 2009). 가치공유는 전문가학습공동체가 교육에 대한 가치와 비전을 공유하며, 실천을 해나간다는 것이다. 학습중심은 다른 공동체들과 전문가학습공동체를 구별하는 핵심적인 특징으로 공동체 구성원의 학습은 물론 공동체의 집단 학습에도 중점을 둔다. 마지막으로 협력은 구성원들이 실천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함께 반성하는 것에서 공동으로 실천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등의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난다(서경혜, 2015).

학습관에 있어서의 차이로는 전문가학습공동체가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향상에 중점을 두는데, 교사학습공동체는 학생들의 학습을 학업 성취도로 제한하거나, 학업 성취도에 중점을 두는 것에 반대한다.

전문가학습공동체는 학교혁신을 위한 방법으로 공동체에 대한 수단적 관점이 우세하다. 반면에 교사학습공동체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자 동시에 목적 그 자체이다. 교사학습공동체는 교사들이 성장하는 장이자 학교교육 혁신을 지원하는 수단이다.

전문가학습공동체는 개별학교를 기본단위로 하며 자신이 가르치는 학교와 학생들에게 치중한다. 하지만 교사학습공동체는 자신이 가르치는 학교와 학생들뿐 아니라 모든 학생들을 위한 교육에 관심을 갖는다(서경혜, 2015).

이처럼 2000년대 들어 전문가학습공동체는 교사학습공동체의 일환으로 학교조직의 병폐를 극복하는 학교혁신의 새로운 모델로 큰 관심을 받았다. 하지만 학업성취도 향상 효과에 교육행정가, 정치가 등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전문가학습공동체는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평가점수를 향상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하였다(서경혜, 2015).

2) 탐구공동체

서경혜(2015)는 탐구공동체의(Inquiry Community) 대표적인 연구자로

Cochran-smith와 Lytle을 들었는데, 교사의 학습을 지식과 실천의 관계로 접근하였다고 보았다. 실천을 위한 지식의 관점은, 기존의 지식기반에 토대를 두고 학자들에 의해 창출된 형식적 지식이 원천이라고 보았다. 실천 속 지식 관점에서 교직에 필요한 지식은 유능한 교사의 현명한 교육실천 기저에 있다고 주장한다. 이 두 관점은 형식적 지식과 실천적 지식의 이원화를 공고히 하였고, 형식적 지식 또는 실천적 지식을 습득하는데 치중한 교사교육이 이루어지게 하였다. 실천의 지식 관점에서는 교육실천에 필요한 지식은 교사공동체의 집단 탐구를 통해 생성된다고 주장한다.

탐구공동체는 교육에 대한 비판적 탐구를 통하여 교육실천의 혁신 및 학생들의 학습증진, 교육 불평등 타파, 사회정의 구현을 위하여 노력하는 교육실천가들의 결속체이다. 탐구공동체는 학교 교사, 대학교수, 교사교육자, 교육행정가 등 다양한 경력, 경험, 능력을 가진 교육실천가들로 구성된다. 또한 이러한 교육실천가들의 비판적 탐구를 특징으로 한다. 교육실천가들은 교육실천, 교육 현안 및 쟁점, 교육과 관련한 사회적, 정치적 이슈들을 비판적으로 고찰한다. 탐구공동체는 학생들의 학습 증진을 목적으로 이를 위하여 교육 실천을 혁신하고 학교교육을 쇄신하고자 노력한다(서경혜, 2015).

3) 실천공동체

전문가학습공동체와 함께 교사 학습에 대한 공동체적 접근인 실천공동체의(Community of Practice) 개념은 1980년대 제록스(Xerox) 회사 출연 '학습연구기관(Institute for Research on Learning)'에서 비롯되었다. Lave와Wenger(1991)가 같은 분야에서 공동학습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 집단으로 '실천공동체'라는 용어를 만들어 발전시켰고, 현재 Wenger가 실천공동체론의 가장 저명한 학자로 알려져 있다(서경혜, 2013). 현시대 학습은 개인적인 것, 시작과 끝이 있는 것, 다른 활동들과 분리된 것, 가르침의 결과로 여겨진다. Wenger는 학습에 대한 관점의 전환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실천공동체는 학습은 사회적 참여의 과정

이고, 실천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결속체를 기본 단위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서경혜, 2015). 실천공동체는 그들이 하는 일에 대한 관심이나 열정을 공유하고 정기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그것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배우는 사람들의 집합체이다. 구체적으로 실천공동체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공통의 관심영역 도는 공동업무(joint enterprise)는 공동체 구성원이 함께 관심을 갖고 경험하는 주제나 문제로서 지속적인 학습을 필요로 한다. 실천공동체는 각각 추구하는 지식의 영역이 있으며 이는 곧 공동체의 정체성으로 나타난다. 둘째, 공동체 또는 상호참여(mutual engagement)로서 서로 상호작용하고 학습하며 그 과정에서 신뢰를 형성해 가는 모임으로 학습의 기반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계 속에 공동체는 실천을 개선하고 만들어 나간다. 마지막 요소인 실천 또는 공동자산(shared repertoire)은 어떠한 일을 수행할 때 드러나는 공통된 행동이자 접근 방식으로 구성원들이 공동 관심사를 탐구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용하는 자원이나 결과를 말한다(이성아, 정효정, 2016).

그림 1. 실천공동체의 구성요소

실천공동체를 통한 학습은 상황학습이론에 기반을 두고 있다. 상황학습이란 지식이 유용하게 사용될 때 실제 맥락 속에서 지식과 기술을 학습하는 것을 말한다(성희동, 2001). 학습은 실천공동체 참여 확대의 과정이다. 실천공동체의 참여는 정당한 주변적 참여로 시작된다. 정당한 주변적 참여는 실천공동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에 다 참여하지 않고 일부 참여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신입은 주변의 특별한 관심과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실수나 실패가 허용된다. 그리고 공동체에서 어떤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공동체가 공유하는 실천에 대해 이해하고, 조금씩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공동체의 실천에 참여하면서 공동체의 공유자산에 접하게 되고 이를 습득, 실천에 활용한다. 이렇게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역량을 발전시켜나가면서 정당한 주변적 참여자는 전면 참여자로 성장하게 된다. 실천공동체는 공동체의 실천에 참여하는 실천의 장이자, 공동체가 축적해온 지식을 습득하고, 구성원으로서 역량을 기르는 학습의 장이다. 동시에 실천공동체는 지식 창출의 장이기도 하다. 실천공동체는 끊임없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탐구하고, 재구성, 발전시킨다. 지식 창출은 의미의 교섭(negotiation of meaning)을 통해 이루어진다. 의미교섭은 참여와 물화(reification)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진다. 참여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사회적 실천에 참여함을 의미한다. 물화는 경험에 형태를 부여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공동체 구성원들은 공동체 실천에 참여하며 그 경험을 물화하고 이를 통해 의미를 형성하고 교섭하고 공유한다. 그리하여 공동체의 공유지식을 지속적으로 재구성, 발전시킨다(서경혜, 2013).

교사학습공동체의 유형 세 가지(전문가학습공동체, 탐구공동체, 실천공동체)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 의미하고자 하는 교사학습공동체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정의내리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 밖에서 자발적으로 참여를 희망한 교사들이 공동의 가치와 비전을 가지고 수평적 관계로, 관심과 열정을 공유하고 정기적으로 상호작용하며 교사의 전문성 및 학생들의 학습증진을 목적으로 학습하는 교사들의 집합체로 정의한다.

표 6. 교사학습공동체 비교 (서경혜, 2015)

	전문가학습공동체	탐구공동체	실천공동체
정의	공동의 가치와 비전을 가지고 끊임없이 실천을 을 탐구하고 향상시켜 나아가는 전문가 집단 (DuFour&Eaker)	교육에 대한 비판적탐구를 통하여 교육실천의 혁신, 학생들의 학습증진, 교육 불평등 타파, 사회정의 구현을 위하여 노력하는 교육실천가들의 결속체	관심, 열정을 공유하고 정기적 상호작용을 하면서 학습하는 사람들의 집합체
근본	기업 사회학, 조직이론, 학교효과성연구 등에 토대	교사연구	학습연구원
목적	학생 개개인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학습증진도모, 학업성취도 향상	개인의 전인적 성장 민주적인 사회건설 교육실천의 혁신 및 학교교육 개혁 지원	사회적 실천에 참여를 통해 배우고 성장
단위	개별학교	학교+α	실천공동체
특징	미션, 가치, 비전의 공유 공동탐구, 협력적 팀 실천 및 실험 지향성 결과지향성 지속적인 개선	공동체는 수단이자 목적 학생들의 학습증진 및 정의로운 민주사회 건설	공동사 상호참여 공유자산
공통점	협력학습, 공동학습		

다. 체육교사학습공동체

1) 개념 및 정의

체육교사학습공동체의 전문성 개발 효과에 대한 관심은 국외에서 먼저 시작되었다. 2006년 미국의 대표적인 스포츠교육학 학술지인 Journal of Teaching in Physical Education에서 체육교사학습공동체의 전문성 개발 효과를 보고하였다(Deglau & O'sullivan, 2006). 그 이후 체육과 교육과정 개발을 위해 중등교사와 대학교수로 형성된 모임 등 다양한 형태의 체육교사학습공동체의 효과를 탐색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국내에서는 초등학교 교사의 체육교과 학습공동체 형성과 효과를 탐색한 연구(이승배 등, 2010)가 처음으로 발표된 이후 관련된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정현수, 윤기준, 2020).

체육교사학습공동체란, 체육교육에 관한 가치를 공유하는 교사들이 자율적 참여를 통해 서로의 체험과 지식들을 교류하고 공유함으로써 협력적으로 실천적인 지식을 창출하여 현장에 적용하는 공동체적 학습 지향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다(오승현, 2014).

2) 관련 선행연구

체육교과에서 체육교사 전문성 개발에 공동체적 접근이 제시된 이후 다양한 형태의 경험적 연구가 진행되었다. 먼저 Keay(2005)는 학교를 기반으로 체육부서 내에서 이루어지는 초임 체육교사들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성 개발 활동을 연구하였다. 경험이 풍부한 동료교사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다양한 실천적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이 나타났다. 또한 학교기반 부서단위의 지속적 전문성 개발 활동은 의도적이고 반성적 실천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고 하였다.

국내의 교사학습공동체와 관련한 연구를 초등과 중등, 학교 내와 학교 외의 기준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초등체육과 관련하여 교사학습공동체

참여 경험 및 전문성 함양 등의 다양한 주제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우선 초등학교에서 학교 내에서 이루어진 교사학습공동체 연구로 이승배(2010)는 체육교과와 관련하여 초등교사들의 학습공동체 형성과정과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는데 목적이 있다. 초등교사의 체육교과 학습공동체는 구성원의 참여 수준과 정도에 따라 맹아적 단계, 개별교사 중심의 형식적 학습공동체 단계 및 자기주도적 학습공동체 단계를 거쳐, 협력적 학습공동체 단계로 위계적인 방향성을 지니면 형성된다. 학습공동체 형성과정에는 몇 가지 조건과 원리가 형성의 메커니즘으로 작용하는데 구성원 상호간의 친밀한 인간관계, 헌신적인 조력자의 역할, 호혜적 관계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내 초등교사 학습공동체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진 반면, 학교 외의 연구는 소수의 연구가 이루어진 경향이 있다. 학교 외의 대표적인 연구로 조기희, 이옥선(2016)은 초등교사의 체육교사학습공동체 참여 효과와 교사학습공동체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여 전문성 함양을 위한 효율적 운영방안을 모색하였다. 초등교사의 체육교사학습공동체 참여는 교사들의 지식의 확장 및 생산, 지도 역량의 증진, 사랑과 열정의 상승, 반성적 성찰의 심화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체육교사학습공동체 참여에는 시간, 공간적 맥락과 같은 환경요인, 배움, 속함, 나눔과 같은 동기요인, 리더의 역할과 구성원들의 책무성과 같은 촉진요인, 정서적 유대, 원활한 소통, 자극의 지속을 강조하는 프로그램 요인 등이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초등학교와는 다르게 중등학교에서의 학교 내 교사학습공동체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한 편이다. 손천택, 제성준(2017)의 연구에서는 교사학습공동체를 구성하여 학교수준 체육과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과정을 기술하고 그것이 지니는 교육적 의미를 심층적으로 탐색하였다. 교육과정 개발은 새로운 체육과 교육과정 개발의 필요성 공감하기에서 출발하여 문제점 파악, 개발 및 실행하기 순으로 진행되었다. 학교수준의 자생적 교사학습공동체 활동은 세 가지 가치 있는 교육적 경험을 제공하였다. 첫째, 학습공동체에 참여한 체육교사들은 새로운 체육과 교육과정을 함께 계획하고

공동으로 실천하는 과정을 통해 집단지성과 교과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둘째, 리더의 헌신적 역할과 구성원의 충실한 역할 수행이 체육과 교육과정 개발 및 실행의 중요한 성공요인이었다. 셋째, 학교 상황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개발해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을 중요하게 인식하였다.

학교 외 교사학습공동체 연구와 관련하여 윤기준, 전세명, 정현수(2017)는 체육교사의 교사학습공동체 참여 동기 및 양상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참여 동기로 교사들은 수업 개선을 위한 실질적 지식의 습득을 위해 교사학습공동체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수업 개선 체험, 구성원과의 긍정적 유대 관계 형성, 공동체 내 중요 역할 수행은 교사들이 지속적인 공동체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셋째, 탄력적 운영, 수용적 분위기, 수업 개선 활동 유지 등은 효과적인 체육교사 전문성 개발을 위한 교사학습공동체의 특성으로 도출되었다.

3. 교사학습공동체의 교사전문성 함양

가. 교사전문성과 체육교사전문성

1966년 유네스코(UNESCO)와 세계노동기구(ILO)에서 채택된 ‘교원의 지위에 관한 권고안’에는 교원이 전문직으로 간주되어야하고, 존엄하고도 계속적인 연구를 통하여 습득, 유지되는 전문적 지식과 전문화된 기술을 필요로 하는 공동적 업무의 하나라고 하였다. 교직이 다른 전문직들과 다르게 전문성을 보이는 이유는 바로 교사가 마주하는 대상이 학생이라는 점에 있을 것이다. 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어렵다는 것은 교사의 일들이 복잡성과 역동성 등을 지니고 있다는 점과 높은 관련이 있다. 학교에서 교사의 직무 영역은 수업, 특별활동지도, 생활지도, 학급운영, 학교경영, 대외관계, 전문성 신장의 7가지 영역으로 이해할 수 있다(이원희, 2019). 교사는 학교의 한 구성원으로서 수업 이외에도 다양한 업무를 처리하며 학교의 유지와 발전에 기여하고 있

다. 따라서 교사 전문성에 대해서 다양한 정의와 관점이 있을 것이다.

김옥예(2006)는 교사의 전문성을 지식, 기술, 신념의 관점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먼저 지식은 교과 수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교과지식과 교과의 특성 및 활용과 관련된 지식이다. 교사전문성과 관련된 기술은 교수-학습, 학생지도, 학급 경영 등의 학교 조직에서 사용하는 독특한 기술이 실제 수행되고 적용되어 장기간의 경험 속에서 축척된 방법적인 것을 의미한다. 신념은 정의적 측면으로 교육애, 교직관, 직무수행에 대한 윤리의식 등으로 교사가 갖추어야할 태도를 규정하였다. 또한 시대적 변화와 교사의 역할 변화를 배경으로 참된 전문성, 잠재된 전문성, 정체된 전문성의 개념을 첨가하여 최종적으로 교사 전문성에 대한 재개념화를 이루었다.

김이경 외(2004)는 교사의 전문성을 교사가 학교에서 무엇을 하는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와 관련하여 교사 직무와 관련된 조직차원, 특정한 사회·문화적 환경 내에서 교사에게 요구되는 자질과 역할을 규정하는 사회차원, 교사로서 갖추어야할 지식, 기술, 태도 등과 관련된 개인 차원 등 다양한 영역이 포괄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틀을 바탕으로 이우태(2012)는 교사 전문성을 '교사가 교육 현장에서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개인차원, 조직차원, 사회차원에서 요구되어지는 교사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스스로 갖추어야 하는 전문적 능력과 자질'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리고 교사전문성의 구성요소를 개인차원의 전문성(교과·학습지도, 생활지도능력, 학급경영능력), 조직차원 교사전문성(학교경영참여, 대인관계), 사회차원 교사전문성(지역사회와의 관계, 자기계발 노력)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체육학에서 전문성에 관한 연구는 심리학, 교육학 연구 분야에서 밝힌 전문성에 관한 이론적인 고찰과 함께 우수한 교수자의 직무수행을 관찰하여 갖추어야 할 지식, 태도, 소양을 밝히거나, 초임교사와 경력교사의 전문지식 차이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6)에서 체육교사자격기준으로 체육교사가 갖추어야할 9가지 전문적 역량을 제시하였다. 체육교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추고 교육과정에 대한 정보, 체육수업을 효과적으로 계획하고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학생에 대한 개인 특성, 학습 및 발달정도에 대한 이해와 그에 따른 학습 모니터와 평가활동을 할 수 있는 자질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다양한 학교체육 프로그램을 설계, 운영, 평가하며, 학교 체육 정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체육수업을 실현해야한다. 체육교사는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전문성 개발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반성한다. 마지막으로 체육교사는 건전한 인성과 교직 사명감을 갖추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이러한 기준 자격들을 통해 본다면 체육교사의 전문성이란 체육교사가 하는 일이며, 이러한 일을 잘 해내기 위해서 지녀야 하는 체육교사의 자질에 관한 것이다(최의창, 2010).

Manross와 Templeton(1997)은 JOPERD의 전문성 연구 특집에서 체육교사의 전문성을 수업의 종합적인 계획, 개별화 지도, 고도의 지각능력, 자동화된 행동, 창의적인 피드백 반응, 교과지식의 활용, 반성적 탐구 등으로 구분하였다.

이제행, 김종욱, 김현식(2005)은 104명의 체육교사를 설문, 면담하여 중등 체육교사의 교수전문성을 이론지식과 실기기능, 교수기능으로 분석해내었다. 먼저 체육교사의 교수전문성은 대학입학 전부터 대학교육과 현장경험 등을 통해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다고 하였다. 이론 지식으로는 수업지식과 체육·스포츠 전반에 걸친 폭넓은 전문지식을 갖춰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체육교사의 실기기능은 스포츠 종목에 대한 운동수행능력을 의미하였다. 교수기능은 수업시간에 학생들을 효율적으로 지도하는 능력으로 보았다. 이러한 전문성은 장기간에 걸쳐 형성되며 시대적, 사회적, 환경적 요인에 의해 수정되고 새롭게 형성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체육교사의 자질에 관해 다양한 접근을 통하여 효과적 체육교사, 반성적 체육교사, 비판적 체육교사, 인문적 체육교사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70년대 교육연구와 수업연구가 과학화되고 객관화되기 시작하면서 교사의 교육 능력은 연구를 통해 얻은 타당한 결과물들을 바탕으로 마련된 지식들에 근거하여 개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지지를 얻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기능적 접근은 체육교사의 전문성으로 효과적 수업진행능력을 지닌 효과적인 교사를 주장하였다(최의창, 2004).

반성적 접근은 기능적 접근에 대한 비판을 하며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초반부터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반성적 접근에서는 교사들 자신의 수업에 대한 성찰과 반성을 토대로 문제를 개선하는 능력을 강조한다(최의창, 2004). 체육전문인 교육의 방향도 반성적 판단능력과 실행능력을 갖춘

전문인을 길러내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함이 주장되었다(Lawson, 1990).

비판적 접근은 반성적 접근과 그 경계가 다소 모호하나, 근본적인 수준에서의 문제의식을 강조한 Macdonald와 Tinning(1995)은 현행 체육교사교육 프로그램은 체육교사교육의 성격과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재규정이 필요하며, 체육교사교육의 수업내용과 방법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비판적 접근에서의 체육교사 전문성은 사회문제 전체와 체육교육에 대한 비판적 안목을 가지는 것과 비판적 수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았다(정현우, 2015).

2000년대 이후 후기 근대적 접근에서 체육교사의 교수행위는 학생의 욕구와 이성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하고 융통하여야 하며, 체육교사는 학생의 인식능력과 신체능력의 개발을 옆에서 끌어주고 도와주는 최고 협력자라고 보았다(Fernandez-Balboa, 1997). 인문적 접근은 교육을 통해 지, 덕, 체가 온전하게 융합되어 사람다운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체육교육은 체육을 통하여 그 일을 해내야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인문적 체육교육을 하기 위해 체육교사의 전문성에는 기법적, 심법적 전문성 두 가지 측면이 존재한다(최의창, 2010). 기법적 전문성은 교과내용의 효과적 전달과 관련된 차원으로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력과 그것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학생들에게 습득시키기 위한 기술 방법적 노하우에 관련된 지식들이다. 심법적 전문성은 학생을 인간으로서 대하여 마음과 마음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능력으로 학생의 심성함양을 이끌어낼 수 있는 마음의 자질이다(최의창, 2011).

또한 최의창(2010)은 여기에 해당하는 4덕 5지 6예의 인문적 체육교사의 자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4덕은 내면에 갖추어야하는 인(어진마음), 의(멋진행동), 예(밝은표정), 지(고운말씨)의 덕목이며, 5지는 체육교사가 알고 있어야 지식 역사, 철학, 문학, 예술, 종교에 관한 지식이다. 6예는 체육교사가 지녀야하는 기예로써 운동능력, 언어능력, 문장능력, 어학능력, 사고능력, 상상능력이 해당된다.

나. 교사리더십과 체육교사리더십

김병찬(2015)은 교사리더십이 등장하게 된 배경으로 기존 학교개혁방식의 한계, 학교 재구조화 논의, 공동체주의의 영향, 구성주의 인식론의 등장을 제시하였다. 기존의 국가주도의 하향식 교육개혁은 교사들의 자율적 역량을 약화시키고 교사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움으로써 의도했던 성과를 내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수직적, 위계적 학교체제에서 벗어나 협동적, 공동체적 학교체계를 추구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학교는 조직 구성원들이 모두 학습하고 성장해가는 공동체로 구성원들 간의 협력 속에서 주체적으로 학교문화를 만들어 나가야한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지식을 교수자와 학습자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보는 구성주의 인식론에서 교사는 교장, 동료교사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리더십을 발휘하는 존재로 파악된다. 교사리더십은 교사의 지도적 자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자질은 단일 속성이 아니라 복합적 속성이다. 그리고 교사리더십 개념은 아직까지 모호한 점이 있어 명확하게 정의내리기 어렵다(Katzenmeyer & Moller, 2009).

교사리더십의 개념구성요소로 리더십 발휘대상, 교사리더십 발휘영역, 교사리더십의 속성을 규명함으로써 교사리더십의 개념을 내린다. 교사리더십 발휘 대상으로 김영태(1999)는 학생, 동료교사, 학부모, 학교행정가, 지역사회 인사 등을 포함하였다. 김병찬(2007)은 학생, 동료교사, 학부모, 교장, 교감을 교사리더십 발휘 대상으로 보았다.

교사리더십 발휘영역으로 김영태(1999)는 수업지도, 생활지도, 학급운영, 학교업무, 학부모 및 지역사회 관계 등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박호근(2005)은 수업지도, 학생지도, 학교 및 학급경영, 교육과정 운영, 대외협력, 행정사무 등의 여섯 가지 분야로 제시하였다.

교사리더십 속성으로 Danielson(2006)은 교수-학습을 잘 수행하기 위한 전문성의 핵심 속성을 리더십으로 보았다. 또 교사의 결정권과 판단력이 중요하다고 보았으며, 동료들과의 협력적 관계를 촉진할 수 있는 공동체 리더십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국가와 사회의 목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여 참여와 기여를 핵심 요소라고 보았다. 최정희(2004)는 시대적 변화에 따라 교사에게 변환적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고, 비전제시, 전문적 능력, 전문적 덕목, 권한 부여 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교사리더십 속성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개념 정리를 이끌어낼 수 있다.

Katzenmeyer & Moller(2009)에 따르면 교사리더는 학급 안팎에서 리더십을 수행하고, 교사학습자와 리더들로 구성된 공동체에 소속감을 갖고 헌신하며, 다른 사람의 교수능력 향상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자신이 발휘한 리더십 결과에 책임지는 사람이다.

김병찬(2019)은 교사리더십을 교사들이 학교에서 학교의 교육목표 달성을 위하여 수업지도, 생활지도, 학급운영, 동료교사관계, 행정업무, 학부모관계 등의 영역에서 학생, 동료교사, 학부모 등에게 발휘하는 목표지향적, 공동체적, 과업주도적, 전문적 영향력이라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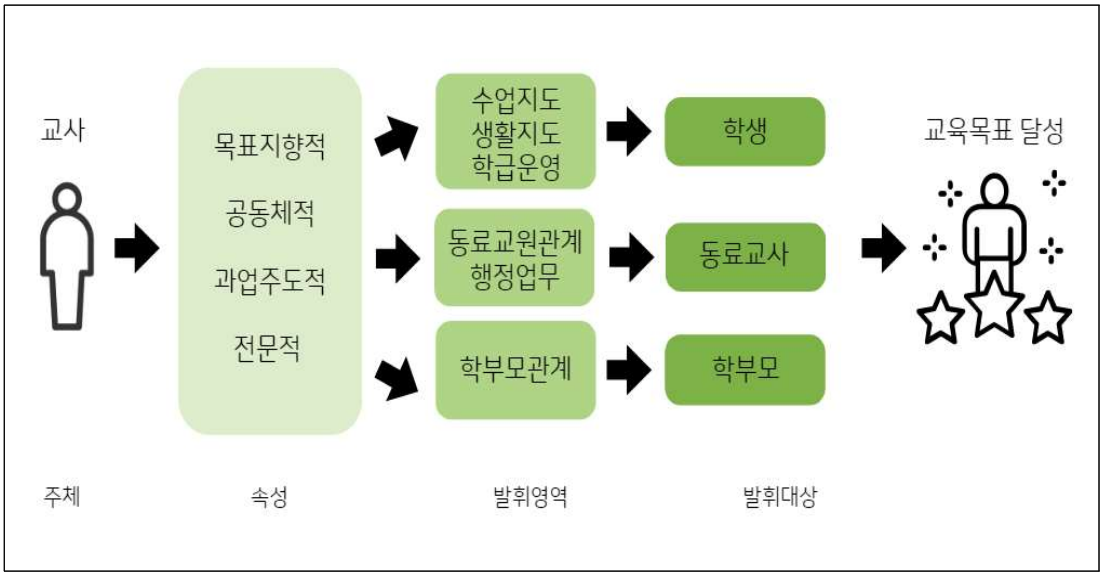


그림 2. 교사리더십 개념 모형(김병찬, 2019)

교사리더십과 관련하여 체육교사의 경우에도 더욱더 리더십이 필요하고 강조되고 있다. 체육수업의 경우 학교마다 수업 공간, 교구유무 등이 다르기 때문에 수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체육교사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아

진다. 이때 체육교사가 발휘하는 리더십에 따라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인식, 만족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체육교사의 리더십 역량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김창석, 추나영, 조송현, 2022).

◎ 서번트 리더십

경영학자인 Robert K. Greenleaf(1970)는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소개하였다. 구성원을 섬김의 대상으로 보고 무조건 명령과 통제로 지시하는 자기중심적 리더가 아니라 봉사와 섬김의 정신으로 구성원의 아래에 위치하는 것을 강조한다. 서번트 리더십이란 타인을 위한 봉사에 초점을 두고 종업원, 고객, 커뮤니티를 최우선으로 여기고 그들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헌신하는 리더십이라고 정의를 내렸다(최남례, 2005).

서번트 리더는 방향제시자, 파트너, 지원자의 역할을 하며 행동특성으로 경청, 공감, 치유, 설득, 인지, 통찰, 비전제시, 청지기의식, 구성원의 성장, 공동체 형성 등을 제시하였다(Spears, 1995).

오준식(2018)의 연구에서 중학생들이 체육교사의 서번트 리더십을 인지했을 경우 수업에서 학생들의 학습동기와 만족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밝혀내었다. 체육수업에서 학생들이 교사가 학생들의 성장을 지원하고 공감과 믿음을 준다고 느낄 때 체육수업의 학습동기와 참여도에서 큰 효과가 나타났다. 또한 체육교사가 서번트 리더십을 발휘할 때 공감대 형성과 공동체 형성에 만족을 넘어 중학생들의 사회적 인성에 긍정적인 관계를 보여주었다.

강주형(2022)은 체육수업 내에서 체육교사의 서번트 리더십이 여학생들의 체육수업몰입도, 만족도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보고자 하였다. 체육교사가 학생이 속한 공동체를 위해 개인적 희생을 하고 학생에게 최선을 다하는 노력을 하며, 학생에게 헌신적인 모습을 보일수록 수업에 더욱 몰입하는 것을 밝혀내었다. 또한 체육교사가 비전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신뢰와 열정을 가지고 지도할 때, 학생에게 헌신적인 모습을 보일 때 체육수업 만족의 효과가 커졌다.

◎ 감성적 리더십

감성적 리더십은 감정부분에 초점을 맞춘 리더십으로 지도자가 자기 스스로 자신의 주변 구성원들의 감성을 이해하고 소통함으로써 영향력을 행사하는 능력으로 정서적 역량에서 가장 핵심적인 측면인 공감의 개념이 강조된다(Goleman, Boyatzis, McKee, 2002).

김은지, 조송현, 추나영(2017)은 중학교 체육교사의 감성적 리더십이 교사신뢰 및 수업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체육교사의 감성적 리더십은 교사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교사에 대한 신뢰는 수업몰입에도 긍정적인 결과를 일으켰다.

추나영(2019)은 학생들이 지각하는 체육교사의 감성적 리더십에 대한 인식과 학업적 효능감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감성적 리더십은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업적 효능감 증진을 위해서 체육교사의 공감과 소통능력을 바탕으로 한 감성적 리더십이 중요함을 확인하였다.

◎ 변혁적 리더십

Burns(1978)에 의하여 맨 처음 개념화되었고, Bass(1985)에 의하여 그 개념이 조작적으로 정의가 내려지고 연구되어졌다. 변혁적 리더십은 조직원들의 성장욕구를 자극하고 충족시켜 동기화시킴으로써 그들의 태도와 신념을 변화시키고, 자신감을 갖게 하며 더 많은 노력과 헌신을 이끌어내 기대 이상의 성과를 달성하게 하는 새로운 리더십이다(김창걸, 1999).

정성우, 표내숙, 정상훈(2009)은 체육교사의 변혁적 리더십에 따라 중·고등학생의 내적동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았다. 체육교사의 변혁적 리더십 요소를 카리스마, 개별적 배려, 지적자극 등으로 보았고, 이는 내적동기의 유능감, 흥미, 노력, 긴장·압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체육교사는 학생과의 의사소통 상호작용이 필수적이며 학생들이 체육에 대한 호기심을 기를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 개발이 필요하다.

◎ 셀프 리더십

셀프리더십은 1980년대 미국 기업들이 국제경쟁력에서 밀려 경기가 침체되자 이를 극복하기 위해 Manz & Sims(1980)에 의해 개발된 개념이다. 셀프리더십은 구성원들이 자신의 사고나 행동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스스로 리드해 나가기 때문에 조직구성원의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보다 높은 수준의 성과와 유효성을 위해 개인 스스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체계적인 전략이다(백현, 김용순, 2010).

안창규(2011)는 초중등학교의 체육교사 셀프리더십이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분석하고 매개요인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체육교사들의 셀프리더십이 충분히 발휘되고 인정될 때 학교조직 목표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으며 높은 직무만족과 조직 몰입이 유발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체육교사의 다양한 유형의 리더십은 학교에서의 업무에서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수업만족도, 수행능력에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다. 교사학습공동체를 통한 교사전문성과 리더십

교사학습공동체 활동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교사의 학습공동체 참여가 전문성 제고 및 학교교육 효과성 개선에 있어서 효과적임이 보고되면서, 실제 교육현장에서도 교사학습공동체의 활성화가 요구되고 있다. 교사학습공동체의 참여를 통한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밝히는 연구는 교사의 전문지식 발달이나 정체성 형성, 교사 효능감, 리더십 발달에 관한 연구 등이 수행되었다. 교사들은 교사학습공동체에 참여하면서 교과교육학지식 및 실천적 지식을 함양하는 발전된 모습을 보였다(고연주 외, 2017).

장연우, 소경희, 박지애(2019)는 교사학습공동체의 교사학습 양상에 관한 질적메타분석을 통해 교사학습공동체에서의 교사학습의 결과로 인지적 측면과 정의적·사회적 측면에의 발달이 있었음을 밝혀내었다. 많은 연구결

과를 통해 교수학적 내용 지식의 증가가 가장 두드러지는 결과로 나타났다(김남균 외, 2014; 정민수, 2018; 차가현 외, 2015). 또한 학생에 대한 이해의 심화, 교과에 대한 새로운 이해, 교수 레퍼토리의 확장도 나타났다. 교사학습공동체 활동을 통해 잠재적이고 암묵적인 지식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고, 철학적 이론적 텍스트를 함께 제시함으로써 교사들의 교육관 정립 및 변화의 결과도 야기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정의적·사회적 측면에서의 교사학습의 결과는 자신감과 교수효능감의 증가, 교수태도의 적극성 증가, 개인적인 삶의 태도 변화 등으로 나타났다(서진아, 최정아, 2012; 정민수, 2018).

다양한 교과에서의 교사학습공동체 활동을 통한 교사전문성 함양에 관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정다희, 신인선(2018)은 수학교사 학습공동체에서의 활동이 어떻게 교사의 지식을 발달시키고 교사의 수업 전문성을 신장시키는데 효과적으로 기여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수학교사 학습공동체 참여과정은 교사의 수업 전문성과 자신감을 신장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수학교사 학습공동체에서의 수업설계 과정을 통해 교사들은 학습목표를 능동적으로 구성하였으며, 학습내용도 교과서에만 의존하지 않고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직접 선정하였고, 선정된 학습내용들의 우선순위를 매기고 내용의 깊이나 교수방법을 계획하였다. 또한 수업 설계과정에서 부딪히는 여러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동료 교사들과의 협력적 관계를 이루었는데, 이러한 경험은 교사들의 수업에 대한 자신감을 향상시켰다.

윤석주(2020)는 비교과교사인 보건교사들의 교사학습공동체가 보건교사들에게 갖는 의미는 무엇이며, 교사학습공동체에서 어떻게 수업전문성을 향상시키는지 탐색하고자 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은 연구회 활동을 통해 학교 의료인의 역할을 넘어 수업을 하는 교사로서의 자존감을 재정립하고 교사 임파워먼트를 신장하고 있었다. 연구회에서 교사들은 서로의 다양한 관심사에 따른 전문성을 공유하여 집단지성을 통해 다양한 수업방식을 시도하였다. 협력적 수업연구를 통해 평상시 해오던 강의식 수업과 동영상 중심 수업에서 벗어나 미술치료, 독서토론 등의 다양한 수업 방법

으로 학생중심 보건수업을 하게 되었다. 보건교사들에게 교사학습공동체는 단지 수업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데에 그치지 않고, 보건교육자로서의 자존감과 임파워먼트 신장을 통해 보건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음을 밝혔다.

함형인 외(2014)의 연구에서는 기술교사가 기술교사 학습공동체에 참여하게 되는 동기와 교수 전문성 개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기술교사 학습공동체에 참여하게 되는 동기는 단위학교 교과협의회의 한계, 바람직한 기술수업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고 싶은 욕구, 공동체를 통해 전문가로서 성장하고 싶은 욕구, 학습공동체 참여를 통해 학생들과의 바람직한 소통 방법을 익히기 위해서였다. 기술교사 학습공동체 참여를 통한 교수전문성 개발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기술교과 수업에 대한 전문성 개발영역과 기술교과 내용에 대한 전문성 개발 영역으로 나타났다. 기술교과 수업에 대한 전문성 개발영역에서는 수업에 대한 자기반성, 기술교과 교수학습 방법 습득, 학습자 중심의 수업관으로 나타났고, 기술교과 내용에 대한 전문성 개발은 기술교과 내용 지식 습득,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재구성을 통해 적극적인 전달자 역할로의 성장이 있었다.

교사학습공동체에서의 교사리더십 관련 연구들이 국내외를 막론하고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김연경 외, 2020; 박수경 외 2016; 이경호, 2019; Fullan, 2006; Harris, 2003).

전남익(2010)은 근거이론 방법을 적용하여 교사학습공동체에서 교사들의 경험과 상호작용이 어떻게 교사리더십 개발로 이어지는지 과정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은 학교 현장의 소통 부재에서 오는 답답함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발적으로 학교 밖 교사학습공동체에 가입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서로 소통하고 배우며, 반성적 성찰을 통해 교사정체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수업 전문성 신장과 의사소통능력의 향상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교사리더십을 개발하게 되었다.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학습공동체 안에서 리더의 역할을 하는 교사들의 리더십을 분석하였는데, 김연경(2020)의 연구에서는 리더 교사뿐만 아니라 참여교사들의 리더로의 성장 과정과 역할을 살펴보았다. 전문적학습공동체

가 교사리더십을 어떻게 개발시키는지에 대한 연구결과로 성취할 목표를 뚜렷이 세우고, 점검하는 행위가 교사리더십 개발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또한 학교 밖 전문적학습공동체의 성공적인 경험으로 리더들의 수행동기를 불러일으키고, 참여교사들은 동료교사들과 함께 하는 과정에서 지식을 공유하며 서로 공감하고 동료애를 통해 교사리더십을 개발한다고 하였다. 또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상호신뢰와 존중, 배려의 리더십을 발휘하였다.

라. 체육교사학습공동체를 통한 교사전문성과 리더십

교사학습공동체 활동이 교사의 전문성 함양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앞서 살펴보았다. 체육교육 분야에서도 교사학습공동체 연구들을 통해 체육교사학습공동체 활동이 체육교사의 전문성 발달과 리더십 함양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해볼 수 있다.

정현수, 윤기준(2020)은 국내에서 수행된 체육교사학습공동체 관련 연구를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체육교사의 전문성 개발 양상을 이해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먼저 긍정적 유대관계 및 자발적 참여가 구성원의 소속감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전문성 개발활동의 기반으로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정기회의,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웹기반 자료저장 공간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그리고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이 있었다. 전문성 개발활동의 세부 유형은 공유, 함께 배우기, 지원, 자료개발의 과정으로 이루어졌다. 실천공동체참여를 통한 교사의 전문성 개발 효과는 수업 개선, 업무능력향상, 교직관 변화라는 세 가지 차원으로 범주화 하였다.

김기주(2021)는 인문적 체육 교사학습공동체에서 활동하는 체육교사의 운동소양 함양과정을 살펴보고, 운동소양 및 수업전문성 특징을 체육교사의 발달단계별로 탐색하여 교육적 의미를 찾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로 체육교사의 운동소양 함양은 만남, 소통, 나눔이 지속적으로 순환되는 과정에서 개인적·집단적 성찰을 바탕으로 반성적 사고와 실천의 반복을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인문적 체육 교사학습공동체 활동을 통해 체육교사에게 함양된 수업전문성은 초임기에는 인문적 체육지식의 형성, 성장기에는 인문적 체육지식의 개발 및 확산적 성찰, 성숙기 수업전문성은 인문적 체육지식의 나눔, 내면적 성찰 등의 특징이 나타났다. 따라서 인문적 체육 교사학습공동체 활동으로 체육교사들의 운동소양의 고른 함양이 가능하게 하며 전인적 체육교사의 자질을 갖출 수 있게 한다.

오승현(2014)은 교사학습공동체에 참여하는 중등학교 체육교사들의 변화와 이를 가능하게 하는 요인을 탐색하여 체육교사의 학습과 성장에 학습공동체가 가지는 성과와 의미를 살펴보았다. 연구에서 학습공동체 참여를 통해 교과 전문성에 있어서 수업의 도입, 전개, 정리와 평가 등 수업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역량이 발달됨을 보여주었다. 또한 학습공동체 참여를 통한 교직관의 변화로는 반성적 교사되기의 지속력 함양, 가르치는 일에 관한 철학적 사유의 확장, 학교 문화 변화를 위한 변혁적 리더십 획득이 있었다. 이러한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참가자 개인, 동료, 자문교수의 역할과 같은 인적요인, 학습공동체의 구조적 요인, 그리고 교육청 사업, 연수 강의 지원 등과 같은 외부 요인이 작용하고 있음을 밝혀내었다.

최덕묵, 고문수(2011)의 연구를 통해 중학교 여자 체육교사의 학습공동체 형성 경험의 의미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학습공동체는 형식적, 협력적, 반성적 단계로 형성되어 간다고 밝혔다. 형식적 학습공동체: 시스템 만들기에서는 학습공동체의 의미와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참여하면서 두려움을 느낀다고 하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협력적 학습공동체로 서로 간의 정보를 공유하는 기회를 마련해줌으로써 동반 성장이라는 긍정적인 결과를 얻게 되었다. 반성적 학습공동체 단계에서는 교수학습, 수업 전개 등에 대한 반성적 과정을 통해 체육교사로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교사학습공동체가 형성되는 과정 자체가 체육교사의 협력과 반성적 능력을 촉진시킨다고 보았다.

조기희(2019)는 체육교사학습공동체가 지속되기 위해 유의해야하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공동체에 가입하는 회원, 자발적이고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분위기, 학생

의 입장에서 수업을 고민하는 활동 등의 공동체적 차원과 개인의 전인적 성장, 반성과 교사로서의 열정, 리더십 개발과 발휘와 같은 개인적 차원의 원동력을 제시하였다. 그 중 개인적 차원에서 체육교사들은 티처런 커뮤니티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체육교과 리더십을 개발하고 발휘할 수 있게 되었다고 언급하였다. 공동체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게 될수록 책임감, 의무감, 희생, 봉사정신과 같은 마음이 더욱 커졌으며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체육교과에 있어서 리더십을 발휘하게 된다고 하였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가. 연구 패러다임 및 논리

질적 연구는 ‘연구자’와 ‘연구대상’ 사이의 부단한 대화의 과정(조용환, 1999)으로, 기존의 문화적으로 통용되는 현상과 해석들을 통찰하면서 본래적이며 발생적인 연원을 거슬러 살피고 보살피는 변증법 대화의 태도이다(조용환, 2012). 질적 연구의 기저에 깔려있는 철학은 연구 문제와 연구 질문을 어떻게 설정하고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 정보를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형성한다(Huff, 2009). Khun(1970)은 처음으로 패러다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한 시대의 과학적 가설, 이론, 믿음 등으로 정의를 내렸다. 그 후에 많은 분야의 학자들에 의해 다루어지면서 Guba 와 Lincoln(1994)에 의해 인식론, 존재론, 가치론, 방법론의 철학적 가정으로 정의되었다. 본 연구는 여성체육교사를 대상으로 그들이 형성하고 참여하는 교사학습공동체와 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체육교사 전문성 향상에 관한 경험을 탐색하고자 하기에, 질적 연구에 기반을 두었고, 사회구성주의 또는 해석주의 패러다임을 택하였다. 사회구성주의는 사람들이 살고 활동하는 세계를 이해하고자 하며, 개인들 간의 상호작용 과정을 다룬다. 또한 참여자들의 역사적·문화적 환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살고 활동하는 특정한 맥락에 집중한다. 연구자들은 그들 자신의 배경이 자신들의 해석을 형성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이를 통해 타인이 세상에 대해 갖는 의미를 이해하고자 한다(Creswell, 2013).

Creswell(2013)은 질적 연구의 접근에는 내러티브, 현상학적, 근거이론, 문화기술지, 사례연구라는 다섯 가지 접근을 제시하였다. 이 중 본 연구는 사례연구(Case Study)를 연구 접근으로 선택하였다. 사례연구는 시간 경

과에 따라 하나의 경계를 가진 체계(사례) 또는 경계를 가진 여러 체계들(사례들)을 탐색하며, 다양한 정보원들을 포함하여 상세하고 심층적인 자료를 수집하며, 사례기술, 사례주제를 보고한다. 사례연구에서 분석단위는 복합적 사례 또는 단일한 사례일 수 있다. 사례연구의 유형에는 세 가지로 단일 도구적 사례연구, 집합적 또는 복합적 사례연구, 본질적 사례연구가 있다. 단일 도구적 사례연구는 하나의 이슈나 관심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예증하기 위한 하나의 경계를 가진 체계를 선택한다. 복합적 사례연구는 하나의 이슈나 관심에 대해 복합적인 사례들을 선택하여 서로 다른 관점을 보여주기도 한다. 본질적 사례연구는 초점이 사례 그 자체에 맞춰진다. 본 연구는 다양한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의 사례를 비교하고 분석하기 위해 집합적 사례연구가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연구 절차

본 연구는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의 현황과 운영방식, 참여과정을 통한 효과와 문제점 등을 탐색하고자 2022년 1월부터 연구를 시작하였다. 이론적 탐구, 연구설계, 연구진행, 결과정리 4단계에 걸쳐 연구를 진행했다.

첫째, 이론적 탐구는 2022년 1월부터 시작하여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연구의 이론적 배경이 되는 문헌을 다양하게 살펴보며 연구 주제를 탐색하였다. 구체적으로 국내외의 교사학습공동체와 관련한 문헌들을 살펴보았다. 또한 지속적으로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에 꾸준히 참여해왔다.

둘째, 연구 설계 단계는 2022년 3월부터 4월까지 진행되었다. 연구 주제와 관련하여 다양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며 연구 문제와 연구목적을 구체화했다.

셋째, 연구 진행 단계에는 2022년 5월부터 9월까지 걸쳐 자료 수집과 분석의 절차가 이루어졌다.

넷째, 결과정리 단계에서는 2022년 9월부터 12월까지 이루어졌으며 연구진행단계가 끝난 이후부터 자료에 대한 심층적인 해석과 결론을 도출하였다.

표 7. 연구의 절차

연구단계 \ 연구일정		2022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론적 탐구	문헌의 이론적 고찰												
	주제설정												
	선행 연구 분석												
연구 설계	목적과 문제 구체화												
	연구 참여자 선정												
	질문개발												
연구 진행	자료 수집												
	자료 분석												
결과 정리	심층적 자료 해석												
	결론 도출												

2. 연구 참여자

가.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

각 공동체마다 가지고 있는 특징과 성격이 다양하기에 어떠한 교사학습공동체를 선정하여 탐색할 것인지가 연구 설계의 중요한 부분이다. 본 연구에는 유목적적 표집방법(Patton, 2002)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유목적적 표집 방법은 연구자가 연구 목적에 알맞으면서 모집단을 대표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대표적 사례들을 연구자가 의도적으로 선택하는 방법이다. 연구 참여 교사학습공동체의 형성 및 운영, 특징 및 효과, 운영조건 등 총체적인 부분을 살펴보고자 다음의 목적에 따라 사전에 설정한 기준들을 토대로 선정하였다.

첫째, 성별에 따른 기준이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체육교사의 교사학습공동체 활동에 대한 총체적인 양상 및 특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교사학습공동체는 여성체육교사들의 필요와 목적에 의해 생성되었으며, 구성

원이 여성교원으로 이루어져야한다.

둘째, 교사학습공동체는 학교 밖에서 활동하는 공동체로 제한한다. 교사학습공동체는 교사뿐만 아니라 교육행정가, 장학사, 관리자, 학부모, 학생 등을 포함할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교사들의 자발성과 자율성을 매우 중요한 핵심 요소임을 밝히고(김민조 외, 2016; 이유나 외, 2016) 탑다운 방식, 강제성을 띈 교사 연수 등과 같이 자발성, 자율성이 훼손되었을 때는 교사학습공동체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교사학습공동체를 실천공동체를 이론적 근간으로 삼으려고 한다. 따라서 호혜적 관여, 공동 업무, 공동 자산의 세 가지 실천공동체의 요소로 구성된 교사학습공동체면 모두 연구 대상으로 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의 사실적 모습에 주목하고, 여러 형태를 관찰하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다양한 양상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실기활동 위주이거나 친목 도모의 성격이 강한 교사학습공동체도 모두 포함하여 다양한 환경 속에서 여성교사학습공동체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앞으로 활성화되기 위한 방안을 탐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1) 함께해

함께해 공동체의 시작은 경기도 여성체육교사들의 농구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농구선수 출신 여성체육교사가 2017년에 시작한 모임이다. ‘손잡고 정년까지’ 라는 모토를 가지고 있으며, 농구 기술 트레이닝, 수업 연구, 여성체육교사들의 소통의 장이 되고자 한다. 현재 회원수는 62명이며, 자체적으로 회비를 모아 공동체를 운영하고 있다.

2) 넘버원

넘버원 공동체는 제주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이며 교과연구와 친목을 위해 이루어지고 있다. 임원진을 구성하여 정기총회 및 회의를 통해 회칙을 정하였다. 현재 회원수는 29명이며, 자체적으로 회비를 모아 공동체를 운영하고 있다.

3) 에이스

울산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이다. 2020년에 교과연구회로 등록하여 연구비 지원을 받고 있으며, 실기자율연수, 여학생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활성화, 스포츠 체험활동 기회 제공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 회원수는 30명이다.

4) 원더풀

2021년에 결성되었으며, 실기 종목 연수를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충북지역의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이다. 축구 실기연수를 시작으로 올해 농구연수를 추가하였으며, 매주 모여 축구, 농구 기능연습과 경기를 진행하고 있다.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청의 지원을 받고자 하며 현재 회원수는 20명이다.

5) 초신성

초신성 공동체는 2022년 1월 새롭게 생성되었으며 6명의 리더가 이끌어가고 회원수는 150명으로 구성되어있다. 실기연수, 교원모임, 세미나 등 온, 오프라인에서 정기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 초신성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공동체 활동을 통해 여성 교원의 체육교육 및 체육교사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하며, 여성 체육교원들 간의 네트워크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는 사회적 영향력을 확산시켜 여성교원들이 학교 현장에서 당당한 리더로서 활동하기 위함이다.

6) 나이스

나이스 공동체는 2022년 2월에 발대식을 가졌으며 주축으로 하는 1명의 여성 체육교사와 3명의 리더 교사들이 있다. 나이스 공동체의 목표는 여성 체육교사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서로 응원하고 공감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함이다. 온·오프라인에서 자율연수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회원수는 50명이다.

표 8. 연구 참여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 정보

공동체	운영기간	지역	구성원
함께해	2017년	경기	초,중등 체육교사 (총 62명)
넘버원	2017년	제주	중등 체육교사 (총 29명)
에이스	2020년	울산	중등 체육교사 (총 30명)
원더풀	2021년	충북	중등 체육교사 (총 20명)
초신성	2022년	전국 (수도권)	초,중등 체육교사 교육공무원 (총150명)
나이스	2022년	전국 (경북)	초,중등 체육교사 (총50명)

나. 연구 참여 교사

연구 참여 교사는 현재 체육수업 전문성 증진을 위한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에 소속된 교사 중에서 연구 참여에 동의한 12명을 선정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자는 유목적적 표집방법으로 선정된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에서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으며, 공동체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는 직책을 맡은 교사와 주기적, 적극적으로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일반교사가 있다. 두 가지 유형으로 연구 참여자를 구분하여 선정하는 이유는 공동체에서 맡은 역할에 따라 몰입의 정도, 활동 내용, 경험의 인식 등이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세부적으로 5개월 이상 교사학습공동체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공동체 활동에 참석률이 50% 이상이라는 두 가지 조건이 더 포함되었다. 이는 연구문제 중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의 참여로 인한 효과와 문제점, 성공적인 운영 조건을 알아보기 위함이다.

표 9. 연구 참여 교사 정보

공동체	순	성명	나이	교육경력	학교급	공동체 내 역할
함께해	1	조행복	46	11년	중학교	회장
	2	이의리	42	8년	고등학교	회원
넘버원	3	한미소	28	5년	중학교	총무
	4	이명랑	26	2년	중학교	회원
에이스	5	최책임	39	10년	중학교	부회장
	6	김성실	30	3년	중학교	총무
원더풀	7	이열정	34	6년	중학교	회장
	8	정도전	40	4년	중학교	회원
초신성	9	홍사랑	31	4년	중학교	회장
	10	전미래	31	7년	고등학교	회장
나이스	11	하인성	44	21년	고등학교	회장
	12	정솔선	32	3년	고등학교	이사

3. 자료 수집

사례연구는 사례에 대한 심층묘사를 위해 광범위한 자료수집 방법을 활용할 것이 제안된다(Creswell, 2013). Yin(2009)은 기록물, 면접, 직접관찰, 참여관찰, 물리적 인공물 등 여섯 가지 형태의 자료수집의 방법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여성체육교사공동체의 형성, 운영 과정을 탐색하기 위해 가능한 여러 종류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를 위해 사전 개방형 설문, 심층면담, 포커스 그룹면담, 관찰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했다.

가. 사전 개방형 설문

연구의 자료수집과정의 시작으로, 연구 참여자들을 심층면담하기 전에 사전 개방형 설문을 실시했다. 사전 개방형 설문을 통해 연구 참여자들은 연구 주제에 대한 전반적이고 개괄적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전 개방형 설문은 본 연구의 취지에 맞으면서 연구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고,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었다.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에 대한 개괄적인 이해와 사전 조사를 통해 과거 교사학습공동체 참여 경험을 솔직하게 제공하였기에 양질의 면담과정을 구성해낼 수 있었다. 또한 현재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 참여 경험과 다양한 전문성 개발 활동들과 비교해볼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은 자료수집의 중요한 첫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온라인으로 실시했으며, 설문에 담긴 질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10. 사전 개방형 설문의 주요 질문 내용

질문 내용
1. 개인정보 관련 질문 - 경력, 학교급, 담당업무 등 2. 자신이 생각하는 체육교과와 체육교사의 자질, 전문성 3. 교직 생활동안 경험한 체육 전문성 개발활동 - 이러한 경험의 효과, 수업에 활용한 방법, 사례 - 타 교사학습공동체 참여경험 4. 교사학습공동체의 장점과 단점 5.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 참여하게 된 동기 6.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에서 하는 활동 - 공동체 내에서 자신의 역할 7.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 참여 기간, 횟수 8.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에서 배우고 싶은 것 - 운영방안 제안

나. 개별 심층 면담

면담은 질적 연구의 대표적인 연구방법으로 개인 혹은 다수의 연구 참여자 간에 대화의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직접적으로 의사교환이 이루어지며, 연구자의 역량에 따라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다. 관찰이 어려운 상황이나 연구 참여자의 내적 세계를 이해하고 발견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연구방법이다(김영천, 2016).

본 연구에서는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체육교사들을 대상으로 활동을 통해 체육교사 전문성과 리더십 개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파악하고자 사용하였다. 사전에 면담 연구 참여자와의 공감대와 라포 형성을 위해 개방적이고 존중하는 태도를 지니고 면접 장소와 시간 및 형식은 연구 참여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개별 심층면담은 총 1회(필요한 경우 2회 이상), 최소 1시간의 범위에서 진행되었다. 면담 질문지는 사전에 제공하여 연구 참여자들이 미리 주제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였고, 면담 내용은 연구 참여자들의 동의를 구한 후 녹음했다.

면담 질문의 경우에는 반구조화된 면담 가이드(Patton, 2002)에 의해 연구자가 선행 연구 및 문헌분석을 통해 구조화한 질문들로 구성하고 유연하게 질문을 추가적으로 하여 면담을 진행하였다. 사전에 준비된 면담 가이드를 통해 면담이 연구 질문과 관계없는 대화로 흘러가는 것을 예방할 수 있고, 연구 참여자도 면담 질문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다(김영천, 2016). 면담의 주요 내용은 다음<표 11>과 같다.

표 11. 개별 심층 면담의 주요 질문 내용

질문 내용	
현황 운영방식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에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나요? -어떻게 참여하고 있나요? -타 체육교사학습공동체 참여 경험이 있다면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 활동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떠한가요? 그러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공동체 활동에 만족, 불만족 하는 점은 무엇인가요? -공동체 활동에 있어서 경험하는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참여효과 & 문제점	-공동체 참여 이후 본인에게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인가요? ·수업, 학생지도, 행정업무 ·지식, 기능, 태도의 측면에서 ·개인차원, 조직차원, 사회차원에서 -공동체 활동은 교사로서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까요? -이러한 변화가 본인 말고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시나요? - 체육수업을 실천하는데 어려움이 무엇이었고, 그 어려움 해결에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예를 들어 말씀해주세요 -공동체 활동을 통해 가장 도움이 되었던 부분은 무엇인가요? -교사연수, 학교기반 교사학습공동체, 자율연수 등 교사전문성 향상을 위한 다른 방법들과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성공적 운영방안 조건	-운영방안 제안할 점 -다른 여성체육교사에게 추천해주시겠습니까? 어떠한 점을 토대로 추천하시겠습니까?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가 다른 교사학습공동체와 다르게 차별화해야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다. 포커스 그룹 면담

포커스 그룹 면담에 대해 Morgan(1996)은 연구자가 특정 연구 주제에 대해 그 집단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해 소집단을 구성하여 면담을 하는 방법이라고 하였다. 포커스 그룹 면담을 구성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연구자의 능력을 전제로 하여 제한된 시간 내에 주제에 대해 많은 상호작용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특히 주제에 대한 구성원 간의 집중적 토의로 연구자는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집약적으로 얻을 수 있게 된다. 연구 참여자들의 다양한 관점을 들어 볼 수 있으며 개별면담에서 말하기 어려운 주제에 대해서 접근해볼 수 있는 방법이다. 하지만 연구자가 아닌 타인에게도 자신의 개인적 생각, 경험 등을 말해야하므로 솔직한 이야기를 공유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였다(김영천, 2016).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참가자들을 동질적으로 구성하거나, 서로에 대해 공통된 특징을 인식하도록 유도해야 한다(Morgan & Krueger, 1998).

본 연구에서는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의 효과와 문제점, 성공적 운영방안의 조건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서로 다른 공동체 내에서 핵심역할을 수행하는 교사들을 2~3명 대상으로 실행하고, 또한 같은 공동체 내에 속한 구성원들을 대상으로도 포커스 그룹 면담을 진행했다.

표 12. 포커스 그룹 면담의 주요 질문 내용

질문 내용
-선생님께서 참여하시는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 목적, 프로그램 내용, 모임 방식 등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를 형성, 운영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에서 무엇이 성공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다른 공동체와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와의 차별점은 무엇인가요? -운영하면서 어려운 점 / 방해요소 / 운영방안 제안할 점

라. 관찰

Fetterman(1991)에 따르면 참여관찰은 관찰가로서의 전문적인 거리를 유지하면서 연구 대상인 참여자의 삶에 참여하는 현장 활동을 의미한다. 연구자는 참여관찰방법을 통해 연구 현장에 들어가 장기간의 참여관찰과 접촉을 하면서 그들의 다양한 생활양식과 의식, 감정, 신념의 특성을 밝힐 수 있는 자료를 획득하게 된다. 따라서 참여관찰은 연구 상황을 이해하는데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며 연구 참여자들조차 알지 못하고 있는 내용 또는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내용을 밝히는데 효과적이다.

연구자는 자료수집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기 전부터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에 참여하면서 관찰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관찰자로서, 참여자로서의 참여관찰을 각각의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에서 실시하는 비정기적 연수, 정기적 활동 등에 방문하여 수행하고 영상, 사진 등을 촬영하고 관찰일지를 작성하였다. 관찰방법으로는 개방적인 관찰방법(김영천, 2016)을 사용하여 연구 현장에서 일어난 사건과 현상을 빠짐없이 세부적으로 기록하고 관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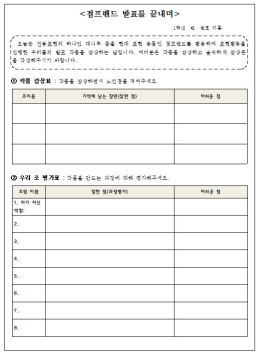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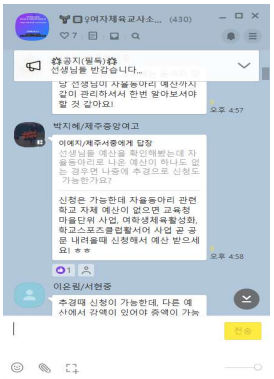
표 13. 관찰기록지 예시

시간	관찰내용	관찰자 잠정 분석
22년 *월*일	< 댄스연수 관찰일지 > 최교사가 준비물을 들고 교실로 온다. 교실은 미리 수업세팅이 완료되어 있었다. 교사가 시범을 보이고 학생들이 그 뒤에 이어서 따라하는 형태로 수업 진행. 선생님이 학생 한명씩 피드백을 주며 개인지도를 함. 패를 구성하여 학생들끼리 연습시간과 동작 구성에 대한 토의 시간 제공(20분)	-철저한 사전 수업준비 - 세심한 지도 -의견공유, 라포 형성가능

마. 현지문서

질적 연구에 있어서 연구자의 공간적, 시간적 한계는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한계를 가져오게 된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문서 분석이다. 연구자가 획득하게 된 문서는 연구 참여자의 삶을 담고 있고 연구 참여자 집단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김영천, 2016). 본 연구에서는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 활동에 참여한 교사들 간에 내부적으로 생성하고 온·오프라인에서 공유한 문서로 교수·학습 과정안, 수업자료, 교사의 수업일지, 온라인 수업자료 (Youtube 및 다양한 SNS 등), 동료교사와 나눈 메시지 등을 수집하고자 했다.

표 14. 현지문서의 예시

수업자료 및 기록물	교사학습공동체 연수 자료
	
온라인자료	**온라인 메시지**
	

4. 자료 분석 및 해석

Wolcott(1994)은 질적 자료 분석 절차는 기술, 분석, 해석의 세 영역으로 나누어지며 질적 자료를 기준으로 그 자료를 기술하는 차원, 분석하는 차원, 해석하는 차원의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첫째, 기술은 연구자가 연구 과정에서 본 것을 독자가 보게(see) 하는 것이다(Wolcott, 1994). 기술은 질적 연구 자료 분석 과정에서 첫 번째 단계이며 수집한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이다. 기술과정에는 의도나 맥락과 관계없이 기술하는 표층기술과 경험을 맥락, 의도, 의미와 함께 서술하는 심층기술이 해당된다(Denzin, 1994). 본 연구에서는 사전 개방형 설문, 개별 심층면담, 포커스 그룹 면담, 관찰, 현지문서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개별 심층면담의 경우 연구 참여자의 행동, 표정, 분위기 등을 기록하였으며, 전사할 때에도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하여 작성하였다. 관찰의 경우 최대한 현장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고자 중요한 부분을 촬영 및 메모했다.

둘째, 분석은 연구자가 안 것을 독자가 알게(know) 하는 과정이다. 기술과정을 통해 체계적으로 정리된 자료들을 통해 연구 목적, 연구 문제에 맞게 적절한 재배치를 통해 연구자의 논리를 뒷받침하는 과정이다(Walcott, 1994).

셋째, 해석은 연구자가 이해한 방식으로 독자가 이해하게(understand) 하는 것이다(Walcott, 1994). 기술과 분석이 자료를 변환하는 과정이라면 해석은 자료에 담겨있는 의미를 파악하는 '능가'하는 과정이다. 해석의 단계에서는 연구자의 주관적 이해와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으므로 해석의 방종을 경계하고, 자료를 토대로 부단한 내면적 성찰이 연구의 전 과정에서 필요하다.

5. 연구의 진실성 및 윤리

가. 연구의 진실성

질적 연구에서 타당도 작업은 연구자가 자신의 연구 작업과 결론이 과연 연구하려고 했던 주제를 잘 연구했는지를 평가하는 과정으로서 좋은 질적 연구를 위해서는 연구자가 적용해야하는 필수적인 작업 과정이다. Lincoln과 Guba(1985)의 신뢰성 준거는 질적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 결과가 타당하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 최소한으로 만족시켜야 하는 연구 활동의 예를 처음으로 이론화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진실성을 높이는 방법 중 '삼각검증법', '구성원 간 검토', '동료 간 협의'의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하고자 했다.

먼저, 삼각검증법(Triangulation)은 다양한 연구방법을 통해 수집한 여러 종류의 자료를 통합하는 방법이다(김영천, 2006). 삼각검증법이 갖는 의미는 특정한 한 가지 방법에 의존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방법이나 자료에 의존했을 때 그 연구 대상에 대한 탐색과 이해가 좀 더 정확할 수 있다는데 있다(Mathison, 1988). 본 연구에서는 사전 개방형 설문, 개인 심층면담, 포커스 그룹 면담, 현지문서, 온라인 자료 등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다각도로 분석하고 비교하면서 신뢰성 있고 타당한 결과를 도출하고자 노력하였다.

두 번째, 구성원 간 검토(Member Check)는 연구자가 도출한 임의적 분석과 결론이 과연 맞는지를 연구 참여자에게 확인하는 절차이다. 연구 참여자들이 연구자의 잠정적인 결론이나 분석을 호의적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연구 결과를 신뢰롭다고 판단할 수 있다(김영천, 2006).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자료 수집을 통해 얻은 자료를 분석 및 해석하여 도출한 결과를 연구 참여자와 공유하여 확인을 하는 과정을 거치며 연구자의 주관성이 개입되는 부분을 최소화하고자 했다.

셋째, 동료 간 협의(Peer Debriefing)는 동료를 연구 과정에 참여시켜서 1인 연구자가 범할 수 있는 방법적, 해석적, 절차적 오류를 줄이려고

노력하는 것을 뜻한다. 외부 연구자의 점검을 받는 절차로서, 그 연구 배경에 대해 잘 알거나 깊은 지식을 소유한 내부자들을 연구에 초청하여 자료에 대한 연구자의 해석이 정확했는지 평가를 부탁하는 방법이다(김영천, 2006). 본 연구에서는 스포츠교육학에 대한 안목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및 동료 연구자들을 선정하여 연구 기간 동안 동료 간 협의를 지속적으로 실시했다.

표 15. 전문가 그룹 정보

성명	성별	나이	직위	학력
최심동	남	58	교수	체육학 박사
이정의	여	51	교수	체육학 박사

나. 연구의 윤리

기관생명윤리위원회는 인간 또는 인체 유래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나 배아 또는 유전자 등을 취급하는 생명 윤리 및 안전의 확보가 필요한 기관에서 연구 계획서 심의 및 수행 중 연구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조사, 감독 등을 통한 연구자 및 연구 대상자 등을 적절히 보호할 수 있도록 설치된 자율적, 독립적 윤리기구이다. IRB는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 대상자의 안전, 권리, 복지를 해당 연구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일차적으로 연구 참여자의 보호와 권익을 우선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김영천, 2006). 이에 본 연구자는 2021년 12월 4일 연구윤리교육 프로그램인 CITI교육(Collaborative Institutional Training Initiative Program)의 Social, Behavioral & Education 과정을 이수하였다. 연구를 수행하기에 앞서 연구자가 속한 대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에 연구계획 심의를 의뢰하여 2022년 7월8일자로 연구 계획 심의를 승인 받았다. 이후 IRB 승인 문서에 의거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연구 참여자에게 동의를 얻은 후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또한 모든 연구 과정에서 윤리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 윤리를 준수하며 연구에 임하였다.

Ⅳ. 연구 결과 및 논의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전국에 분포하는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의 다양한 운영방법과 특징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의 현황과 운영방식에 대해 알아보았다(결과 1). 각 공동체의 세부 사항들을 실천공동체(Community of Practice)의 공동업무, 공동자산, 호혜적 관여 개념을 통해 분석하고자 했다. 다음으로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 참여의 효과와 어려움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결과 2). 마지막으로,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가 교사전문성과 리더십 개발의 허브 역할을 위한 조건은 무엇인지 교사 개인적 차원부터 공동체 차원, 사회적 차원까지 총체적인 영역에 걸쳐 파악하였다(결과 3).

1.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 현황과 운영방식

본 연구의 대상이 된 6개의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는 모두 여성체육교사들이 각자의 요구와 필요성에 의해 자발적으로 만든 공동체들이다. 각 공동체마다 자신들의 목표를 가지고 다양한 형태와 내용으로 운영되어지고 있었다.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는 실천공동체로서 공동업무, 상호참여, 공동자산으로 세 가지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먼저 공동업무란, 실천공동체 참여자들의 공동의 관심사, 탐구주제이고, 상호참여는 서로 다른 구성원들이 도움을 주고받는 호혜의 의미이며, 공유자산은 공동체 안에서 활동을 통해 축적되어 나온 결과물을 뜻한다(Wenger, 1998).

본 장에서는 공동체마다의 동기 및 목적, 운영 방식 및 활동내용을 실천공동체의 특성을 토대로 어떻게 형성되고 운영되어왔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가. 함께해 공동체

1) 동기 및 목적 : 손잡고 정년까지 함께 걸어가자

‘함께해 공동체’는 2017년에 조직된 여성체육교사 농구 동아리이다. 동아리를 만든 리더 교사는 농구 선수출신 여성체육교사로 기존에 있던 체육교과 연구회 활동, 교사 농구동아리 활동에 꾸준히 참여하고 있었다. 또한 체육교사 연수에서 본인만의 농구 지도법, 수업 노하우 등을 나누는 활동에 참여해왔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재능 나눔의 일환으로 농구를 좋아하거나, 실기능력 향상을 원하는 여성체육교사들을 대상으로 농구 모임을 추진하였는데, 이것이 이어져 5년째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공동체이다. ‘함께해 공동체’는 처음에 단순히 농구 기능을 배우고, 농구 경기를 함께하는 동아리 개념이었다. 리더 교사와의 심층면담, 현지문서를 통해 함께해 공동체의 동기 및 목적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함께해 공동체’ 모바일 메신저 내용에는 여교사의 농구 기능 향상과 수업 스킬 공유 등 친목에 목적이 있음을 밝혔다.

3[redacted] 활동 의사 밝히기

총무 : [redacted]의 계좌에 회비를 납부하실 경우 2022학년도 활동 의사를 밝힌 것으로 인정하겠습니다. 다만 회비를 납부하시는 분은 제가 보내드리는 구글 스프레드 시트에 학교, 이름, 희망 백넘버, 유니폼 희망 여부, 기존 백넘버, 단체티 희망 여부를 체크해주세요.

4. 단체티

유니폼을 한 벌 더 맞추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좀 더 팀이 자리 잡고 맞추자는 의견으로 수렴되어 그 대신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단체티를 맞추고자 합니다.

5.[redacted] 목적

여 교사의 농구 기능 향상과 농구 수업 스킬 공유 등 친목이 제 1차 목적입니다. 농구를 못한다고, 자신이 없다고 두려워 마시고 언제든 참여해주세요. 그렇게 운영하고, 기량이 향상되면 향상되는대로 희망자들이 대회, 경기 등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그림 3. ‘함께해 공동체’ 소개 내용

단순히 처음에는 농구 기능을 서로 나누겠다는 거였고, 지금은 그걸 좀 넘어섰어. 처음에는 내가 갖고 있던 농구 재능을 함께 나누고 이제 같이 지내자라는 느낌이 제일 컸는데 지금은 농구는 이제 두 번째가 되고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향성이 되게 큰 거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향성이 크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서로 익혀가는 거, 이제는 농구 이외의 것들이 더 많아지는거지.

(조행복 교사, 심층면담)

또한 회원으로 참여하는 이의리 교사와의 면담에서도 '함께해 공동체' 참여 동기를 농구 실기 능력 향상과 농구 경기 경험에 대한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답하였다. 이의리 교사는 어렸을 적 농구에 대한 단편적인 기술 연습과 게임에 참여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던 환경으로 인해 농구에 대한 총체적인 경험을 할 수 없었다. 또한 다른 체육교사연수, 교사연구회 등에서 주최하는 연수에 참여했을 때도 본인이 희망하는 부분을 완벽하게 얻어가기가 어려웠다고 하였다. 따라서 그동안 해결할 수 없었던 부분을 여성체육교사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해소해보고자 하였다.

일단 개인적으로 농구를 좋아하고, 일회성의 연수가 아니고 지속적인 동아리 개념이여서 참여하고 싶었던 차에 마침 좋은 기회가 있어서 참여했어.
지금 세대는 모르겠어. 내가 자라온 세대는 학창시절 중고등학교 때 학교에서도 축구, 농구를 배운 적이 없고 대학교에 가서도 동아리는 있지만 여학생들은 매니저를 하거나 여자 인원 자체가 소수니까 경기를 해볼 경험이 없었어.
그래서 **당연히 남자들보다 경기에 대한 기능과 지식 모든 게 떨어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는 그걸 채워 줄 어떤 뭔가가 필요해.**

(이의리 교사, 심층면담)

처음에는 농구라는 종목에 대한 기술 향상의 목표가 컸다면, 점점 활동을 통해 그 외의 요소들이 강조가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리더교사가 희망하고 바라는 공동체의 목표는 '함께해 공동체'가 농구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켜줄 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기를 통해 멘토 역할이 되어주기도 하고, 공동체 원들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장이 되는 것이다. 또한 회원들의 공동체에 대해 기대하는 부분도 점차 확장되어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처음에는 단순히 농구 실기를 바라고 왔다가 실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수학습 정보, 사람들과의 교류를 접하게 되었다.

이해관계보다는 이제 정신적인 교감이 더 커졌으니까, **나는 함께 발전하는 공동체로 가는 게 목표야.** 이제 연습경기도 다니면서, 어린 체육하는 사람들한테 멘토 역할도 해주고 본보기도 되어주고, 농구를 잘하고 싶어서 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농구를 잘하는 게 목표가 될 수 있어. 그리고 재밌어야해. 함께 웃을 수 있는 모임이 됐으면 좋겠어.

(조행복 교사, 심층면담)

교과수업에 관한 거 플러스, 교과 외적인거, 교과에 관해 내외적으로 정보를 얻고 싶고, 그 다음 추가적으로 인간적으로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을 알고 싶은 기대가 있죠.

(이의리 교사, 심층면담)

2) 운영방식 및 활동내용 : 열려있는, 재미있는, 전문적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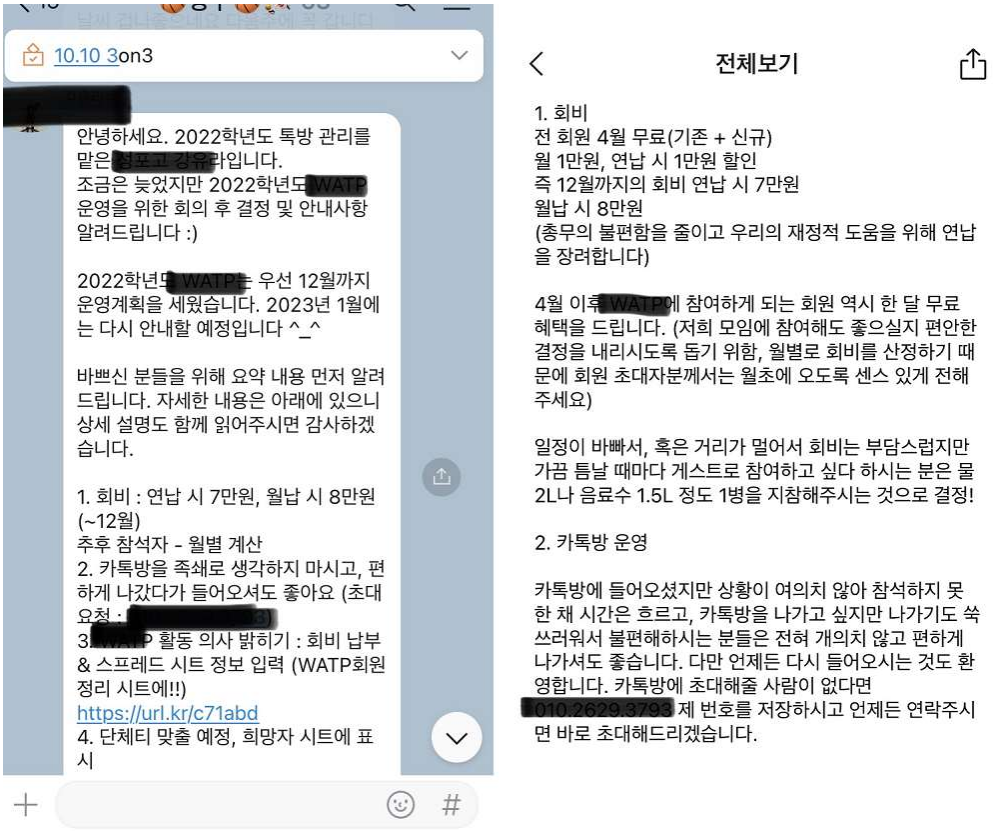


그림 4. '함께해 공동체' 안내사항

‘함께해 공동체’는 경기도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으며 현재 회원 수는 62명이다. 주 활동은 경기도에서 하고 있지만 타 지역의 여성체육교사도 가입과 참여가 가능하며 운영방식은 회원들의 의견 수렴 후 운영진들의 회의를 통해서 정해지게 된다. <그림4>처럼 공동체의 회칙은 회비와 관련해서만 있었으며 오프라인 메신저를 통해 유니폼 구입, 활동 참여 안내, 각종 공지사항이 회원들에게 안내되었다. 공동체는 회비로 운영되어지고 있으며, 주로 활동할 때 간식비용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다. 회비와 관련하여 새롭게 참여하는 회원에게 한 달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한 달 뒤에도 지속적으로 참여를 원할 때 회비를 내고 참여하도록 하였다. 이처럼 회원 가입과 활동 참여에 대해서 열려있는 유동적인 태도를 보여주었다.

> **운영방침은 누구나 들어올 수 있고 언제나 다시 올 수 있고 이런 느낌이 제일 커.** 그들이 언제 다시 돌아올지 모르는데 새로 뭘 만들어서 함께 한다는 거는 나는 맞지 않은 것 같다고 얘기하거든. 정말 용기 못 내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고, 우리가 배려라기보다는 좀 기다리자라는 부분이 있는거고
>
> (조행복 교사, 심층면담)

‘함께해 공동체’가 실제 운영한 활동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하면 ‘정기운동’, ‘경기 운영과 참여’, ‘친목활동 및 비공식적 대화’이다. 먼저 주된 활동은 매주 화요일 방과 후 저녁시간에 3시간씩 정기운동을 통해 농구의 기능적인 전문성을 쌓는 것이다. 장소는 활동하는 회원이 근무하는 학교 체육관 시설을 대여하였으며, 조행복 교사의 재능기부로 농구 기능 연습 및 게임 활동이 이루어진다. 정기운동을 하는 날에는 미리 사전조사를 통해 참여인원을 파악하고 준비운동, 농구 기능 연습, 팀을 편성하여 농구 경기를 하는 구조로 진행되어진다.

> 조행복 언니 같은 경우는 선수출신이기 때문에 농구에 관해 굉장히 많은 준비운동과 리드업 개임이나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시거든요. 그런 거 다 알려주시고, 레이업 슛 하는거, 자유투 쏘는거, 이런 거, 전술할 때 탑, 윙, 코너 위치 같은 거 **우리가 연습하고 배운 그대로 학교 수업 때 적용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
> (이의리 교사, 심층면담)

또한 운동을 할 때 기능 수준이 낮아 실수를 하거나, 경기에서 잘 하지 못하여도 서로 이해해주고 잘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응원해주는 분위기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 연구자: 전반적으로 공동체 활동할 때 분위기는 어떠세요?
> 이의리: 다른 농구동아리는 성과에서 나오는 거에 대한 성취감 그런 것도 목적으로 나오는 사람이 많을 것 같은데, 이제 우리는 그런 것보다는 대부분 나처럼 조금 더 배우고 싶고 선생님들 많이 교류하고 싶고 그런 목적으로 나오잖아. 그래서 **선생님들이 다 일단 더 수용적이고, 못해도 괜찮아, 나도 못해, 이런 분위기잖아. 좀 열려 있는 분위기**
>
> (이의리 교사, 심층면담)

두 번째 주요 활동은 '함께해 공동체'에서 자체적으로 친선경기를 주최하거나, 농구 대회에 직접 참가하는 것이다. 공동체 참여 회원들 간의 친목을 다지기 위해 배드민턴, 배구경기 등 자체적으로 체육대회를 개최하였다. 농구 외에 다른 종목을 함께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낸 후에 회식도 하며 회원들 간의 친밀감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또한 다른 농구 팀들과 친선경기를 하였는데, 서울 지역에서 여성체육교사 농구팀이 새롭게 생겨나게 되면서 여성체육교사들끼리 처음으로 농구 경기를 진행해보는 기회를 가졌다. 이를 통해 농구 경기 문화를 체험해볼 수 있게 되었으며, 앞으로 아마추어 농구 대회에 관심이 생기고 참여하고자 하는 목표를 갖게 되었다. 학교 스포츠클럽 여학생 농구팀을 대상으로 친선경기를 갖기도 하였는데, 경기 후 학생들이 선생님의 열정적인 모습에 감명을 받았으며, 농구라는 매개를 통해 서로 끈끈한 관계가 되었음을 조행복 교사의 면담을 통해 알 수 있다.

> 경기가 끝나고 나서의 그들의 반응이 되게 뜨거웠어. 선생님 너무 멋져요서부터 시작되는 거야. 그리고 막 사진을 찍을 때 애들이 안기는 거지. 되게 우리는 일면식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잖아 근데 동질감을 느끼는 거야 그 자체로.
> 애들이 경기할 때 넘어지면 같이 일으켜주고 같이 웃어주고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았는데, 경기 끝나고 이 아이들의 반응을 보고 이걸 계속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
>
> (조행복 교사, 심층면담)

그림 5. ‘함께해 공동체’ 친선경기 모습

세 번째 활동 내용으로는 친목활동 및 학교수업, 업무와 관련해 비공식적인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정기 운동 전, 후로 간단하게 서로의 근황과 학교생활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학교생활의 어려움, 고민이 있을 경우 구성원들의 나이와 경력이 다양하여 스스럼없이 선배교사가 먼저 도움을 주기도 하고, 서로 위로하고 공감하는 시간도 갖게 된다.

> 모이면 할 말이 너무 많고, 화요일만 기다린다는 친구도 많고.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어. 농**구가 너무 좋아서 오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이제 그런 농구를 매개로 농구를 배우는 건 기본인데 와서 즐거우니까 할 말이 너무 많은 거지**.
> 그래서 우리 팀은 권위가 없는 것 같아. 하다못해 ㅇㅇ언니도 나이가 50이 넘었어도 우리한테 반말을 하지 않아. 지금까지 누구 쌤으로 부르고 그러지.
> **권위가 없는 팀이니까 전반적으로 즐겁지. 선배 교사가 먼저 손을 내민 게 아닐까 싶어**. 선배 교사가 먼저 배려하고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그렇지 않았나 싶어.
> (조행복 교사, 심층면담)

또한 ‘함께해 공동체’를 처음부터 구성하고 농구 지도를 위해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헌신하며 봉사하는 리더교사를 위해 스승의 날 감사 파티를 열기도 하였다. 이처럼 구성원들의 경조사를 함께하기도 하며 친목을 위한 활동도 이루어지고 있었다.

> 우리 활동에서 나 그때 스승의 날, 정말 깜짝 놀랐거든. 그렇게까지 배려를 해줄 줄 몰랐고 생각도 정말 일도 못했고 너무 감사했어.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 모임을 너무 좋아하고 있구나라는 걸 내가 느꼈거든. 내 스스로가 나는 별로 한 게 없는데
>
> (조행복 교사, 심층면담)

Wenger(2002)는 친교를 위한 공간과 적절한 자극을 조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성공적인 실천공동체의 운영조건이라고 제시하였다. 또한 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호혜적 관계는 다른 어떤 요소보다도 개인들을 묶어주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처럼 '함께해 공동체' 구성원들의 호혜적인 관계가 형성되면서 공동체를 지속, 발전시킬 수 있는 힘이 생겨났다고 볼 수 있다.

나. 넘버원 공동체

1) 동기 및 목적: 체육여교사, 여학생 체육활성화를 위하여

'넘버원 공동체'는 2017년에 제주지역에 조직된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이다. 처음에는 제주지역에 여자체육교사 수가 적어서 소수의 여성체육교사들끼리 친목모임으로 시작되었다고 한다. 점차 체계적인 형태를 갖추게 되어 현재 29명의 회원들로 활발히 운영되어지고 있는 공동체이다. 현지문서를 통해 공동체의 목적, 운영방안, 활동내용을 확인해볼 수 있다. '넘버원 공동체'는 스포츠 교류를 통하여 여성체육교사로서의 전문성 신장과 친목을 도모하고, 여학생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에 목적을 두고 있다.

> 여자 수가 너무 적다보니까 뭔가 항상 어디 연수를 가도 여자 혼자면 갈 수가 없고 육지로 가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의지할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진짜 여자끼리 딱딱 뭉쳐서 뭔가 그리고 남자와 여자는 결혼했을 때 육아를 할 때 이런 것도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이제 여자끼리 잘 뭉쳐보자라는 취지로 처음에 한번 위에 계신 분들이 만들어보자 이렇게 해서 모임 식으로 시작을 하셨어요.
>
> (한미소 교사, 심층면담)

이명랑 교사는 신규교사 직무연수에서 ‘넘버원 공동체’를 소개를 받아 참여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명랑 교사는 수업수행능력을 체육교사의 중요한 전문성이라고 보았고 이를 위해 다양한 교사학습공동체에 참여하여 활동하였다. 연수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불편함으로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 참여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넘버원 공동체’를 알게 된 후 가입을 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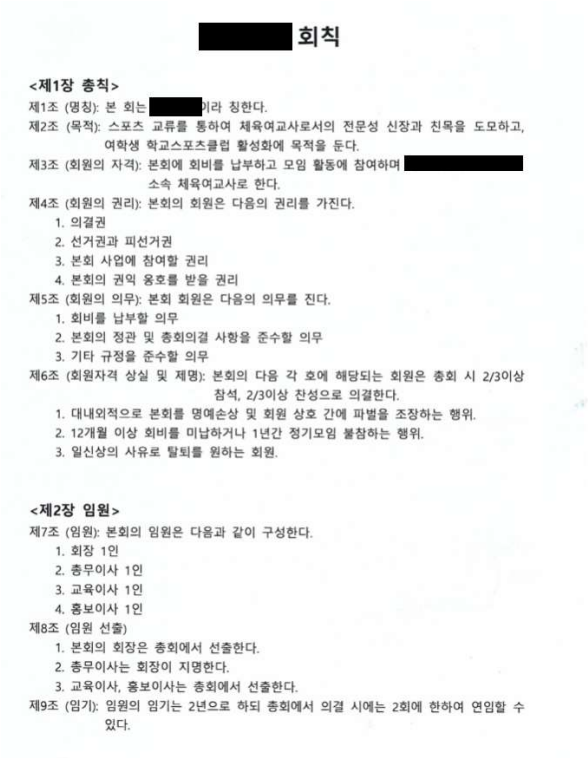
> 처음에는 신규 직무 연수 이제 되자마자 일주일동안 연수가 있었는데 거기서 해주시는 선생님 중에 한 분이 ‘넘버원 공동체’ 선생님이셨어요.
> 이제 제주도에도 이러한 교사연구 집단이 있다. 여교사도 있고 제주 교육체육활성화 카톡방도 있고, 개인적으로 이런 활동하는 여교사 동아리가 있는데 혹시 할 생각이 있으면 연락을 달라 하셔서 연락을 드렸어요. 그 선생님이 있는 동아리는 잘 운영되고, 들어가서 배울 게 많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
> (이명랑 교사, 심층면담)

> 막상 연수를 가면 우리가 수업할 때 합반 모습이 체육 교사 연수일 때도 뭔가 똑같이 되는 것 같아요. 연수를 했을 때 뭔가 남녀가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여자 선생님이 이렇게 모이시고 남자 선생님 이렇게 모여주세요. 이렇게 한다든지 **뭔가 여자 선생님이 같이 할 때는 깍두기 같이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
> (이명랑 교사, 심층면담)

2) 운영방식 및 활동내용: 모범적 협력

‘넘버원 공동체’는 제주도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으며 현재 회원 수는 29명이다. 공동체 임원은 회장, 총무, 교육이사, 홍보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비로 공동체 활동을 운영하고 있다.

공동체의 활동으로 ‘정기모임’, ‘번개모임’, ‘정기총회 및 워크숍’ 가 운영되어지고 있었다. 먼저 ‘정기모임’은 분기별로 이루어지며 2월 정기총회 때 조를 편성하여 다음 모임 때부터 자율연수 방식으로 조에서 연수를 구성하여 진행한다. 조별로 체육교사의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해 수업연구를 하고 싶은 종목을 정하여 실기, 지도법, 평가계획 등의 자료를 준비하여 다른 회원 교사들에게 설명하고 자료를 공유한다.



[redacted]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redacted]이라 칭한다.

제2조 (목적): 스포츠 교류를 통하여 체육여교사로서의 전문성 신장과 친목을 도모하고, 여학생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에 목적을 둔다.

제3조 (회원의 자격): 본회에 회비를 납부하고 모임 활동에 참여하며 [redacted] 소속 체육여교사로 한다.

제4조 (회원의 권리):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1. 의결권
2. 선거권과 피선거권
3. 본회 사업에 참여할 권리
4. 본회의 권익 옹호를 받을 권리

제5조 (회원의 의무): 본회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회비를 납부할 의무
2. 본회의 정관 및 총회의결 사항을 준수할 의무
3. 기타 규정을 준수할 의무

제6조 (회원자격 상실 및 제명): 본회의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회원은 총회 시 2/3이상 참석, 2/3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대내외적으로 본회를 명예손상 및 회원 상호 간에 파벌을 조장하는 행위.
2. 12개월 이상 회비를 미납하거나 1년간 정기모임 불참하는 행위.
3. 일신상의 사유로 탈퇴를 원하는 회원.

<제2장 임원>

제7조 (임원):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회장 1인
2. 총무이사 1인
3. 교육이사 1인
4. 홍보이사 1인

제8조 (임원 선출)

1. 본회의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총무이사는 회장이 지명한다.
3. 교육이사, 홍보이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9조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총회에서 의결 시에는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그림 6. ‘넘버원 공동체’ 운영회칙

조에서 연수 날짜랑 종목을 저한테 말해 주시면 제가 알려드리고 투표를 하겠다 하고 그다음에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선생님이 있고 그런 정하고 그리고 작년에 좀 하신 분이 있다면 좀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서 연수를 운영하고요.
저희는 사실 기초 기능이 다 되니까 엄청 캐치가 빠르고 바로바로 정리가 돼서 한 3~4시간 정도에 빠르게 쭉 패턴을 설명해 주고, 학생들한테 쓸 수 있는 자료들이랑 피피티랑 평가 계획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평가 계획을 이런 거 있었는데 또 어떤 방법이 좋을지 한번 의논을 해보는 것까지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리고 자료를 단톡방에 공유하고, 직접 수업을 해서 평가계획을 사용해보고 다시 또 단톡방에 공유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수준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한미소 교사, 심층면담)

분기별로 한 번씩 연수를 하니까 초반에는 4월에 할 때 킨볼을 했었고, 이번에 7월에 할 때는 추크볼을 했는데, 7월 달에 하니까 2학기 때 이번에 추크볼 수업을 하시는 샘이 되게 많으셔서, 저는 작년에 추크볼 수업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1학기 때 추크볼 수업을 했었는데, 정리했던 거 드리고 그거 가지고 선생님들이 보완할 걸 보완하고 뺄 거 빼고 이렇게 추가할 거 추가하고 해서 2학기 때 하시고 그랬어요.

(이명랑 교사, 심층면담)

‘번개모임’은 체육수업 및 업무와 관련한 모임을 회원들과 하였을 경우 간식비를 제공해주는 제도도 만들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회원들이 많이 사용하지 않는 항목이라고 하였다. 다음으로 ‘정기총회 및 워크숍’에서는 해당년도 사업을 돌아보고 다음 해를 준비하는 시간을 갖는다. 코로나로 인해 2년 동안 비대면으로 화상회의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활동 외에 추가적으로 실기 연수를 진행하였는데, WKBL에서 지원을 받아 회원들을 대상으로 농구 연수를 진행하였다.

> 저는 이번 겨울방학이었던 것 같은데 WKBL에서 농구 선수출신 선생님들께서 와서 저희를 직접 가르쳐주시는 거였는데 그때 너무 재미있게 했어요.
> 제가 이걸 하면서 그동안 프로그램도 재밌었지만, 실제 프로 선수님들이 와서 하는 것도 특별하잖아요(웃음).
> 평생에 볼 수 없는 선수들, 어떻게 국가대표 감독님이시고 했었고 부산 그 여자 프로 감독님도 오시고 은퇴한 지 얼마 안 되신 김보민 선수님도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지 되게 프로의 구단의 눈높이에서 해주신 게 아니라, 학생들을 실제로 가르치는 것처럼 저희를 알려주시고 학생들을 가르칠 때 어떤 부분을 알려줘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수업 때 할 수 있는 아이들의 살짝 재미 요소와 경쟁 요소를 함께해서 알려주셨어요. 선생님들이 한두 번 가르쳐 보신 게 아니더라고요, 초등학생 애들을...
>
> (이명랑 교사, 심층면담)

다. 에이스 공동체

1) 동기 및 목적: 여자체육교사를 주축으로 한 여학생 체육 활성화

‘에이스 공동체’는 처음에는 친목모임으로 시작하였는데, 해당 지역에 남교사들을 위한 다양한 스포츠 활동 모임은 많았지만, 여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모임은 없어서 이것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여교사들을 위한 모임을 결성하게 되었다고 했다.

> 체육과 있으면 남자 선배들 위주로 돌고 **항상 여자 선배들은 후배들이 봤을 때 여자 선배들도 항상 주변인. 항상 주변에 맴도는 느낌**, 서브하는 느낌 두부 썰고 막걸리 따르고 그냥 그런 잡일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전혀 인정은 못 받고 교직

에 왔는데도 비슷하더라고요.
남교사들은 굉장히 야구팀도 있고, 지역 축구팀도 있고 한데, 울산은 그런 모임 자체가 정말 없거든요. 교사들이 아예 없어서 얘기하다가 우리끼리 한번 없으면 만들자 해서 처음에는 친목모임처럼 만들게 됐고요. **처음에 친목처럼 조금씩 지인한테 얘기해서 조그맣게 모이다가 친목 형식으로 모이다가, 이렇게 모인 김에 제대로 연구회를 만들어서 교육청에서 인정받으면 우리 모임이 훨씬 더 좀 더 오래 갈 수 있지 않을까싶어서** 이렇게 회장 선생님이 이제 기획서 쓰고 그런 의견을 주셔가지고 저희 방향을 잡은 거죠.

(최책임 교사, 심층면담)

그리고 점점 체육교사들의 전문성 개발, 여학생 스포츠 활성화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교과연구회로 등록하였고, 다양한 활동을 해오고 있다. 연구 대상 중에 유일하게 지방 교육청에 등록된 교과연구회 모임이다.

여자 체육교사만이 조금 더 강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뭘까 하다가 아무래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학생 체육. 여학생들이 훨씬 더 쉽게 가깝게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이 우리만의 강점일 수도 있겠다 해서 연구회 이름도 그렇게 지었고요. 이런 부분은 교육청에서도 분명히 인정을 하는 거예요. 여자 쌤들이 여학생들이랑 훨씬 더 관계가 좋으니까 해서 지원을 지금 2년째. 그렇죠 정식으로 2년째 받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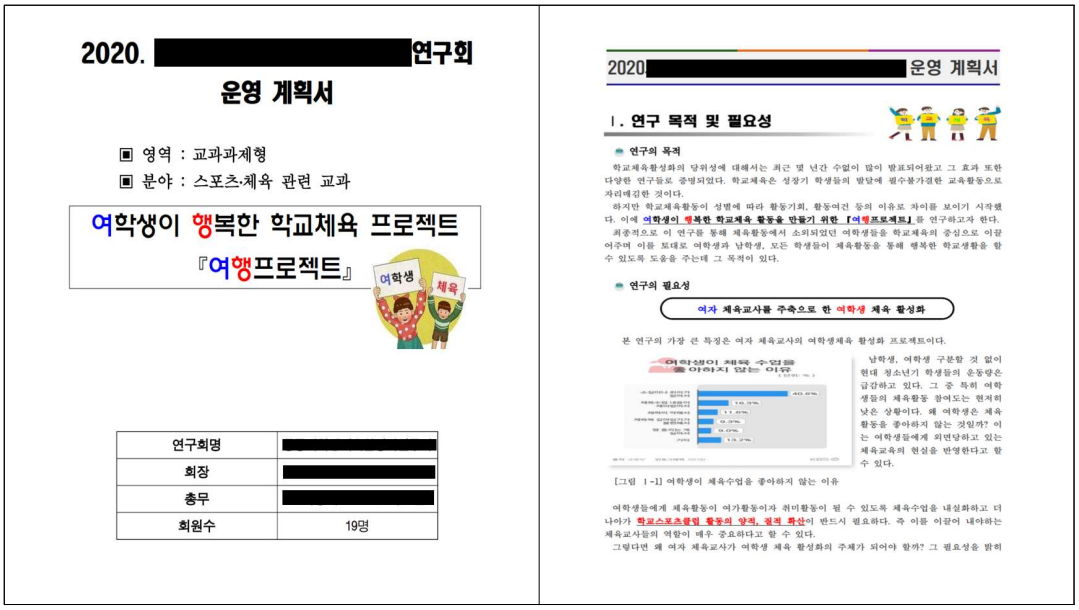
(최책임 교사, 심층면담)

2) 운영방식 및 활동내용: 힘들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에이스 공동체’는 울산에서 활동을 하고 있으며 현재 회원 수는 30명이다. 하지만 연구회로 등록되면서 운영진들에게 과중한 업무가 주어지게 되었다.

선생님들이 막상 이제 연구회 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주말 출장이라든지 이렇게 계획이라든지 작업할 게 많은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지원이 적다보니까, 처음에는 **사명감 때문에 시작을 했는데 힘든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최책임 교사, 심층면담)



2020. [redacted]연구회

운영 계획서

▣ 영역 : 교과과제형

▣ 분야 : 스포츠·체육 관련 교과

여학생이 행복한 학교체육 프로젝트

『여행프로젝트』

연구회명	[redacted]
회장	[redacted]
총무	[redacted]
회원수	19명

2020[redacted]운영 계획서

Ⅰ. 연구 목적 및 필요성

연구의 목적

학교체육활성화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최근 몇 년간 수없이 많이 발표되어왔고 그 효과 또한 다양한 연구들로 증명되었다. 학교체육은 성장기 학생들의 발달에 필수불가결한 교육활동으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하지만 학교체육활동이 성별에 따라 활동기회, 활동여건 등의 이유로 차이를 보이기 시작했다. 이에 여학생이 행복한 학교체육 활동을 만들기 위한 『여행프로젝트』를 연구하고자 한다.

최종적으로 이 연구를 통해 체육활동에서 소외되었던 여학생들을 학교체육의 중심으로 이끌어주며 이를 토대로 여학생과 남학생, 모든 학생들이 체육활동을 통해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의 필요성

여자 체육교사를 주축으로 한 여학생 체육 활성화

본 연구의 가장 큰 특징은 여자 체육교사의 여학생체육 활성화 프로젝트이다.

남학생, 여학생 구분할 것 없이 현대 청소년기 학생들의 운동량은 급감하고 있다. 그 중 특히 여학생들의 체육활동 참여도는 현저히 낮은 상황이다. 왜 여학생은 체육활동을 좋아하지 않는 것일까? 이는 여학생들에게 외면당하고 있는 체육교육의 현실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림 1-1] 여학생이 체육수업을 좋아하지 않는 이유

여학생들에게 체육활동이 여가활동이자 취미활동이 될 수 있도록 체육수업을 내실화하고 더 나아가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의 양적, 질적 확산이 반드시 필요하다. 즉 이를 이끌어 내야하는 체육교사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왜 여자 체육교사가 여학생 체육 활성화의 주체가 되어야 할까? 그 필요성을 밝히

그림 7. '에이스 공동체' 운영계획서

<그림7>에서처럼 운영계획서와 보고서를 통해 그동안 '에이스 공동체'에서는 '여성체육교사 전문성 향상을 위한 실기 자율연수', '여학생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활성화', '스포츠 체험활동 기회제공'의 과제가 추진되어왔음을 볼 수 있다. 전문성 향상을 위한 실기 자율연수는 여성체육교사가 어려워하고 배우고 싶은 종목을 선택하여 전반적인 실기 기능과 기초지식 및 심판법, 수업방법 및 평가방법 나눔에 대한 연수가 이루어졌다. 현재까지 농구, 축구, 킨볼, 풋살 종목에 관한 실기연수가 실시되었다.

그림 8. '에이스 공동체' 실기연수

여학생 학교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해 스포츠클럽 대회를 2020년부터 시작하여 매년 11월에 개최해왔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전국 최초로 반대면 스포츠클럽 대회라는 형식으로 비대면 형식의 비접촉이라는 장점과 대면 형식의 실전 경기 경험의 장점을 살려 진행하였다. 2021년에는 피구, 족구, 댄스 등 여학생 친화형 종목으로 운영하였으며 총 1,104명이 참가하여 진행되었다.

> 저희가 되게 자랑할 만한 게 코로나 때문에 보통은 온라인으로 혼자 할 수 있는 거 그런 거 했었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제 그런 스포츠클럽 대면 대회를 안 했었는데 저희 울산 저희 연구회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대면인데 아이들이 거리두기를 가능한, 자기 차례 때는 직접 만나서 게임하고 차례가 아닐 때는 교실에서 tv 모니터로 생중계 보고, 아이들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
> (최책임 교사, 심층면담)

또한 스포츠 활동에 열정과 관심을 가진 학생, 스포츠 활동에 소외되어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스포츠 프로그램을 경험시켜줄 수 있는 장기 프로젝트도 수행하고 있다. 예산을 지원 받아, 종목을 선정하고 관심 있는 학생들을 주변 지역에서 모아 이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버스대절을 하여 운영하였다. 스포츠 활동을 체험하기도 하였고, 체험한 활동과 관련한 연극을 만드는 스포츠 간접체험 형식의 활동도 진행하였다.

> 저희 지역이 되게 커요. 지역 자체가 규모가 되게 크고 면적이 넓다보니까 학교가 되게 많이 퍼져 있는데 그에 비해서 저희가 제반 시설이라든가 그런 인프라는 좀 약한 편이에요. 애들이 뭔가 어떤 종목을 해보고 싶어도 그 인프라가 만들어져 있지 않다거나, 아니면 그 인프라까지 가는 교통이 약하다거나 이런 게 좀 되게 많아요.
> 그걸 저희가 해소해보자 해서 애들이 관심 있어 할 만한 종목을 하나를 정해서 울산 전역에 신청을 받아요. 체험할 사람 신청을 받아서 버스 대절을 해서 그 학교를 다 도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을 체험해 볼 수 있게 일회성으로 체험해 볼 수 있게 했던 게 1학기 프로그램이었고, 이번에 2학기는 저희 체육 활성화 관련해서 연극을 저희가 만들고 있어요.
>
> (김성실 교사, 심층면담)

> 처음부터 이렇게 많이 주지는 않았고요. 점차적으로 스케일이 커진 거예요. 저희가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일하는 것에 대해 인정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서 힘들어도 이걸 하면서 교육청 일종의 작은 목적 사업비 같은거 계획서 쓰거나 할때는 이제 적응이 된 것 같아요.
>
> (최책임 교사, 심층면담)

라. 원더풀 공동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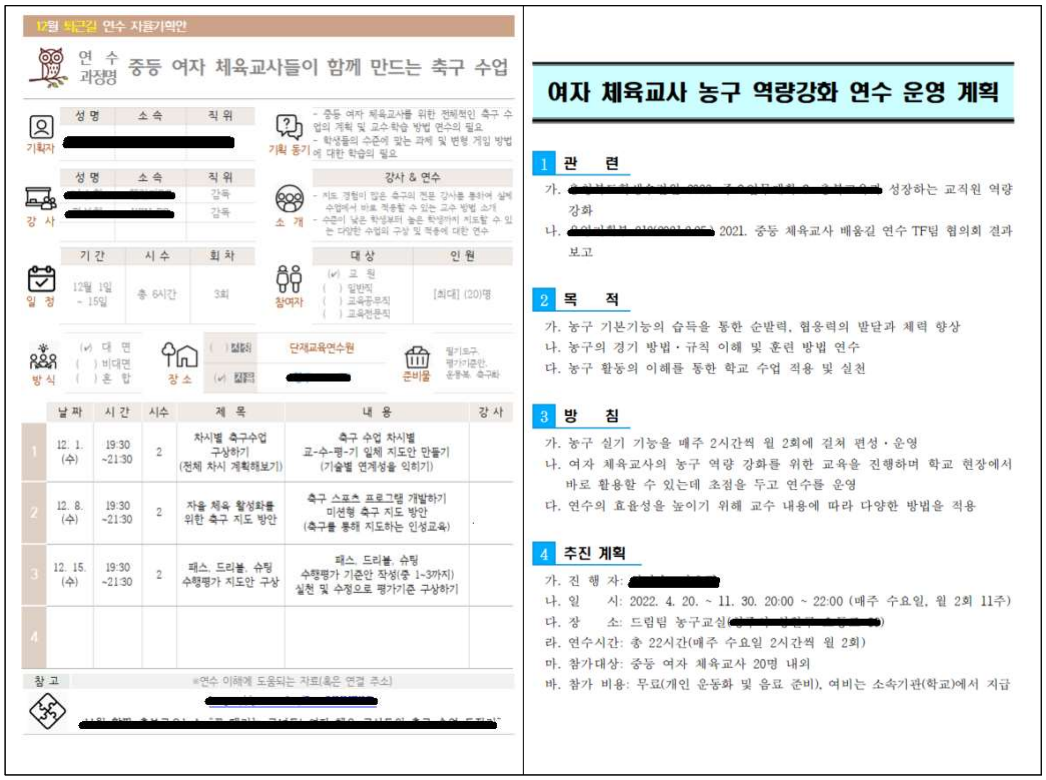
1) 동기 및 목적: 뭉치면 할 수 있다

처음에 수업 연구를 위해 다양한 연수와 배움의 기회에 대한 필요성을 느낀 이열정 교사는 지역에 있는 체육교과 연구회에 참여를 문의하였지만 여성이라는 이유로 거부를 당했다고 기억을 회상하였다. 그 후로 더욱 더 여성체육교사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함을 느꼈으며 기회가 되어 충북지역에 2021년 1학기 퇴근길 연수 프로그램으로 축구 연수를 진행하게 되었다. 연수에 참여한 교사들의 반응이 긍정적이었으며 앞으로 이러한 연수에 대한 요구와 필요성으로 인해 그 뒤로도 지속적으로 운영되어지고 있는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이다.

> 저희는 그냥 1월에 중등 저희 충북 전체 예산이 있거든요. 연수 전체 예산이 1천만 원이 있는데, 그거를 어떤 식으로 꾸릴 건지 협의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그러면 여자 체육 선생님들을 위한 연수를 따로 하나 빼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공동체 설립을 위해서 한 건 아니고, 연수를 개최하게 됐는데 1학기에 끝났어요. 축구 연수가 1학기에 끝났는데 이제 거기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분위기가 너무 좋았고 그리고 언니들도 도와주고 해서 이렇게 끝내기에는 너무 아쉽다 해서 이제 다른 방법, 예산을 끌어올 수 있는 다른 방법이나 해서 2학기 때까지 또 끌어오게 되고 그 인원을 바탕으로 또 올해는 전문적 학습 공동체도 만들어지고 그 안에서 축구도 하면서 농구도 하고 이렇게 각각의 이제 요소들을 막 중간 중간에 막 넣게 된 거죠.
>
> (이열정 교사, 심층면담)

> 이제 여자는 그 연구회 소속이 아무도 없고, 여자를 받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때 몇 년도 20년도였나 20년도에?
>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21년도에 만든 거예요.
>
> (이열정 교사, 심층면담)

2) 운영방식 및 활동내용: 리더의 열정으로


12월 학근길 연수 자율기획안

연 수 과정명 중등 여자 체육교사들이 함께 만드는 축구 수업

성 명	소 속	직 위
[redacted]		

기획자

- 중등 여자 체육교사를 위한 전체적인 축구 수업의 계획 및 교수·학습 방법 연수의 필요
-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과제 및 변형 게임 방법에 대한 학습의 필요

기획 동기

성 명	소 속	직 위
[redacted]		강독
[redacted]		강독

강 사

강사 & 연수

- 지도 경험이 많은 축구의 전문 강사를 통하여 실제 수업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교수 방법 소개
- 수준이 낮은 학생부터 높은 학생까지 지도할 수 있는 다양한 수업의 구상 및 적용에 대한 연수

소 개

기 간	시 수	회 차
12월 1일 ~ 15일	총 6시간	3회

일 정

대 상	인 원
(✓) 교 원 ( ) 일반직 ( ) 교육공무직 ( ) 교육전문직	[최대] (20)명

참여자

방식: (✓) 대 면 / ( ) 비대면 / ( ) 혼 합

장소: ( ) 집합처 / (✓) 집합처 [redacted] — 단재교육연수원

준비물: 필기도구, 평가기준안, 운동복, 축구화

	날 짜	시 간	시수	제 목	내 용	강 사
1	12. 1. (수)	19:30 ~21:30	2	차시별 축구수업 구상하기 (전체 차시 계획해보기)	축구 수업 차시별 교-수-평-기 일체 지도안 만들기 (기술별 연계성을 익히기)	
2	12. 8. (수)	19:30 ~21:30	2	자율 체육 활성화를 위한 축구 지도 방안	축구 스포츠 프로그램 개발하기 미션형 축구 지도 방안 (축구를 통해 지도하는 인성교육)	
3	12. 15. (수)	19:30 ~21:30	2	패스, 드리블, 슈팅 수행평가 지도안 구상	패스, 드리블, 슈팅 수행평가 기준안 작성(중 1-3까지) 실천 및 수정으로 평가기준 구상하기	
4						

참 고: ※연수 이해에 도움되는 자료(혹은 연결 주소) [redacted]

여자 체육교사 농구 역량강화 연수 운영 계획

1 관 련

가. [redacted] 성장하는 교직원 역량 강화

나. [redacted] 2021. 중등 체육교사 배움길 연수 TF팀 협의회 결과 보고

2 목 적

가. 농구 기본기능의 습득을 통한 순발력, 협응력의 발달과 체력 향상

나. 농구의 경기 방법·규칙 이해 및 훈련 방법 연수

다. 농구 활동의 이해를 통한 학교 수업 적용 및 실천

3 방 침

가. 농구 실기 기능을 매주 2시간씩 월 2회에 걸쳐 편성·운영

나. 여자 체육교사의 농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진행하며 학교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데 초점을 두고 연수를 운영

다. 연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교수 내용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적용

4 추진 계획

가. 진 행 자: [redacted]

나. 일 시: 2022. 4. 20. ~ 11. 30. 20:00 ~ 22:00 (매주 수요일, 월 2회 11주)

다. 장 소: 드림팀 농구교실([redacted])

라. 연수시간: 총 22시간(매주 수요일 2시간씩 월 2회)

마. 참가대상: 중등 여자 체육교사 20명 내외

바. 참가 비용: 무료(개인 운동화 및 음료 준비), 여비는 소속기관(학교)에서 지급

그림 9. '원더풀 공동체' 연수 운영계획서

'원더풀 공동체'는 청주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으며 회원수는 20명 내외이다. 매번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교육청 및 연수원에 여자체육교사 연수를 신청하여 예산을 지원받았다. 이러한 노력으로 회원들에게 각종 축구, 농구 실기 연수를 무료로 제공할 수 있었다. 공동체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실제적으로 임원진 2명이서 이끌어나가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음을 해당 교사와의 심층면담을 통해 알 수 있었다.

> 저희는 20명인데 정**말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건 언니랑 저랑 딱 둘이거든요. 되게 이제 버거울 때가 있죠.** 그리고 내년에 대해서 나는 지금 내년에 진짜 어떡하지 이거를 어떻게 끌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나만 너무 애타는데 이제 올해까지 지원 받아서 하면 좋은데 아니면...
>
> (이열정 교사, 심층면담)

2022년에는 매주 2회씩 농구와 축구 종목을 선택하여 기능연습, 수업구성, 지도법 공유 등의 활동이 이루어졌다. 처음 인원모집을 할 때, 여성체육교사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여성체육교사들이 근무하는 학교에 직접 한 명씩 연락하여 이러한 연수가 있음을 안내하는 열정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 이제 여자 체육 교사의 연수로 했는데 배구를 하면, 이제 배구는 아무데서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동호회도 있고 뭐도 있고 다 할 수 있잖아 이렇게 돼버리는 거 아니야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 그래서 좀 뭔가 우리가 논다는 느낌이 아니라 여자 체육 선생님들이 실제로 배우기가 정말 힘든 종목을 그러면 하자 해서 축구로 한 거든 틀은 거고 그래서 처음에, 근데 이제 하다 보니 축구가 사실 한두 달 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고 그때 당시에 딱 4달 했거든요. 연수가 4달하고 끝났어요. 올해는 또 어떻게 하다보니까 축구를 또 놓기는 너무 아쉬워서. 이게 축구 2주, 농구 2주 근데 WKBL에서 지원하는 게 농구 사업이 또 있어서 그게 주말에 한 번 더 들어가고 이렇게 식으로
> (이열정 교사, 심층면담)

‘원더풀 공동체’를 운영하는 이열정 교사는 매번 연수활동에서 동영상 촬영을 하여 수업 자료로 제작하고, 온라인상에서 회원들에게 공유하는 역할을 하였다.

> 강사 분들이 알려주시면 그걸 동영상을 찍잖아요. **이제 그런 자료들로 제작을 해 가지고 선생님들이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거까지 연계를 이제 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작업을 제가 역할이 제 역할은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 (이열정 교사, 심층면담)

‘원더풀 공동체’는 회원들의 참여와 관련해서 가정, 육아 등의 개인적 사정을 고려하여 열려있는 운영을 하여 자유로운 참여를 가능하게 하였다.

> 이 연구회가 여자들이 중심이어서 좋은 게 그런 거예요. 이제 연수를 신청해놓고 아기가 아프거나 갑자기 봐줄 수 없는 상황이 생기면 다른 모임들은 좀 눈치가 보이거든요. 그런데 서로 시작할 때 이제 빠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 서로 눈치 보지 않고 편하게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그렇게 해주니까...
> 모임의 취지가 그런 식으로 해주니까 조금 열려 있게 운영을 해 주니까 운영진들한테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도 있고 어떻게든 참석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좀 자유롭게 운영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 (정도전 교사, 심층면담)

마. 초신성 공동체

1) 동기 및 목적: 학교체육의 미래를 이끌어갈 여성체육교사

‘초신성 공동체’는 2022년 운영진 6명들의 의기투합으로 발대를 하였으며, 전국여성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성교사체육교육공동체이다. ‘초신성 공동체’가 생기게 된 이유는 전미래 교사와 홍사랑 교사의 필요성에 의해서였다. <그림10>을 통해 공동체의 목적을 확인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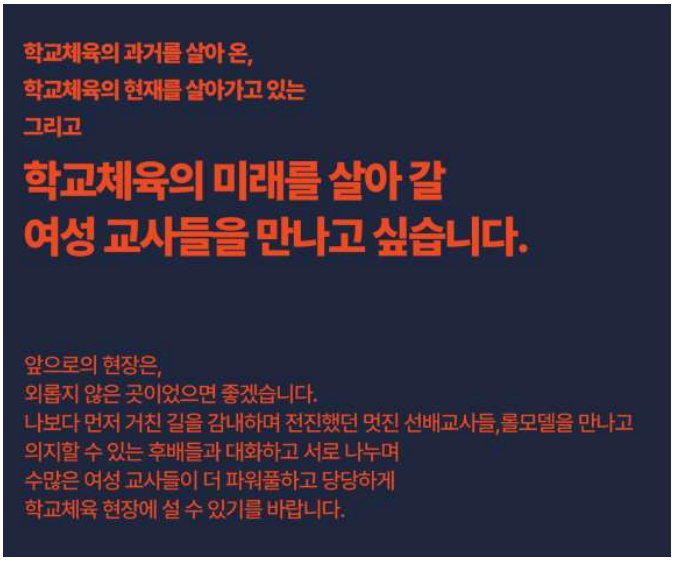


그림 10. ‘초신성공동체’ 운영목표 홈페이지 발췌

되게 원초적인 쪽부터 시작이 된 건데, 제가 축구 동아리를 만든 것부터 쭉 다 연결이 되는 거여서... 예전에 대학생 때도 남자 학우들 사이에서 운동을 제 마음껏 못했던 그런 울분이 있어서 여자축구 동아리를 만들었는데, 그거랑 똑같이 체육 교사가 되고 나서도 체육 교사가 여자라는 이유로 못하는 게, 못 누리고 조금 제한적인 게 많더라고요.
다수가 아니라는 이유로, 예를 들어서 제가 교육청에서 하는 실기 연수를 받는데, 배구 시합을 하고 있었어요. 여자니까 약간 뒤에 서야 되는, 남자라는 이유로 원하는 포지션에 딱 배정받고 이런 것들이 너무 안 좋게 그때는 느껴졌었죠.

(전미래 교사, 심층면담)

사실 2021년도에, 이제 전미래 선생님이랑 서울시교육청 공차소서 프로젝트를 같이 하면서 그때부터 이걸 구상을 했거든요.
근데 그전부터는 그냥 막연히 그냥 여자샘들끼리 축구하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이었다면 그 공차소서 활동을 통해서 여자 선생님들끼리 연수를 하면 이런 분위기가 나오고 여자 아이들에게 여자 선생님들은 정말 중요한 롤모델이고, 나 혼자서는 못할 것 같은데 전미래 쌤이랑 같이라면 할 수 있겠다.
전미래쌤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고, 혼자 쏟아 붓기에는 너무 스케일이 커서 품이 많이 들고 각자 하는 일들이 많은 사람들이라 그래서 그때 그 공차소서가 어찌 보면 계기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홍사랑 교사, 심층면담)

'초신성 공동체'를 통해 여성체육교사들이 체육교육에 대한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며, 다른 여성체육교사들과의 교류를 통해 성장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고자 하였다. 또한 참여 대상을 여성체육교사를 포함한 교직에 근무하는 여성 교원으로 넓혀 교류를 원하는 누구든지 '초신성 공동체'를 통해 소통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교사도 있고, 저희 교육 전문직 분들이 또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랑 같이 교류하고 싶고 그런 분들이 오히려 더 이런 공동체나 이런 것들을 필요로 했었는데 없어서 못해보셨던 분들이 다 계셔서 같이 교류하고 싶어서 열어봤습니다.
여성체육교사들이 혼자 있으니까 외롭게 뭔가 수업도 개발하기 힘들고 소통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게 저희가 뭉쳐서 같이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체육교사라는 정체성을 더 체계화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전미래 교사, 심층면담)

2) 운영방식 및 활동내용: 히어로들과 원더우먼들

'초신성 공동체'는 6명의 운영진으로 이루어져있고, 현재 150명의 전국 초등, 중등 교원, 교육공무원이 가입되어 있다. '초신성 공동체'는 6명의 운영진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회원 중에서도 진행, 운영에 참여하여 리더가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회비로 운영이 되고 있으며, 교사들의 재능기부, 다른 교육 단체들의 후원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운영되어 지고 있는 활동으로는 '체육나눔연수', '원더풀레이스', '오픈세미나', '돌△클래스', '○○○○클래스', '종목 동아리' 활동이 있다.

먼저 체육나눔 연수는 방학 중에 이루어지는 원데이클래스 형식으로 기능습득 뿐만 아니라 수업에 어떻게 적용할 것이며, 관련된 수업사례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기존의 기능 습득 위주의 연수와는 다르게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자신의 학교 체육 수업 환경을 생각해보고 적용해볼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통해 체육수업에 대해 집단 지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 것이다.

> 초신성 공동체 연수가 특이한 게, 얘기를 자꾸 하라 그러잖아요. 저거는 어때요? 어떤 가요? 근데 사실 이거에서 더 나아가서 저희가 원했던 거는 학교에서 어때요? 수업은 어때요? 라는 걸 물어보고 그다음에 실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어떻게 이것을 실천했는지에 대한 사례들을 나눠서 다시 이제 또 서로 발전시켜 나가고 수정 보완해 나가는 거를 지향하고 있거든요.
> 아직 그 정도까지 정교화가 되지 않은 것 같고, 하지만 없었던 것들 왜 이런 건 안 하지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넣으려고 하는 시도들이 그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 같아요.
>
> (홍사랑 교사, 심층면담)

지금까지 이루어진 체육나눔연수로는 축구, 농구, 배구, 초등 신체활동, 표현활동에 관한 연수들이 있다. 다음은 연구자가 체육나눔연수에 참여하여 관찰한 것을 관찰기록지에 표시한 내용의 일부분이다.

표 16. 관찰기록지

시간	관찰내용	관찰자 잠정 분석
22년 8월 6일	< 댄스연수 관찰일지 > - 댄스연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들과 반갑게 인사, 자기소개 - 댄스 연수를 왜 참여하게 되었는지, 그동안 표현활동 수업은 어떻게 해왔는지 - 이야기를 나누다보니 아이스브레이킹 - 운영교사의 표현활동 수업사례 나눔 궁금한 점 물어보기, 활용방법 이야기 - 표현활동 실기 연수 실습	-철저한 사전 수업준비 - 세심한 지도 -의견공유, 라포 형성가능

‘원더풀 레이스’는 비수도권 회원들의 참여가 어려울 경우, 지역에서의 소모임을 지원하는 방안이다. 전국에 있는 여교사들을 대상으로 하지만, 주로 활동이 수도권 지역에서 이루어지므로 참여를 못하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제주도 지역에서의 소모임, 경기도 안양에서 이루어지는 여교사 축구모임 지원 등으로 참여를 지원하고 있다.

‘오픈세미나’는 다양한 주제로 ‘초신성 공동체’회원 뿐만 아니라 참여를 희망하는 모든 교원들에게 제공 되는 공개 세미나로, 지금까지 아동의 발달성 협응장애와 관련하여 교수님을 초청하여 발달성 협응장애에 대해 알아보았고, 경력교사가 신규 교원들을 대상으로 학교업무와 생활에 도움이 되는 실전 팁들을 공유하였다.

‘돌△클래스’는 돌아온 체육시간이라는 뜻으로 요즘 체육수업에 가르칠 수 있는 다양한 수업 내용들을 교사가 직접 체험해보고 즐기는 시간을 제공한다. 교사들은 특히 학창시절에 뉴스포츠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데 오늘날 수업에서 많이 활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위해 츄크볼, 태그럭비, 얼티미트 등 다양한 뉴스포츠 종목에 대해 직접 체험하고 수업과 관련된 고민을 나누고 배우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클래스’는 비체육 전공 여교사들을 위한 연수로 모든 교사들이 체육 교과의 중요성을 알고 스포츠의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수업 내용을 제공한다. 초등학교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아장아장 풋살 클래스가 열렸는데, 축구를 처음 접하거나 그동안 하고 싶었는데 용기가 없었던 교사들을 위해 기회를 제공해준다.

이 외에도 교사들이 참여하고 싶은 스포츠클럽(동아리)을 직접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교사들을 연결해주고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역할을 한다. 또한 운영진들은 활동 후에 참가자들에게 후기를 통해 피드백을 받고 수정, 보완하는 작업까지 하고 있기도 하였다. SNS, 언론매체 등을 활용하여 초신성 공동체의 다양한 활동들을 공유하고 홍보하고 있다.

저희는 전문성 개발을 목표로 모였더라도, 각자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계속 만들려고 하는 부분, 감성을 터치하는 이벤트들과 연수들, **진짜로 소통하는거, 자신의 얘기를 꺼내는 거세 중점**을 많이 두는 것 같아요.

(전미래 교사, 심층면담)

그림 11. '초신성 공동체' 활동사진

바. 나이스 공동체

1) 동기 및 목적: 동행

하인성 교사는 2022년 2월에 체육교사들이 있는 메신저 방에서 여성체육교사 모임에 대한 개인적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었다. 설문조사를 통해 여성체육교사 모임의 필요성은 수업전문가가 되기 위해(34.1%), 정보공유(26.4%), 여교사들의 고충에 대한 상담과 응원(14.3%)으로 결과가 나왔다. 이러한 설문 결과를 토대로 '나이스 공동체'가 여성체육교사들의 전문성과 전문역량을 신장하는 것으로 목표를 정하였다. 하인성 교사는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를 만들게 된 동기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하였다.

여교사 체육 교사 모임은 원래 제가 만들고 싶은 꿈이었는데 이렇게 빨리 만들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이제 나이가 조금 들수록 후배들이 많아질수록 여자 교사로서, 체육교사로서 한 20년 근무해 보니까 녹록치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교과랑 비교해봤을 때 국어 선생님이 남자, 여자는 상관없잖아요. 체육 교과만의 특성상 남교사와 여교사의 분명히 어떤 차이점이 딱 들어보면 모든 선생님들이 다 끄덕끄덕 해요.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경험이 쌓이더라도 신체적인 부분은 나이가 들수록 개입이 커지고 남자, 여자가 개입이 커지고...

(하인성 교사, 심층면담)

여성체육교사들은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해 연수에 참여하거나 다양한 방법으로 수행해왔었다. 하지만 결혼과 출산으로 인해 여성 체육교사들의 퇴화와 정체의 시기를 겪게 만들었다. 하인성 교사는 결혼 이후 교사로서 본인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졌다고 했다. 출산과 육아 또한 전문성 개발의 기회를 제한시키는 요소가 되었다. 따라서 여성들의 이러한 고충을 고려하고 여성체육교사들의 전문성 향상, 공감과 응원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를 창설한 것이다.

현재 사실 근데 여교사를 봤을 때는 여자 선생님들이 대부분 퇴근하면 집으로 이제 육아를 하러 간다거나 가정생활 하러 가시는데 그럼 여자체육교사는 언제 자기 역량을 키우냐 이거죠. 여자 체육 교사는 언제 자기 역량 키우냐 미혼 때밖에는 없는 거예요.
기혼이 되고 나면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고 육아를 해버리면 남자 체육 교사와 그때부터 개입이 생기는 거죠. 우리끼리 여자체육 교사 모임을 만들겠다는 생각한 거는 이런 기회 제공을 여교사만의 어떤 모임을 하겠다라는 취지가 전혀 아니고, 여교사는 특별하게 세심하게 꼼꼼하게 그들만의 어떤 세계나 기회 부여나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그 활동들이 이제 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선생님이 멘토, 멘티가 돼서 우리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 여교사만의 전문성을 더 키워낼 필요가 있다.

(하인성 교사, 심층면담)

'나이스 공동체'에 가입을 하고 운영진으로 활동하고 있는 정솔선 교사도 처음 참여하게 된 동기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하였다.

조금 그런 실기적으로 한계도 사실 좀 느껴졌었고 그다음에 뭔가를 좀 더 배우고 하고 싶은데 마땅한 곳이 사실 없기는 했어요.
그러던 와중에 이 여교사만의 전문 공동체를 만들어 가자라는 의견들이 먼저 불거졌었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거를 꼭 좀 참여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우선은 먼저 들어서 두 군데다 신청을 했었어요.

(정솔선 교사, 심층면담)

본인의 실기능력 향상을 위해 여러 노력을 해보았지만 기회부족으로 인하여 마땅히 참여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들의 출현으로 '나이스 공동체'에 참여를 하게 되었다. 그리고 운영진으로서 다른 여성체육교사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참가하기를 원하였다.

2) 운영방식 및 활동내용: 더디지만 천천히 성장하는

'나이스 공동체'는 전국에 있는 여성체육교사를 대상으로 하며, 운영진도 전국에 분포해 있다. 거리와 시간의 제약으로 인해 운영진들은 비대면으로 회의를 진행한다. 운영방식으로는 매달 비대면 연수가 있으며, 상반기와 하반기 대면연수를 진행하였다.

매달 진행되는 비대면 연수는 운영진 회의를 거쳐 체육교사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는 부분, 질문을 많이 했던 주제 등으로 정하게 된다. 매월 넷째 주 화요일 저녁시간으로 일정을 고정하였고, 운영진들이 리드를 하여 비대면 연수를 이끌어 나갔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비대면 연수는 개정교육과정, 체육 평가계획, 체육대회, 학교 스포츠클럽 등 다양한 주제로 여성체육교사들의 고민과 수업 노하우를 교환하는 시간이었다.

대면으로 열리는 연수는 실기연수를 위주로 하여 상반기, 하반기에 개최되었다.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연수인 만큼 전국의 다른 지역에서 개최되었는데 거리에 상관없이 멀리에서도 이 연수를 받기 위해 참석하는 교사들도 많이 있었다. 여름방학에 개최한 연수에서는 2022 개정교육과정 안내, 농구, 리듬복싱, 요가 등의 실기연수와 스포츠를 보훈과 통합하여 학생들에게 지도할 수 있는 수업 방안에 대하여 소개하는 연수가 이루어졌다.

그림 12. '나이스 공동체' 활동 사진

'나이스 공동체' 운영진들은 공동체의 목표에 대해 멀리 생각하고 차근차근 나아갈 것을 이야기 하였다. 공동체가 생성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운영진들도 이러한 공동체를 운영하는 것이 처음이여서, 공동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노력해나가고 있다.

> 여교사 모임이 지금 당장 어떤 빛이 나게끔 저희 몇 번을 했다, 이런 결과 어디에서 모임 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름의 우리가 공감대를 형성해 가고 있고, 시작점 자체를 좀 이렇게 더디지만 천천히** 그리고 정말 각자의 분명히 상황이 다 있어, 그러면 그 상황이 최대한 고려되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뭐라 그러죠, **진정성 있게 가는 그냥 얘기하면 교사 모임**이라고 할 수 있고
>
> (하인성 교사, 심층면담)

> 조금 더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는 마음은 있어요.
> 그래서 조금 지금은 사실 저희도 처음 이제 운영을 해보는 입장이고 또 전국 단위다 보니까 그리고 또 선생님들이 각자 하시는 일도 있으시고 해서 조금 그런 흐름이나 이런 거를 사실 잡는 시기였죠.
> 이번 1년 같은 경우 이 때는 서로 다 좀 바쁘시니까 이때 이제 일정을 정하는 게 가장 좋고 선생님들이 좀 만족도가 높으셨던 연수는 이런 거고 그다음에 필요로 하는 거는 이런 거다라는 게 좀 파악이 되는 1년이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그런 거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그렇게 좀 발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 (정솔선 교사, 심층면담)

표 17.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 현황과 운영

요소	창립일	지역	구성원	창설동기	목적	활동	특성
넘버원	2017	제주	29명	친목모임	여성체육교사 전문성 신장 여학생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친목모도	정기총회, 정기모임 번개모임, 워크숍	리더 적극적 구성원 적극적
함께해	2017	경기도	62명	리더교사의 재능나눔	여교사 농구 기능 향상 농구수업 스킬 공유 친목도모	정기운동, 대회운영&참가 친목활동	리더 적극적 구성원 적극적
에이스	2020	울산	30명	친목모임	여성체육교사 주축으로 한 여학생 체육 활성화	실기자율연수 여항생 학교스포츠클럽 리그전 스포츠 소외학생 스포츠 참여사업	리더 적극적 구성원 주변적
원더풀	2021	충북	20명	필요성 자각 (기존 연구회 가입 거부당함)	여성체육교사 전문성 신장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여학생체육활성화	축구, 농구 외 자율연수 친선경기	리더 적극적 구성원 주변적
초신성	2022	전국	150명	필요성 자각	체육교육 전문성, 역량 강화 여성체육교사들과의 교류를 통한 성장의 장 마련	체육나눔연수, 동아리 오픈세미나, 실기연수클래스	리더 적극적 구성원 적극적
나이스	2022	전국	50명	필요성 자각	여성체육교사 전문성 향상 공감과 응원	매월 비대면 연수 진행 상반기, 하반기 대면연수	리더 적극적 구성원 주변적

2.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 참여의 효과와 어려움

연구 결과 1장에서는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의 형성 동기 및 목적, 운영방식 및 활동내용으로 나누어 운영 현황을 파악하였다. 2장에서는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 활동 과정에서 나타난 참여 효과와 어려움을 제시하고자 한다.

Wenger(1998)와 Lave(1996)는 학습을 사회적 참여의 과정이라고 하였다. 실천공동체에서의 학습은 주변적 참여(Legitimate peripheral participation)로 시작된다. 주변성은 참여하는 방식에 관한 것으로, 실천공동체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에 부분적으로만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동체 활동에 조금씩 참여하면서, 공동체 구성원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공동체의 공유자산을 습득하게 된다. 점점 공동체 구성원으로 역량을 발전시켜 나가게 되면 주변적 참여에서 전면참여자(full participation)로 성장하게 된다. 실천공동체는 공동체가 축적해온 지식을 습득하고 구성원으로서 역량을 기르는 학습의 장이다. 또한 실천공동체에서의 지식의 창출은 의미의 교섭(negotiation of meaning)을 통해 이루어진다. 의미의 교섭은 사회적 실천에 참여하고 그 경험에 의미와 형태를 부여하는 것이다. 따라서 실천공동체에서의 학습은 외재하는 지식을 획득하는 과정이 아니라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 관계의 결과물로 형성되며, 총체적 과정 자체가 학습과정이며 동시에 산출물이라고 볼 수 있다(Wenger, 2006).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 참여 효과는 여성체육교사들이 공동체의 참여과정으로 나타난 것들이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실천공동체의 학습 과정을 통해 구성원들이 어떠한 변화와 효과가 있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 참여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개인적 요인부터 공동체 요인, 사회적 요인으로 다양한 범주로 나타났다. 이러한 다양한 층위로 해석하기 위해 Bronfenbrenner의 사회생태학적 모형을 분석틀로 사용할 것이다. 사회생태학적 관점에서 인간의 행동은 개인이 소속된 가족, 조직, 정책과 같은 사회적 영향의 결과이며, 사회적 영향을 변화함으로써 개인의 행동 변화가 유도될 수 있다고 보았다. 사회생태학적 모형은 개인

의 행동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가까운 환경부터 먼 환경까지 조직화하는 틀을 제공하였다(Bronfenbrenner, 1979). 사회생태학적 모형을 구성하는 각 차원은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체계, 거시체계, 시간체계가 있다. 이를 토대로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 참여에 어려움을 주는 요인에 대해 개인적 요인, 공동체 요인, 사회적 요인으로 다층적인 분석을 할 것이다.

가.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 참여의 효과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 활동을 통해 참여 교사들은 체육교사의 전문성으로 능전문성, 지전문성, 심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또한 목표지향성, 과업주도성, 공동체성, 전문성과 관련한 체육교사 리더십 향상과 사회적, 정서적 지지 측면에서의 효과를 살펴볼 수 있다.

1) 체육교사 전문성

최의창(2018)은 체육교사가 전문인으로 갖추어야 할 자질로 능소양, 지소양, 심소양을 제시했다. 먼저 능소양이란, 수행을 잘 하기 위해 필요한 자질이고, 지소양이란 무엇인가 잘 알기위해 필요한 자질, 심소양은 무엇인가를 잘 느끼는 것과 관련한 자질과 능력이다.

본 연구에서 말하는 중등체육교사의 전문성이란 체육교사로서 교과지도, 학생지도, 업무처리의 영역에서 발휘하는 능(能), 지(智), 심(心)의 자질과 능력으로 보았다. 연구결과로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 활동을 통해 지니게 되는 전문성으로 능전문성, 지전문성, 심전문성 세 가지로 나타났다.

가) 능전문성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를 통해 향상되는 교사들의 능전문성에는 ‘수업실행능력’, ‘운동수행능력’이 있다.

① 수업실행능력

연구 참여 교사들은 사전 개방형 설문 조사에서 체육교사의 전문성에 대해 1순위로 체육수업을 잘 하는 것으로 답을 하였다. 따라서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 활동을 통해 체육수업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체육수업 콘텐츠들에 대해 알기를 원하였다.

> 교과를 떠나서 **교사는 직업 자체가 수업에 가장 치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나 체육이라는 과목은 애들이 생각할 때 너무 당연히 자유 시간, 노는 시간 쉬는 시간으로 생각을 하고 오더라고요. 그걸 깨줄 수 있는 게 **조금 더 체계화되고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수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수업을 되게 강조하는 편입니다.
>
> (김성실 교사, 심층면담)

수업 전문성에서 수업실행 능력이란, 체육교사가 수업내용을 적절하게 계획하는 능력과 체육수업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교수법을 활용하는 능력을 총체적으로 포함한 용어이다(박준혁, 2022).

결과 1장에서 살펴보았듯이 각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에서는 여성체육교사들의 수업실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지금까지 많이 접해볼 수 없었던 뉴 스포츠 종목, 표현활동 수업 사례 나눔 등의 이러한 공동체 활동을 통해 다양한 수업 콘텐츠를 접하게 되고, 각자의 환경에 맞게 변형하여 적용시킴으로서 수업에 대한 교사의 걱정과 부담을 해결 할 수 있게 되었다.

> **저 이번에 겨울에 했던 댄스 연수에서 되게 감명 깊게 배워서 그것을 보고 바로 1학기 때 바로 적용했습니다**. 거기서 몸 표현하는 수업을 해 주셨거든요. 그걸 수행평가로 조금 다르게 해서 진행했어요. 학생들 반응도 너무 좋았고 학기 초에 하는 게 너무 적합했던 거 같아요.
>
> (전미래 교사, 심층면담)

> 저는 일단 ○클래스에서 배운 거 바로 수업에 썼고요. 학교 스포츠클럽에도 썼고요.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농구팀 활동도, 아이들 가르칠 때 방과 후 할 때. 스포츠클럽 때 바로 적용을 해서 사용을 한 경험이 있고...
>
> (홍사랑 교사, 심층면담)

연수 때 한 넷볼이랑 킨볼, 이렇게 수업에 적용을 했었는데요. **기본적으로 한번 해보면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알고 경기 방법이랑 규칙을 알게 되니까, 훨씬 수월**하고 거기에서 받은 자료를 제꺼로 변형해서 쓸 수 있으니까 확실히 수업 준비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백지장에서 시작하는 것보다는 훨씬 도움이 많이 됐어요.

(한미소 교사, 심층면담)

또한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가르칠 수 있는 내용교수지식에도 초점을 맞추어 활동이 진행되었다. 이를 통해 어떠한 순서로 가르치는 것이 좋은지, 어떠한 변형이 주어지면 좋은지 등에 대해 세심한 요소까지도 고려하게 되었다. 이러한 방식으로 직접 연구 참여 교사들이 체험하여 학생들에게 생생한 가르침이 전달될 수 있었다.

조행복 언니는 선수였기 때문에 농구에 관한 굉장히 많은 준비 운동과 리드업 게임이나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동호회하면서 한단 말이야. 그럼 그거를 가지고 나도 내가 농구 수업할 때 그대로 해. **나는 포지션 탑, 윙, 코너 이런 것도 몰랐는데 그런 거 경기할 때 알려주시면 애들한테도 그대로 알려주고 하고 레이업 슛 하는 거, 자유투 쏘는 이런 거 다 우리가 연습한 거 그냥 그대로 갖다 써도 전혀 수업에 무리가 없을 만큼 그냥 그대로 내가 배운 거 그냥 그대로 인식한 거 그렇게 해요.**
사실 우리가 다 초보잖아. 언니가 우리한테 어떻게 가르쳐줬을 때 '아' 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건 애들도 똑같을 거란 말이지 처음 배우는 애들은 그러니까 오히려 더 잘 인식해서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

(이의리 교사, 심층면담)

체육수업은 외적인 요소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데, 수업 공간, 기자재 등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능력도 공동체 활동을 통해 경험하고 배우게 되었다고 한다.

저는 작년 축구 연수를 배웠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축구수업을 할 때 직접적으로 배운 거를 사용 했어요. 거기서 배웠던 루틴 수업을 할 때, 스테이션을 할 때 어떻게 나눠야 하는지, 저희는 아무래도 수업 공간이 더 작고 운동장을 써도 원 코트 다 못 써요. 그래서 코트를 원래 코트에서 반을 나눠서 미니 골대를 사가지고 미니 골대 그거를 두고, 4분의 1로 또 어떻게 스테이션을 나눠서 사용할 지도 배워보고, 그리고 아무래도 여교사다 보니까 여학생들 가르칠 때 이 부분을 가르치면 훨씬 더 좋다는. 학습 단서들을 많이 얻는 것 같아요.

(이명랑 교사, 심층면담)

제가 수업에 대한 자신감이 생긴 후로 수업에 체계가 생기게 되었어요. 수업을 진행할 때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는데 농구공이 제가 연수 받을 때 크니까 저는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직접 경험해보니 학교에서는 농구공 구매할 때 작은 걸로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여학생들이 거부감을 적게 느끼더라고요.

(정솔선 교사, 심층면담)

② 운동수행능력

체육교사의 전문성으로 다양한 요소들이 있지만 운동수행능력은 체육의 핵심적인 요소로, 체육수업을 잘 하기 위해, 체육수업에서 다루는 종목에 대해 잘 알아야하고, 잘 할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수행 시범을 보여줄 수도 있고, 운동 능력을 바탕으로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연구 참여교사들은 운동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참여 교사들은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에 참여하면서 기존에 참가해왔던 연수, 학습공동체와는 다름을 이야기 하였다. 실기연수, 또는 다른 학습공동체에 참여하였을 때 불편했던 요소들이,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에서는 해소 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연수에 가서 기능적인 면이나, 체력적인 면이나 못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의자 갖고 와서 의자에 앉게 돼. 내가 연수를 희망해 갔지만 적극적으로 하기가 되게 어색하고 어려운 거죠. 그래서 **여자들끼리 모이면 조금 더 그런 성별의 차이가 조금 줄어들 수 있죠. 조금 덜 불편하고 더 덜 불편하고 조금 더 도전적일 수 있죠.**

(하인성 교사, 심층면담)

기존의 혼성 연수에서는 신체 능력 차이가 다양하여 수준을 고려하기가 어려웠고, 여성체육교사들의 인원이 적으므로 경기상황에서 제외되거나 적극적인 참여가 어려웠다. 하지만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 내에서는 여성들끼리만 활동함으로써 부끄러움 없이 본인의 수준에 맞게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다.

약간 어쨌든 그래도 남자 선생님과 여자 선생님과의 성별에 따른 실기 능력 차이가 있는데, 그 둘 다 구성원에 있다 보니까 이게 **애매한 난이도를 기준점을 애매하게 잡게 돼. 그러면 남자도 충족이 안 되고 여자도 충족이 안 되는 일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이의리 교사, 심층면담)

그냥 체육과 연수를 하면 항상 순서대로 줄을 서면 남자 선생님들이 쭉 서고 그 뒤에 줄 서서 순서대로 그냥 공을 던지거나 차거나 할 때도 항상 뒤에 줄 서 있고, 게임할 때 꼽사리고, 하는 그런 것만 연수를 봤다가 여기 여자체육교사 연구회 연수 너무 좋다. 그런 칭찬을 많이 해주세요.

(최책임 교사, 심층면담)

사실 실기 연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이제 막 졸업하신 젊은 선생님들이시거나 남자 선생님들이 같이 있으면 약간 쫄리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더라고요. 특정 종목은 제가 자신 있게 할 수 있지만 또 구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약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거를 배우려고 한두 번 갔었는데, 뭔가 뭐야 약간 체육 교사인데 저거밖에 안 돼 약간 이런 느낌을 가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도 사실 있었던 것 같아요.

(정솔선 교사, 심층면담)

이를 통해 실기기능과 지도법 능력이 향상될 수 있었고, 다양한 종목들을 접해보면서 저변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실기기능에서부터 경기까지 경험을 함으로써 운동수행 능력에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고 체육수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하였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냥 체육 모임이니까 실기 기능, 지도법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보지 못한 것들을 경험하고 그런 능력들이 향상된 거**

(이의리 교사, 심층면담)

그리고 자신감이 좀 많이 생겨요. 좀 다양한 종목들을 많이 저변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좀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좀 생기고

(이열정 교사, 심층면담)

저는 이번에 농구를 이제 맨날 하는 드리블, 패스 이런 거만 배울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경기를 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실제로 경기를 하면서 엄청 스스로 뿌듯하고** 제가 스스로 아이들한테 그렇게 하면서 한계를 자꾸 뒀구나. 이런 생각에서 좀 깨달음을 얻는 시간이었어요.

(정도전 교사, 심층면담)

학교에서 가르치면 내 안에 인풋이 자꾸 빠져나가는 기분이 드는데 같이 이렇게 한번 연수를 듣고 모이면 같이 채워지는 느낌이 나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어떻게 보면 넷볼이나 뉴스포츠, 추크볼, 티볼, 얼티미트 이런 것들, 중고등학교 때는 한 번도 배워보지 못한 종목인데, 근데 갑자기 우리는 가르쳐야 하는 입장이 되다보니까 그러면 제일 먼저 찾아보는 게 유튜브거든요. 내가 해보지는 않았지만 눈으로라도 봐서 익혀야 되니까. 근데 그거를 공동체에 가면 채워져요. **내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넷볼이라든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킨볼 이런 걸 가서 배울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채워지고…**

(이명랑 교사, 심층면담)

나) 지전문성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를 통해 지니게 되는 지전문성에는 ‘수업평가지식’, ‘체육교과지식’, ‘업무수행지식’이 있었다.

① 수업평가지식

체육은 다른 교과와 달리 무엇을 평가하고,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중요해서 다양한 평가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심동적, 인지적, 정의적 영역과 같이 평가해야하는 영역이 광범위하고, 바람직한 평가를 위해 교육과정, 교수학습 과정과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

현장에서 많은 체육교사들은 수업 내용에 관한 고민뿐만 아니라 체육평가도 어려워하는 부분일 것이다. 참여교사들은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에서 평가와 관련된 다양한 자료와 의견을 공유하였다. 실기연수, 다양한 프로그램 활동 안에서 수업 지도 계획안, 평가와 관련된 부분도 언급하며 서로 좋은 의견을 나누기도 하였다. 프로그램 활동 외에 교사들과의 대화를 통해서도 체육수업과 관련한 정보를 주고받기도 하였다.

내가 활동을 통해서 수업 관련한 다양한 이야기를 듣는 자체가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너는 요즘 무슨 수업해? 그러면 평가는 그러면 어떻게 해? 평가 이렇게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알려줘 하고. 플로어볼 수업해? 그러면 평가 좀 공유해줘. 하면 자료 토대로 나도 진행해보고. 공식적으로 연수를 받은 건 아니지만 자료 공유하고 이런 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 보거든요.

(조행복 교사, 심층면담)

오프라인 대면 연수뿐만 아니라 온라인 연수, SNS,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서도 정보공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서 체육수업 내용들이 공유되고, 수업을 위한 기자재 활용 안내의 내용들이 공유되어 바로바로 피드백을 얻을 수 있는 효과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 체육평가 관련해서 우리는 리그전을 해서 평가를 해도 점수배율이 낮으니까 한번 평가를 해보고 싶다 얘기를 했더니, 그럼 모둠 평가가 되는데, 참여가 제대로 안 되거나, 리그전에서 1등하면 그 전체가 똑같은 것이 불합리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거에요. 어떻게 이 고민을 해결해야 될지 몰라서 도움을 요청한거죠. 이런 상황인데 **다른 선생님들은 어떻게 평가를 하시고, 해결하셨는지 궁금하다 하면, 선생님들의 얘기를 또 다 해주셔서 도움을 받기도 하고**...
>
> (이명랑 교사, 심층면담)

정솔선 교사는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에서 연수를 진행하면서, 수업을 준비하는 과정, 수업 후 참여교사들의 피드백과 질문들을 나누는 과정을 통해 알려주는 입장임에도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어서 지전문성을 향상시켰다고 하였다.

> 처음에 저희가 상반기 연수했을 때, 제가 사실 치어리딩 쪽으로 심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좀 자신이 있어서 이제 첫 저의 대면 연수이기도 했고 해서 치어리딩 수업을 진행을 했었어요. **연수 진행을 하면서도 좀 제가 얻었던 게 선생님들께서 그 평가 기준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해주시면서 평가 기준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다듬을 수 있는 기회였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확실히 선생님들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이럴 때 어떻게 하냐라는 질문을 해 주시면서 **조금 더 이제 전문성이 좀 높아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
> (정솔선 교사, 심층면담)

② 체육교과 지식

체육과 내용교수지식(Pedagogical Content Knowledge)에서 체육교사는 학문으로서의 체육학이 추구해야하는 지향점과 특성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어야 하며, 우리나라 학교교육 체계 속에서 체육교과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지식도 습득하고 있어야 한다(유정애, 최승현, 2007). 또한 체육교

사 자격기준(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6)에 따르면 체육교사는 '체육교과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는다.'고 언급하였다. 세부내용으로 체육교사는 체육교과에 대해 이론적 지식, 실기능력, 체육학적 지식 등을 갖춰야 함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지식뿐만 아니라 스포츠에 관련한 다양한 차원을 하고, 알고, 느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에서는 이러한 체육교과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다. 여성체육교사들은 2022개정교육과정 연수, 운동기술발달과 관련한 특강 등을 통해 체육교과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

그림 13. 체육교과 지식 관련 프로그램

> 저는 체육교사의 전문성으로 교육과정을 잘 구현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학습자 중심, 학습과 삶이 연계가 되고 전인이 되고, 이런 이상적인 문서수준상의 교육과정을 이제 학교 수준으로, 교사 수준으로 가져오는 게 체육교사의 전문성이라고 요즘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러한 점에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생각도 들고
>
> (홍사랑교사, 심층면담)

최의창(2018)은 진정한 스포츠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해당 운동의 문화에 입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체육교사가 이러한 스포츠문화와 관련된 지식을 지니게 된다면 학생들을 지도할 때

스포츠에 관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을 것이다.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들은 스포츠를 올바로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고 있었다.

> 그다음에 요즘에 조금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아무래도 융합 수업이다보니까 **스포츠랑 보훈 교육의 만남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했던 부분이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스포츠역사에 대해서 알게 됐고, 수업시간에 활용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았어요.
>
> (정솔선 교사, 심층면담)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들은 다양한 경로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였는데 스포츠 협회들과의 연결로 서로 상부상조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하였다. '원더풀 공동체'는 농구 연수뿐만 아니라 농구경기를 관람하고 이벤트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여 여성체육교사들에게 스포츠 관람에 대한 즐겁고,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었다.

> 저는 이번 겨울방학이었던 것 같은데 WKBL에서 농구 선수출신 선생님들께서 와서 저희를 직접 가르쳐주시는 거였는데 그때 너무 재미있게 했어요.
> 실제 프로 선수분들이 와서 하는 것도 특별하잖아요. 평생에 볼 수 없는 선수들 어떻게 국가대표 감독님이시고 했었고 부산 그 여자 프로 감독님도 오시고 은퇴한 지 얼마 안 되신 김보민 선수도 오셔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칠 때 어떤 부분을 알려줘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수업 때 할 수 있는 아이들의 살짝 재미 요소와 경쟁 요소를 함께해서 알려주셨어요.
>
> (이명랑 교사, 심층면담)

> 연락이 와가지고 국가대표 평가전 초청으로 저희를 이제 체육교사 모임을 초청하겠다고 해서 이벤트랑 전광판에 그런 걸 해주잖아요. 그런 걸 해주겠다고 해서 이제 의견을 받았죠.
>
> (이열정 교사, 심층면담)

③ 업무수행지식

업무수행지식이란 체육교사가 체육과 업무, 학교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을 일컫는다.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에서는 신규교사부터 경력교사까지 각자에게 필요한 업무관련 지식을 다양한 방식으로 습득할

수 있었다.

먼저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에서의 연수와 공동체 모임 활동 등을 통해서 다양한 체육과 업무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였다. ‘나이스 공동체’는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체육대회 업무 준비 등과 관련해서 온라인으로 참여한 교사들의 궁금한 점, 어려움 등을 들어보고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였다. 또한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서로간의 대화를 통해 학교 행정업무의 다양한 아이디어와 해결방법을 익히게 되었다. 조행복 교사는 공동체에서 다른 교사들과의 대화를 통해 알게 된 부분들을 다음에 적용해 보고자 하였고,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보기 어려웠던 것을 공동체 메신저 방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 나누며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였다.

그림 14. ‘나이스 공동체’ 프로그램

> 사랑 선생님 같은 경우도 자기가 요번에 지역 학생부 예산을 얼마에 가져와서 강아지들을 훈련시키는 프로그램을 갖고 와서 아이들을 이제 직업 체험 정서 치료 프로그램 이런 걸 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거 너무 훌륭하잖아. **나도 다음에 이런 거 있으면 참고해서 해보려고 해.**
>
> (조행복 교사, 심층면담)

> 그 리더십 캠프 귀신의 집 담력 훈련을 꾸밀 때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봤잖아 그 우리 톡에, 그런 거를 사실 전국 체육교사 단톡방에는 못 물어볼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는 약간 우리만 약간 그런 유대감이 있으니까 좀 쉽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행정적인 거 이런 것도 편하게 좀 물어볼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도 물어볼 수도 있고 그런 거 그런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이의리 교사, 심층면담)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에 참여함으로써 알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운영하면서 계획운영서, 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를 통해서도 배울 수 있음을 이야기 하였다. 또한 운영진들은 경력교사의 업무처리 과정을 옆에서 직접 보면서 역량을 키워나가기도 하였다.

회장님이 일을 되게 열심히 하시고 잘하시는 편인데 그걸 바로 옆에서 보고 배우다 보니까 정말 간단하게는 문서 작성하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일을 기획하고 그걸 실제로 운영하는 그 작은 세세한 것들을 바로 옆에서 볼 수 있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게 너무 많이 배우고 제가 그걸 또 응용해서 좀 더 성장할 수 있고 이런 게 기억이 계속 남는 것 같아요.

(김성실 교사, 심층면담)

올해 신규 선생님께서 이제 아이들 연습을 더 하고 싶은데 이제 주말에 체육관 개방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자 선생님께서 조금 걱정을 하신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을 때 관리자분들이 약간 이렇게 마음의 문을 조금 열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화법, 방법 이런 것들을 그냥 간단간단하게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그거는 정말 겪어보고 경험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들이 사실 그러니까 업무 처리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정보를 얻었던 것 같아요.

(정솔선 교사, 심층면담)

다) **심전문성**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를 통해 지니게 되는 심전문성에는 ‘수업자신감’, ‘체육 열정 ’, ‘성찰과 반성’이 있었다.

① **수업자신감**

수업 자신감이란, 교사가 수업을 계획, 운영, 평가하는데 있어서 잘 할 수 있다는 감정, 태도로 교과지도에 대한 교사의 높은 자신감은 교육 활동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박현진, 신혜원, 2006). 연구 참여 교사들은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를 통해 수업에 대한 자신감이 향상되었다고 하였다.

> 배워서 일단 실기 능력이 좀 받침이 되니까, 어떤 수업에 대한 전문성도 좀 생기고보니까 이렇게 처음에는 이 활동을 하기 전에 농구에 있어서 내가 남자애들, 고등학생 남자애들을 가르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었는데, **활동하고 나서는 나도 잘 가르칠 수 있겠구나 그런 자신감이 생겼어요**.
>
> (이의리 교사, 심층면담)

> 이렇게 1회, 2회 가다 보니까 괜찮겠는데 이렇게 친구들한테도 **내가 이 정도의 실력으로 이렇게 연습시키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 수업에 대한 자신감**도 사실 생겼어요.
>
> (정도전 교사, 심층면담)

> 저희 연수가, **연수 끝나면 피드백을 꼭 받는 시스템**인데, 저는 그걸 막 여러 번 다시 읽어봐요. 그중에 기억에 남는 게 이것저것 있는데, 약간 그런 종류였던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진입장벽이 느껴지고 두려웠는데 같이 하니까 괜찮았고 나도 수업을 할 자신감이 생기고, 또 그런 흐름인데 그런 게 가장 기억에 남아요.
>
> (홍사랑 교사, 심층면담)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에서 여성체육교사들은 실기 종목을 직접 체험해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기능 습득을 하고, 수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동시에 얻게 되어 잘 가르칠 수 있겠다는 희망과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 공동체를 운영하는 교사들도 연수가 끝나고 참여교사들의 후기를 통해 자신이 수업을 해온 것과 연수 프로그램에 대한 피드백을 받았다. 이러한 단계를 통해 더욱 자신감을 얻게 됨을 보여주었다.

② 체육 열정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에 참여한 교사들은 활동을 통해서 활기를 얻을 수 있었고, 식어가던 자신의 열정을 다시 높일 수 있었다고 했다. 공동체 활동을 통한 생긴 열정은 자신의 배움에 대한 열정, 그리고 수업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열정으로 퍼져나갔다. 먼저 자신의 배움에 대한 열정으로, 지금까지 교사로서 가르치던 입장에서 배우는 입장으로 서게 되면서 다양한

체험을 통해 자신의 개별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이러한 경험으로 자신감과 즐거움을 경험한 후 다른 배움으로까지 이어져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 **선생님들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자 하고, 하고 싶은 게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듣고 싶은 게 생기고, 해보고 싶은 게 생기고 이런 건 왜 없어요? 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배구 언제 만드냐고, 댄스 언제 만드냐고, 결국은 그렇게 되고 있고 이것뿐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외형적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그냥 내면적으로도 저랑 비슷하게 느끼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
> (홍사랑 교사, 심층면담)

> 저는 방학 때 공동체 회원 분들을 거의 한 명씩 만나보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언니들이 하시는 말씀이 축구를 안 했으면 나는 그냥 학교에서 똑같은 포지션으로 똑같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을 것 같다고, 근데 지금은 축구를 계기로 내가 기량이 좀 향상되니까 이것도 배우고 싶고 저것도 배우고 싶고 레슨을 막 4개를 하는 거에요. **선생님들이 할 수 있다는 그런 게 몸에 딱 들어오면서 다들 체육 수업에 임하는 자세 자체가, '기존에 해왔던 거 하지' 여기에서 약간 전투적으로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건 다 할 수 있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다들 많이 바뀌신 것 같더라고요.**
>
> (이열정 교사, 심층면담)

또한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 활동을 통해 수업에 대한 열정도 상승하게 되었다. 업무 시간 이외에도 수업,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 등과 관련하여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하고 시간을 할애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미소 교사는 공동체에서 수업 연구뿐만 아니라 체육교사로서 학생들에게 어떠한 신체활동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고 실행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을 얻게 되었다.

> **처음으로 좀 교육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게 된 것 같아요**. 공동체에서 서로 얘기를 나누면서 시각을 넓히다 보니까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생각해 보면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다 할 수도 있는 게 체육 교사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그때 들은 것 같아요. **이 공동체를 계기로 뭔가 꼭 수업만 이렇게 연구를 하는 게 아니라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도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건강체력교실 운영, 이런 부분도 내가 어떻게 애들을 좀 더 운동을 시킬 수 있나 신체 활동을 좀 증가시킬 수 있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이제 혼자 고민을 많이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
> (한미소 교사, 심층면담)

③ 성찰과 반성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는 참여 교사들의 심전문성 중 성찰 측면의 전문성을 증진하는데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 교사들은 자신의 삶이 공동체를 통해 변하였음을 이야기하였다.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매너리즘은 교사의 성장에 있어서 극복해야할 요소이다. 공동체에서 다른 선생님들을 통해 이러한 매너리즘을 극복하게 되고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만남이 꾸준한 자극제가 되었다고 하였다.

> 교사가 3,6,9로 슬럼프가 온대요. 3년, 6년, 9년, 13년, 16년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하는 일이나 수업이 한계가 있잖아요. 돌다 보면 몇 년 주기로 거의 하는 일이 다 그 일이 그 일이고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사실 슬럼프가 왔었는데, **연구회를 하면서 다시 리셋 되는 기분이에요**. 다시 신규가 된 것 같고,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하는데 이걸 하면서 좀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이렇게 열심히 하는지 보면서 깨우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
> (최책임 교사, 심층면담)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에는 경력과 경험이 다양한 선생님들이 모이게 된다. 평소 주변에서 잘 만나볼 수 없던 경력 있는 여성체육교사의 모습을 보며 저경력 교사들은 자신의 미래를 그려보았다. 경력교사들은 저경력 교사들의 모습을 보며 자신도 그랬었을 과거의 모습을 회상하기도 하였다. 공동체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과거의 모습부터 미래의 모습까지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 신규 선생님부터 경력 오래되신 하늘같은 선배님들도 계시고, 그런 거 보면서 느끼는 점들이 **이제 여자고 이제 신체 나이가 많이 들었다 해도 저렇게 연구하고 연습하는 분들 보면 또 연륜을 무시를 못하더라고요**. 다 잘하셔요. 그래서 **저렇게 나태해지지 말고 계속 연구하고 노력하는 선생님이 돼야겠다. 이런 생각이 그분들을 보면서 반성하게 되고 감동도 받고 그런 자리인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즐거워요.
>
> (정도전 교사, 심층면담)

> 그건 있어요. 제가 만약에 교사를 만약에 꾸준히 한다면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저분들처럼 될 수 있을까? 진짜 내가 저 나이가 됐을 때도, 매일 육아 시간을 쪼개서 축구 하고 배드민턴 하러 가고 그러면서 수업도 알차고, 업

무도 확실하게 하시는 **선생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용기도 얻고, 뭔가 그렇게 해야겠다는 다짐도 계속 꾸준히 자극제가 되는 것 같아요.**

(이명랑 교사, 심층면담)

전미래 교사는 학교에서 체육교사에 대한 이미지로 인해 여성체육교사들에 대한 낮은 기대감을 경험하였다. 학교에서 여성체육교사로서 정체성이 혼란스러웠던 전미래 교사는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 활동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었다. 그리고 자신의 수업에 대한 성찰과정을 거쳐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앞으로 체육교사로 어떻게 살아가야하는지에 대한 것까지 확장되어 혼란스러웠던 정체성이 점차 체계화되고 자리를 잡아가게 되었다.

체육 선생님들이 원래 궂은 일 도맡아서 하는데, 남자 선생님들이 주로 하고, 나서서 애들을 잡아주거나 생활지도 하는데 통솔해서 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기대하는데 **여자면 못할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 체육 선생님들이 더 혼자 있으니까 위축되고 외롭게 뭔가 수업 개발하기가 힘들고 그러니까 소통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게 어쨌든 **저희가 뭉쳐서 같이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체육 교사라는 정체성을 더 많이 체계화할 수 있는 모임**이 되는 것 같아요.

(전미래 교사, 심층면담)

체육 교사라는 정체성을 더 깊게 해준 공동체에요. 왜냐하면 저는, 체육교사로서 이 체육 교육 현장에서 살아가기에 되게 안 맞고, 아쉽고 그런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공동체에서 만난 선생님들과 이런 에너지들을 공유하면서 발전적인 미래를 꿈꾸게 하는 그런 현장이 되다보니까 여기에서도 충분히 내가 성장할 수 있고 충분히 좋은 동료들과 함께 나아갈 수 있겠구나** 하는 약간 미래를 제시해준 그런 곳입니다.

(전미래 교사, 심층면담)

홍사랑 교사는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 활동을 통해 자신의 학교생활에 대한 성찰과 사고방식에 대한 확장을 가지게 되었다. 그동안 체육수업에 대한 고민과 학생에 대해서만 생각을 했었다면, 공동체 활동 후에는 그것뿐만 아니라 학교 전체, 학생들의 스포츠 활동 전체, 교사의 삶 전체를 생각해보았다고 하였다. 또한 처음에는 회의적이고 힘들게만 생각했던 교직생활이 여성체육교사들이 함께 같이 한다면 더욱 힘을 얻어 오래 행복하게 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냥 바로 앞에 것만 보고, 바로 내일 수업, 이번 주, 이번 학기 수업, 올해 애들, 이 정도만 보였다면, **지금 제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내가 교사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가야 할 것인가, 혼자 가는 게 아니라 함께 가는 삶을 그리게 된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냥 그래 나 혼자 교사 하는 거고 내 수업이고, 내 학교 이렇게 하니까 당장 그만두고 뭐 별 그런 게 없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학교 전학 가면 약간 아쉽거나 함부로 하지 않듯이 같이 친구들이 있는데, 좀 더 다닐 수 있게 오래 갈 수 있겠다?

(홍사랑 교사, 심층면담)

이상으로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 활동을 통해 지니게 되는 체육교사 전문성을 능전문성, 지전문성, 심전문성 세 가지 차원에서 살펴보았다. 사전개방형 설문조사를 통해 연구 참여 여성체육교사들은 체육교사의 전문성 중 '능전문성'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향상되는 능전문성 중에서도 운동수행능력 향상에 있어서 여성체육교사들의 만족도가 높고 긍정적인 측면이 나타남을 확실하게 볼 수 있었다. 연구 참여 여성체육교사들은 이러한 결과를 통해 '능전문성'과 '지전문성'의 향상을 통해 '심전문성'의 발달도 같이 향상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2) **체육교사 리더십**

교사리더십은 교사의 지도적 자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자질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특징을 지닌 요소이다. 따라서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Katzenmeyer & Moller, 2009). 기존의 교사리더십 개념들을 종합하여 김병찬(2015)은 교사리더십이 가지는 고유한 특성을 목표지향성, 과업주도성, 공동체성, 전문성으로 파악하였다. 따라서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 참여를 통해 발휘하게 되는 리더십을 4가지 속성에 따라 분석을 할 것이다.

표 18. 교사 리더십 속성별 요소 (김병찬, 2019)

속성	관련요소
목표지향성	긍정적 사고, 명확한 비전과 목표, 전략개발 및 관리능력, 동기부여
과업주도성	적극성, 열정성, 책임감, 도전성, 창의성, 추진력, 의사결정력
공동체성	협동성, 배려 및 상호존중 의사소통, 다양성의 인정
전문성	전문적 지식, 숙련성, 방법적인 모범 구성원 이해, 팀워크 형성 역량

가) **목표지향성**

목표지향성이란 교육목표 달성을 위해 교사가 학교나 학급에서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자신 및 주변인에게 이를 달성하기 위한 동기를 부여하는 성향이라고 할 수 있다(김연경, 2020).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에 참여하는 교사들은 자신의 수업의 변화에서부터 시작하여, 공동체, 더 크게는 사회적으로까지 여성체육교사들의 활동을 알리고,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키고자 하였다.

홍사랑 교사는 여성체육교사들이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제공하였고, SNS에 널리 퍼트리기를 희망하였다. 또한 초신성 공동체는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공지사항, 활동소개 등을 지속적으로 업로드 하였다. 이를 통해 여성체육교사들이 스포츠를 즐기고, 체육수업 연구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널리 알리고 싶다고 하였다.

> 사진 찍은거를 선생님들께 드리면 선생님들이 수업 때 쓰거나 sns에 올리시는데, 저는 일단 그런 걸 바래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삶 속에서 스포츠를 즐기고 있고 체육을 즐기고 있고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연구하고 있다는 걸 아이들이나 주변에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

희가 하는 활동들 중에 이제 sns나 홈페이지 같은 것도 우리의 활동을 계속 업데이트를 하는데 그 이유도 **여성 교원들이 이렇게 열심히 체육을 위해서 연구하고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꿈틀꿈틀거린다는 것을 외부에다가 알리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홍사랑 교사, 심층면담)

최책임 교사는 연구회 활동을 알림으로써 여성체육교사에 대한 시각이 긍정적으로 변해가고 있음을 실제로 느꼈다고 하였다. 또한 조행복 교사도 여성체육교사들의 활동을 통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음을 이야기 하였고, 이를 통해 공동체 활동에 다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했다.

처음에는 막연한 편견이라고 하면, 지금은 저희가 연구회를 하면서 각 학교로 공문도 자주 보내고, 뭔가 활동한다는 홍보를 나름대로 많이 하고 있어요. **여자 선생님도 이렇게 일을 잘할 수 있고 열심히 한다는 그런 부분이 충분히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느껴지게 된 것 같아요.** 그런 얘기 주변에서도 많이 듣고, 시각이 조금은 긍정적으로 변하지 않았나. 이런 일을 함으로 인해서.

(최책임 교사, 심층면담)

이제 이름을 조금 알리고 싶은 욕심이 살짝 있긴 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렇게 잘 하고 있습니다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을 알린다는 건 이제 여자 체육 교사의 활동을 알리는 거잖아. 그렇게 된다면 조금 더 또 큰 영향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우리가 즐겁게 함께 하는 게 주고 거기에서 부수적으로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더 자신감과 즐거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거지**.

(조행복 교사, 심층면담)

그동안 여성체육교사들은 본인이 열심히 하고, 수업과 업무를 잘 하여도 드러내지 않았고, 소수임에 잘 알려지지 않았었다.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는 열정적이고 창의적인 여교사들을 발굴하고, 끼와 능력을 펼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며, 앞으로도 더욱 그러한 기회를 마련해주어야 한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 여성체육교사들은 혼자가 아니라 주변에 많은 여성체육교사들이 노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서로에게 성장에 대한 자극과 동기를 제공하여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자극제가 될 수 있다. 홍사랑 교사는 '초신성 공동체'에서 활동하는 여성체육교사들을 통해 동기부여를 제공하고 싶어 하였다.

스타 남자 선생님들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여자 선생님들을 찾으려고 그러면 잘 없어요. 다들 이제 그걸 드러내지 않아요. **분명히 어디선가 자신의 위치에서 열심히 그리고 열정적으로 잘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잘 피알(PR) 하지 않거든요**. 근데 저는 그 피알을 해야지 그걸 보고 다른 사람들도 따라하고 혹은 내가 외롭지 않고 나 혼자가 아니다라는 동지애나 연대의식 같은 걸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우리를 보는 사람들도 저 선생님은 정말 열정적이고 체육을 위해서 이렇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다. 아이들도 우리를 보고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게끔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홍사랑 교사, 심층면담)

이의리 교사는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 활동을 통해 자신의 수업에 대해 자신감을 얻어 더욱 열심히 하게 되었고, 그 결과 학교에서 체육교과의 위상이 달라졌다고 말하였다. 따라서 체육교사의 노력으로 체육수업을 바꿀 수 있고 결국은 체육교과의 중요성과 위상을 높이는 일로 연결됨을 깨닫게 된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 어떤 사태들이 있었냐면 그 선택 교육과정 때문에 거의 모든 학교에서 시수를 줄였잖아. 우리는 심지어 어떻게 요구를 했냐면 2학년에서 줄이라고 그랬어요. 어차피 3학년 애들은 이제 입시 여기는 입시 위주 학교니까, 2학년도 1단위를 줄이라고 모든 과목 선생님들이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수업을 그렇게 운동장에서 빡세게 하고 애들이 좋아하고 막 환호하고 열심히 하는 거를 한 학기 내내 보였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나는 수업을 할 수 없고 수행 평가할 수 없고 그냥 숫자로만 양적 평가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완전히 내가 하고자 하는 체육 교과의 본질이라고는 전혀 도달할 수 없다 이걸 자신감 있게 주장할 수가 있잖아. 그래서 교장선생님이 더 말씀을 안 하셨어요.

(이의리 교사, 심층면담)

나) **공동체성**

리더십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집단이나 공동체 속에서 발휘되어진다. 따라서 교사리더십의 공동체성은 교육목표 달성을 위해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구성원들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열정 교사는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에서 활동을 기록으로 남기고, 그러한 자료를 또 회원들과 공유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자신이 직접 배웠던 부분을 수업에 적용해보고 좋았던 점, 부족했던 점을 통해 기록하고, 다른 교사들과 공유하여 더 나은 수업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강사 분들이 알려주시면 그걸 동영상을 찍잖아요. 그걸 동영상 찍고 저는 다음 학기에 수업을 바로 했거든요. 그거를 하면서 제가 선별 작업을 또 중간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체크해서 애들이 하는 걸 또 영상을 다 찍고 편집해서 올려주면 또 그걸 보고 이제 하고 그리고 계획서 평가계획서도 해보니까, 이건 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하지 마세요. 해보니까 이건 좋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선별 작업을 하기 위해서 제가 먼저 시도를 해보고 있죠.
제가 지금 에듀테크 쪽으로 또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콘텐츠 개발 위원이나 이런 것들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축구나 우리가 연수 때 배웠던 거를 자료들로 제작을 해가지고 선생님들이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거까지 연계를 이제 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이열정 교사, 심층면담)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를 통해 알게 된 교사들끼리도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결국은 학생들에게까지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교사들끼리 서로 연락을 하여 친선경기를 주도 하기도 하였다.

수업을 할 때 이제 배구를 하면 배구 팀이 생겨나고 특별히 더 관심이 있는 아이들 배구 팀이 생겨나고 학교에 인맥이 많이 생기니까 그 학교에 배구하더라 하면 친선 경기가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우리 학교 애들끼리 하고 혹은 무슨 정해진 대회가 있을 때만 외부 학교 다른 학교랑 이제 기회가 됐다면, 지금은 우리끼리 그냥 밥 먹다가 '선생님네 배구해요?' 하면은 '그냥 한번 모입시다.' 해서 그런 게 되게 수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 지도나 수업에 있어서 활용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공동체를 통해서, 학교에 주 스포츠 팀이 뭐고, 이렇게 알게 되니까 훨씬 더 업무적으로도 그렇고 수업적으로도 그렇고 뻗어나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최책임 교사, 심층면담)

교류전 같은 경우에도 공동체 선생님들한테 여쭤보고 저희 이제 넷볼 처음 만들었는데 교류전 한번 해주시면 안 되냐 이렇게 해서, 저는 제주도에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넘버원 공동체 선생님들이 우리 한번 하자 이렇게 도와주시고 자기랑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주셔서 큰 도움을 받고 있어요.

(이명랑 교사, 심층면담)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에는 다양한 지역, 경력, 나이대의 교사들이 참여하기에 더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고 더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게 되었다. 이의리 교사와, 하인성 교사는 다양한 지역의 교사들의 의견을 통해 생각지도 못했던 아이디어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얻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 학교 선생님 저 학교 선생님, 평촌 선생님, 성남 선생님 여러 지역 학교 선생님들이 모이니까 다 다른 환경, 다른 애들 뭐 이런 조건에서 만나서 하나를 얘기를 하니까 되게 생각지도 못했던 아이디어들도 나오고 해결책도 나오고 이럴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의리 교사, 심층면담)

이제 전국적으로 선생님들을 알게 되니까 저의 이제 활동 바운더리라고 해가지고 이런 영역이 전국 단위가 되다보니까 조금 더 바빠진 거예요. 넓어져 그만큼 배움도 커졌고요.

(하인성 교사, 심층면담)

이명랑 교사는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에서 신규교사부터 고경력 교사까지 함께할 수 있어서 서로에게 배우는 것들이 많이 있음을 이야기하였다. 저경력 교사들도 교직생활에 있어서 궁금한 점들을 물어볼 수 있고,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왜냐하면 지금 회장님을 맡고 계신 선생님은 40대 중후반이시고, 50대 선생님도 계시고, 제일 막내선생님은 98년생까지, **모든 세대가 어우러지는 게 느껴져서, 연륜도 있지만 되게 패기도 있고, 뭔가 서로의 생각도 나눌 수도**, 제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어떨까요 하면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그 아이디가 너무 좋으니 한번 시도도 해서 이게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공동체. 선생님들은 더 아우를 수 있는 시각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이 많다보니까 큰 그릇 같아요.**

(이명랑 교사, 심층면담)

다) **과업주도성**

리더는 조직원들을 이끌어가는 사람으로 과업수행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과업주도성은 구성원의 행동을 격려하며,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과업을 적극적으로 주도해 나가는 리더십의 속성으로 볼 수 있다(김병찬, 2019). 공동체 운영교사들과 참여교사들은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에서의 활동을 통해 학교에서 리더가 되기 위한 자질을 기를 수 있었음을 이야기 하였다.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 운영 교사들은 연수프로그램, 모임 활동 등에서

참여 교사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고, 참여를 촉진시키는 퍼실리테이터로서의 역량과 책임감을 가지게 되었다. 조행복 교사는 '손잡고 정년까지' 함께하는 것을 희망하며, 공동체에서 리더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참여교사들의 안부를 묻거나 힘들어하는 부분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지속적으로 연결고리를 이어나가고자 노력하였다.

> **내가 버텨야 된다는 책임감, 그거는 느끼는 것 같아. 내가 손잡고 정년까지 하고 그러니 이제 진짜 가야 될 것 같은 거야. 그런 건 느끼는 것 같고.** 그리고 우리 팀, 친구들이 그냥 즐겁게 학교생활 할 수 있게 지켜봐야 된다는 생각을 자꾸 해. 솔직히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나의 역할은 가끔 그 친구한테 전화해서 잘 지내니, 많이 힘드니, 한번 나와야지, 이런 얘기를 하거든. 그리고 실제로 나오고 싶은데 못 나오는 사람들한테도 가끔 문자해서 언제든 편하게 오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역할을 내가 하고 있으니 거기에 대한 책임감은 좀 있는 것 같아.**
>
> (조행복 교사, 심층면담)

전미래 교사는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를 구축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이러한 활동을 통해 퍼실리테이터의 역량을 기르는데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공동체를 운영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연수를 계획하고, 관리하는 일 등이 학교에서의 업무와 수업 상황에서 도움이 되는 것을 발견하였다.

> 저희가 살아가면서 이제 사회적 역량도 굉장히 중요한데, **리더십 스킬도 이런 단체를 운영하면서 향상돼 있고,** 이게 정말 단적으로 보더라도 저희가 공동체를 운영하면서 시스템을 만들고, 연수를 한번 운영을 해보면서 만들었던 그런 역할을 지정해주거나 분담하는 것들이 저희가 수업을 할 때 학생들이 조별로 뭔가 활동할 때 이런 것들을 관리해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해보지 않은 선생님들은 학생들 조 활동을 어떻게 시켜야 되는지도 모를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해보면서 경험을 하니까 훨씬 이런 퍼실리테이터적인 그런 역량이 되게 많이 길러지는 것 같아요.**
>
> (전미래 교사, 심층면담)

라) **전문성**

교육은 다차원적이고 고차원적으로 발생하는 복잡한 과정이므로 학생, 학부모, 학급운영 등 관련 분야의 일에 전문적 지식, 유능함이 필요하다(김병찬, 2019). 교사라는 직업은 전문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이에 따른 리더십 발휘도 어려울 것이다. 교사들이 지닌 전문적 지식과 유능함 등은 학생, 동료 교사,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참여교사들은 유능한 교사, 열정적인 교사를 보면서 자신의 교직 롤 모델로 삼기도 하였다. 조행복 교사는 여성체육교사들이 주변에 많이 없었고, 만날 기회가 없었으며, 고경력자 교사들을 만나기도 어려웠다고 하였다. 정솔선 교사의 면담내용을 통해 공동체에서 고경력의 여성체육교사들이 열심히 자기계발, 수업개발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롤모델로 삼거나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았음을 알 수 있었다.

> 일선에서 뛰는 선생님을 거의 본 적이 없는 거지. 근데 **그들에게 우리의 존재는 되게 미래가 될 수 있는 것 같아.** 체육을 잘했는데 저렇게 사람이 저렇게 살 수도 있구나 여자가. 내가 40을 돼도 농구를 할 수 있는걸 보여주는 것 자체가 되게 큰 것 같아. 그것도 일선에서, 그래서 **그 자체가 우리는 되게 큰 롤 모델이 아닐까 싶어.**
>
> (조행복 교사, 심층면담)

> 대면연수 하면서 그렇게 10년, 15년이 되어도 선생님들께서 수업 전문성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시고 시기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더 발전을 하시려고 계속 노력을 하시는구나 이런걸 보면서 많이 느꼈었거든요.**
>
> (정솔선 교사, 심층면담)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 활동을 통한 참여교사들의 변화는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다른 교사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기도 하였다. 이명랑 교사는 공동체에서의 긍정적인 결과들이 자신을 통해 동료교사, 학생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통로기관'으로 표현하였다.

옆 자리에 앉아 계신 남자 체육 선생님이 있는데 본인은 부럽다고까지 이렇게 하셨어요. '선생님 오늘 어디가' 이러면, '저 오늘 연수 가니까 일찍 퇴근해요.' 이러고 갈 때가 있는데 그다음 날 저희가 배운 거 같이 얘기하거든요. 주변 선생님께는 당연히 영향이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뭔가 통로 기관인 것 같아요. 여기서 나오는 것들 받아서 나를 거쳐서 가는 거죠. 학생들한테도, 선생님들한테도 가고.** 그래서 잘 배워서, 많이 배우려고 생각을 하고 가는 거 같아요. 마음을. 그래야 정확하게 전달을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되게 많이 도움을 얻고 있어요.

(이명랑 교사, 심층면담)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를 통한 여성체육교사들의 전문성 향상은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여학생들 또한 여성체육교사들의 열정적인 모습과, 시범과 지도 등으로 체육수업에서 동기유발이 될 수 있으며, 스포츠가 남성들의 전유물이라고 여겨졌던 고정관념과 여학생들의 한계를 깰 수 있었다(류민정, 2011).

그거는 진짜 100%. 진짜 확실히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때 배웠던 것들을 그대로 와서 학교에서 잘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저는 되게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 수업 자체가 애들한테는 당연히 영향이 가고 그리고 저는 뭔가 교사가 철학이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 봤던 게 ○○샘이 '진심은 진심을 낳는다' 이런 문구를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가 좋아하는 문구가 있는데, '해보지 않으면 0이고, 후지게 한 번이라도 하면 1이다.' 라는 걸 강조하는데 학생들이 안보는 줄 알았는데 보더라고요.

(이명랑 교사, 심층면담)

학생들한테는 되게 긍정적인 영향이 많았을 것 같아요. 제가 그냥 한계가 있었을 텐데 이 한계를 계속 깨주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한테도 그만큼 제가 더 다양한 걸 알려줄 수 있고 더 재밌는 게 해 줄 수 있어서 충분히 좋았을 것 같고...

(김성실 교사, 심층면담)

지금까지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 참여를 통해 발휘하게 되는 리더십을 4가지 속성에 따라 분석을 하였다. 참여교사들이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를 통해 수업지도, 생활지도, 학급운영, 동료 교원관계, 행정업무 영역에서 동료교사, 학생, 학교에 발휘하는 긍정적인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사회적, 정서적 지지

사회적, 정서적 지지는 한 개인이 가진 대인관계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긍정적 자원(Cohen & Hoberman, 1983)이다. 실천공동체를 다른 공동체와 구별할 수 있는 추가적인 필수요소는 실천공동체 구성원 간의 신뢰와 존중이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실천공동체에서 교사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새로운 교육적 시도를 할 수 있는 안전하고 지원적인 환경을 조성하게 된다(Whitcom et al, 2009).

사회적, 정서적 지지는 '공감과 위로의 장', '시스터후드', '함께하는 즐거움'으로 나타났다.

가) 공감과 위로의 장

여성체육교사들은 공동체 안에서 학교, 수업, 육아 등 공통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서로의 생각을 들어볼 수 있는 경험을 가지게 된다. 학교와 가정에서 오롯이 개인이 혼자 겪고 힘들었을 일들을 공유하고 위로를 받는다.

> **수업적인 측면이나 교사로서 배우는 게 되게 많고 소통할 수 있는 게 많은 창구 같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항상 따뜻하고 되게 다정하게 자신의 경력들 다 아낌없이 얘기해 주시니까 약간 **재재 같이 오렌지 나무 같은 느낌이에요. 되게 다 알려주시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 같은 느낌**이라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이런 연수 같은 것도 나를 채울 수 있는 공간이라는 부분이 들어서 되게 좋다고 생각이 들고
>
> (이명랑 교사, 심층면담)

이명랑 교사는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를 '나의 라임오렌지 나무' 소설에 비유하였다. 소설에서 라임오렌지 나무는 '제제'의 유일한 안식처이자 친구이다. '제제'에게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나무는 항상 그 자리에서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존재이다.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도 참여 교사들에게 그러한 존재였다. 같은 여성 체육교사로서 서로 편하게 묻고 답할 수 있으

며, 공감하고 위로해주는 장이 되기도 하였다. 전미래 교사, 조행복 교사를 통해 공동체 내에서도 비슷한 연령대의 교사들끼리도 이야기를 나누며 그들만의 그 시기의 고민과 생각들을 나눌 수 있게 되었다고 하였다.

> 어쨌든 여자 체육선생님들이 같이 모여 있고, 또래들이 많이 있다보니까 그런 생애 주기도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나눌 수 있는 것 자체로가 저는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
> (전미래 교사, 심층면담)

> **우리 안에서는 부끄러움이 별로 없잖아. 그런 부분도 되게 좋은 것 같아**.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냥 기초적인 질문 같은 것도 나한테 오기도 하고 서로 하기도 하잖아. 근데 **전화해서 이걸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을 때 거기에 대해서 편안하게 얘기해서 답할 수 있는 부분들도 되게 큰 거지**. 이제 그렇게 되면서 더 길게 갈 수 있는 거지. 이런 얘기도 하는데, '야 눈이 안 보여서 정년 못 할 뻔했는데 모니터 굉장히 큰 것 때문에 좋더라. 이거 사' 이렇게 얘기도 가능한 거야. 이제 우리끼리는 가능한 거지. 그런 부분에서 함께 가는 거지.
>
> (조행복 교사, 심층면담)

여성체육교사들은 결혼과 출산으로 어느 정도 체육교사 정체성의 퇴화와 정체를 경험했다(박준혁, 2022). 체육교사의 정체성이 '엄마'라는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에너지와 열정을 분배하게 되어 정체성의 변화와 활동의 폭을 제한시키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여성체육교사들은 이러한 공백을 채우고자 하였고,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의 참여로 이어지게 되었다.

> 휴직 한 사람들은 학교 현장에 두려울 수밖에 없죠. 어렵죠. 시대가 바뀌고 사회가 바뀌고 또 온라인 수업이 들어오면서 거리감이 생기고 휴직을 더 해버리고 더 해버리고 이제는 복직 자체가 두려운 거죠. **뭔가 정서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죠. 육아의 스트레스 그리고 학교 현장에 대한 괴리 거리감 걱정.**
>
> (하인성 교사, 심층면담)

하인성 교사는 자신의 경험으로 육아휴직 후 복직할 때의 두려움과 고민을 알고 있으며 공감하고 있었다. 그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성체육교사들이 언제든지 수업에 대해 의논하고, 부족한 체력을 기르고, 즐겁게 운동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했다. 이명랑 교사는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에서 출산으로 인한 경력 공백기를 채울 수 있었다.

복직에 대해서 앞뒀을 때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고,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체력적으로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이 공동체를 통해서 많이 해소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많이 했어요. 그런 부분들이 **언제든지 이런 걸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언제든지 수업 준비할 수 있고, 언제든지 운동해가지고 애들한테 가르칠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거를 자리를 잡아야**...
그러니까 저는 그냥 운동에 대해서 좀 목이 말랐고 육아휴직 했을 때, 너무 그런 출구가 없었는데 그렇게 출구가 내가 만약에 둘째를 놓더라도 여기를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은 **언제든지 진짜 돌아올 수 있는, 마음 편한 장소** 이런 것들이 되는 것 자체가 저는 이제 기쁨인 것 같아요. 그냥

(이열정 교사, 심층면담)

나) **시스터후드**

Merriam-Webster 사전에 따르면 시스터후드(Sisterhood)는 목표, 관심사를 공유하는 여성들 사이의 공동체, 연대, 사회로 정의 내려진다. 남성교원이 적은 초등학교에서는 남성 교원들만의 모임, 문화를 만들어 그 안에서 친목과 정보교류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손형국, 2015). 이의리 교사도 교직 생활을 하면서 남성교사들끼리는 쉽게 친해지고, 그들만의 친한 문화가 있는 것을 종종 목격하였다. 그리고 여성체육교사들은 그러지 못한 것에 아쉬움을 보였었다. 하지만 여성체육교사들도 학습공동체를 통해 이처럼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고, 친한 언니동생 사이가 되었다.

그냥 동네 친한 언니, 동생 이런 느낌. 언니 동생인 거지 뭐. 누가 높고 낮고도 아니고 언니가 챙겨주고 동생이 따르고 그런 느낌 같아요.

(조행복 교사, 심층면담)

남자 선생님들끼리는 대충 다 알아. 스포츠클럽 심판을 가서 알거나 교육청 일로 들어가서 알거나 술자리 뭐 그렇게... 남자선생님들 끼리면 일단 대충 다 친해. 그리고 비슷한 연령대고 그리고 일단 선생님이라 안 부르고 형님 이렇게 부르는 문화가 있어서 되게 쉽게 친해지는데 우리는 이게 약간 벽이 있어. 내가 더 오래됐고 내가 더 열심히 나옴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그 사이에. 우리는 여자만 이기 때문에 그런 게 없죠.

(이의리 교사, 심층면담)

기존의 교사학습공동체와는 다르게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에서는 운영에 있어서 여성들의 육아, 가사업무 상황을 고려하여 회칙을 규정하기도 하였다.

저희가 여성 체육 교사이기 때문에 그런 요소들을 예상하고 그것에 대처할 수 있는 조항이 그런 규칙이 있다거나 그런 것들을 안해본 분들이 만들면 그런 규칙도 못 넣잖아요. **저희가 여자체육선생님들을 많이 봐왔고 그런 분들이 선배님들이 계시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짜는 것 같아요**.

(전미래 교사, 심층면담)

고정 멤버였다고 하면 아까 말한 대로 회비도 걷고 운영이 좀 체계적으로 될 수도 있겠지만, 저처럼 들어가고 싶어 했을 때 문을 두드리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갑자기 단톡에다가 오늘은 갑자기 애기를 봐줄 사람이 없어요. 다음 주에 갈게요. 이래도 그거에 대해서 전혀 눈치를 주거나 이런 경향이 아니어서 현재는 이게 **여교사 대상이고 애기 엄마들이 많아서 이런 유동적인 게 조금 부담감이 좀 덜한 게 장점인 것 같아요.**

(정도전 교사, 심층면담)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 안에는 세심한 언니들의 챙김이 존재하였다. 서로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다 같이 축하해주며, 어려움이 있을 때는 자신의 일인 듯 공감하며 해결책을 찾아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미소 교사는 교사경력동안 처음으로 교육청에서 자신의 수업 사례발표를 하게 되었는데, '넘버원 공동체'에서 응원과 격려를 해준 것에 용기를 가지게 되었고, 감사함을 느끼고 있었다.

교육청에서수업 사례를 이런 걸 발표하라고 했는데, 그때 이제 '넘버원 공동체'에서 플랜 카드도 만들어주고 응원을 해줬는데, 제가 생각한 게 **'오들오들 떠는 어린 양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넘버원 공동체는 사랑입니다.'** 이렇게 보면 그게 딱 맞는 것 같아요. 항상 뭔가 응원해주고, 잘했다고 말해주고, 사실 못했거든요. 그리고 체육교사를 하는 중에는 항상 참여할 것 같아요. **이 공동체는 뭔가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 있거든요. 서로 연결고리 같은 느낌이어서,** 제가 희망하는 미래 체육교사로서 자신의 모습을 너무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좀 가끔은 쉴 때도 있고, 이런 번 아웃이 없고 꾸준한 체육교사가 되고 싶은데 그럴 때마다 좀 약간 휴식이 되는, 공동체에서 얻어가는 것도 많고...

(한미소 교사, 심층면담)

다) **함께하는 즐거움**

실천공동체는 공동의 관심사를 가지고 상호 협력하는 공간으로, 공동체 모임을 통해 함께하는 자체에서 즐거움과 행복감 느끼는 교사도 있었다.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의 존재조차 몰랐던 교사들이 공동체에 대해 알게 된 후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의리 교사는 ‘함께해 공동체’를 다른 여성체육교사에게 추천하였는데 그 후로 모임활동에 열성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 우리학교에 여자체육교사 한 분 더 계시다고 그랬잖아. 내가 모시고 왔거든. 근데 그 선생님이 자기는 근무하면서 한 번도 여자 선생님 체육 선생님을 본 적이 없대. 그래서 이런 모임이 있는지도 모르고 한 번도 경험해 본 적도 없고, 여자 동료 체육교사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갔더니 너무 재밌으니까 농구화도 사시고 더 열정적으로 엄청 하시고, 이런 걸 몰라서 그렇지 하고 싶어 하는 선생님들이 엄청 많을 거야.**
>
> (이의리 교사, 심층면담)

이열정 교사는 공동체 활동을 준비하면서 어려움도 있지만, 참여하는 교사들이 즐거워하는 모습과 자신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에 행복감을 느껴 지속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 **저는 이 모임에 진심이거든요. 이렇게 희생하고 내가 갈아 넣어도 좋을 만큼 이 모임이 너무 좋아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죠. 내가 이걸 너무 힘들고 이 사람들 이제 안 볼 사람도 하면 안 보죠. 근데 이렇게 갔을 때 이분들이 행복해 하는 걸 보는 것도 좋고 내가 준비하는 것도 좋고
>
> (이열정 교사, 심층면담)

또한 공동체 활동에 즐거움과 행복감을 가지고 참여함으로써 참여교사들에게 소속감을 가지게 하였다. 이는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 활동에 지속적인 참여로 이끌기도 하였다. 조행복 교사는 ‘함께해 공동체’에 소속이 되어있다는 것에 든든함을 느끼고 교직 생활에 항상 함께 자신의 편이 되어줄 것 같음을 느꼈다고 하였다. 이명랑 교사는 타지에서 교직 생활을 하고 있는데, ‘넘버원 공동체’를 통해 안정적으로 생활하는데 도움을 받았다고 하였다. 그리고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에 속해있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과 안정감을 얻는다고 하였다.

> 수업, 이제 학교 업무 부분에서도 약간 든든한 마음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든 뭔가 물어볼 수 있는 곳이 생겼다는 것도 든든한 것 같고, 그리고 약간

내 편이 있다는 느낌, 든든한 면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이 **학생 지도, 수업 이런 부분도 다. 나와 함께 가는 사람들의 든든함**. 그게 가장 크다고 봐.

(조행복 교사, 심층면담)

개인적인 부분으로서는 소속감입니다. 전 아무래도 너무나도 타지 사람이고, 아무것도 모르지만선생님들 사이에서는 소속되어 있는 여자 체육 교사인데, 이 안에 속해있는, 30명 중에 한 명인 거, 거기서부터는 안정감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는데, 그런거 물어볼 때도 있었고 자문을 구할 때도 있었는데 그때 큰 위로가 되었어요. **개인적인 부분에서는 되게 큰 위안이 되는, 소속감에서 오는 안정감이 있어서 되게 만족하는 부분이에요.**

(이명랑 교사, 심층면담)

지금까지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 참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정서적 지지에 관한 요소들을 살펴보았다.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는 여성체육교사가 경험하는 수업에 대한 고민, 출산과 육아로 인한 공백에 대해 '공감과 위로의 장'이 되며 서로 친한 언니, 동생 사이가 되어 편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다. 지금까지 혼자서 고민해왔던 부분들을 함께 나누며 소속을 통한 안정감을 얻을 수 있는 '함께하는 즐거움'은 기존에 존재하는 교사학습공동체들과는 달리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에서만 경험하고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의 효과라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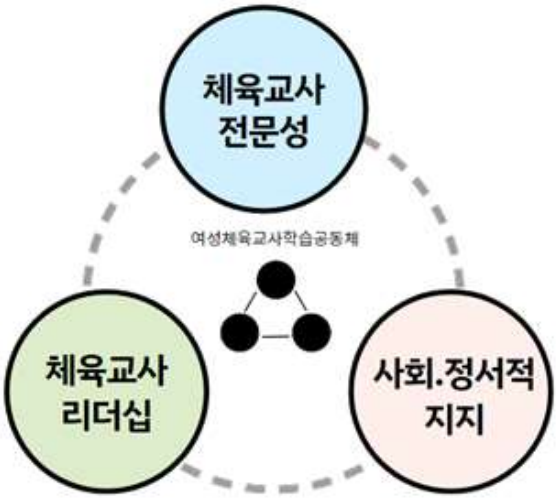


그림 15.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 참여 효과

나.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의 어려움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 활동에 어려움을 주는 요인에 대해서는 개인적 요인, 공동체 요인, 사회적 요인으로 구분해서 살펴보았다. 개인적 요인으로는 '출산과 육아', '리더의 희생', 공동체 요인으로는 '공동체 성장통', '자율성의 양날', 사회적 요인으로는 '물리적 제약', '비협조적인 분위기'로 나타났다.

1) 개인적 요인

가) 출산과 육아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에 참여하는 여성교사들은 임신, 출산, 육아 그리고 가사업무를 공동체 참여에 어려움을 주는 요인으로 가장 많이 언급하였다. 하인성 교사는 결혼, 육아라는 기점으로 그 전에는 자신을 위한 활동으로 여러 교사 연수에 참여했지만, 결혼과 출산 후에는 가정을 위해 모든 태도를 바꾸었다고 하였다.

> 저는 미혼일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전이고, 서울이고, 용인이고 그냥 연수 다 다녔거든요. 결혼하고 집안일이나 애들 키우는 건 제 일이거든요. 그 상황을 고려했을 때 선생님들이 왜 맨날 오는 선생님만 올 수밖에 없는지, 그 선생님들은 딱 두 가지로 해요. **미혼이시거나 애를 좀 다 키워놓은 대학생이라든지 적어도 고등학생 엄마의 손이 필요 없고 오히려 엄마의 어떤 그런 집중을 피하고 싶어 하는 나이쯤.**
>
> (하인성 교사, 심층면담)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에 참여하는 교사들은 결혼과 출산으로 공동체 활동에 어려움이 생기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서로 이해하고 공감하였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렇게 됨으로써 공동체 활동에 어려움이 생기는 것에 대한 걱정을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최책임 교사와 이의리 교사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운영해보고자 하는데 있어서 구성원이 계속 바뀌는 점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남자들보다는 나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여자 모임이 조금 자생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조금 만들어 놓으면 애 낳으러 가고, 또 둘 째 가져서 또 빠지고 이런 식이 많아서 그게 차이점**인 것 같아요.

(최책임 교사, 심층면담)

이제 선생님들은 곧 연애를 하고 결혼하고 출산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초반에는 왕성하게 활동을 하다가 어느 정도 친밀감이 유지되면 잠시 사라져. 그래서 남자들은 꾸준히 계속 같은 멤버가 가는데 한 덩어리로, 우리는 출산, 육아를 다 겪은 몇몇 분들을 제외하고는 계속 멤버가 바뀌니까 다음 스텝으로 나가고 싶어도 유지가 안 되서 그게 조금 아쉬워요. 같은 코스를 밟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코스가 사실 여자로서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힘든 일 인거잖아요. 그런 거를 같이 겪어온 사람들이라서 더 조언을 해주기도 하고, 정서적인 유대감이 있지.

(이의리 교사, 심층면담)

나) 리더의 희생

연구 대상이었던 모든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들은 2개의 공동체를 제외하고는 리더가 주도해서 이끌고 가고 있는 공동체들이었다. 자발적으로 참여한 공동체에서도 공동체를 운영하기 위한 업무를 맡을 구성원들이 필요하며, 그 업무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제한적이었다. 공동체 리더들은 개인의 시간을 쪼개가며 공동체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또한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가 더욱 발전하면서 회원 수가 증가해가고 있는데, 그것을 감당하기에는 운영진의 수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리더도 있었다.

‘함께해 공동체’는 자체적으로 운영되어지며, 리더 교사의 봉사로 공동체를 운영하기에 교사들의 다양한 농구 실력을 고려하여 운영하기에는 강사 지원이 필요함을 이야기 하였다.

일단 이제 자체적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우리가 선수 출신인 리더 분들한테 기대는 수밖에 없잖아. 근데 이제 그분들도 한계가 있잖아요.

(이의리 교사, 심층면담)

‘에이스 공동체’, ‘원더풀 공동체’, ‘나이스 공동체’도 운영진 위주로 업무가 돌아가고, 그 운영진마저도 인원이 2~3명으로 부족하여 업무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이야기하였다.

저는 회장이니까 제가 진행을 했으니까 저는 책임감 있게 해야 되죠. 그렇게 생각하는데 말은 못하지만 빠져야 될 상황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1, 2년인데 3, 4년까지 계속 제가 연수를 맨날 하더라, 그러면 재미없죠. 뭔가가 변화가 돼야 되겠죠. 근데 안정권에 들어갈 정도 또 저와 같은 성향에 있는 선생님들이 이제 한두 분이 전국에서 나와 주시면, 그분들이 또 다음 바톤을 받아주시고 또 진행이 저는 그게 이제 다음에 서포트를 해드리고 이렇게 차츰차츰 나아가지 않을까 해요.

(하인성 교사, 심층면담)

또한 이러한 업무로 인해 일과 개인적 삶의 균형이 파괴되고, 과도한 연구회 업무로 정작 중요한 수업과 학교생활에 소홀해지는 주객전도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건 언니랑 저랑 딱 둘이거든요. 되게 버거울 때가 있죠. 내년에 어떻게 끌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너무 애타는데... 애들 스포츠클럽 대회도 나가야지, 사업도 해야 되지, 점심시간 뭐 해야 돼, 리그도 돌려야 되지, 이벤트 해야 되지, 수업해야 되지, 이거 신경 써야 되지, 연수해야 돼, 운동해야 되지, 애도 키워야 되지, 막 이러니까 한계가... **이제 워라벨이 무너지는, 점점 붕괴하고 있는 느낌이 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잘 해야 되는데**...

(이열정 교사, 심층면담)

사람 모으는 게 사실, 일할 사람이 많으면 굉장히 즐겁고 진짜 우리가 목표한 대로 재밌게 일하면서 아이들도 같이 재밌게 즐길 수 있게 이끌어 갈 텐데, 그런 **일할 사람 부족한 게 가장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

(최책임 교사, 심층면담)

연구회에 일이 정말 많거든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연구회 일에 너무 급해서 학교 일 잠깐 미뤄두고 이런 경우도 없진 않아요**. 특히 그 연구회의 일이 있는 그 주에는 학교 업무를 제대로 못 볼 정도의 연구회 일이 많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학교에서 조금 학교 일을 소홀히 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해요.

(김성실 교사, 심층면담)

공동체가 운영이 잘 이루어지고, 규모가 커지게 될수록 운영방법에 대한 운영진의 고민도 발생하게 되었다. 그리고 참여교사들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모든 것을 다 공동체 활동에 반영하기에도 한계가 있었다.

공동체를 운영하는 데 어려운 부분은 일단 저희가 지역 기반도 아니고 학연도 아니고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고, 저희는 학교 급조차도 지금 교사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양한 사람들의 니즈를 모두 다 입맛에 맞춰서 정확하게 콕 집어낼 수 없다는 거, 이게 조금 아쉽기는 한데 하지만 결국은 모두가 큰 비전이 같으니까 그거를 조금 더 강조를 하고 점점 확대를 해 나가야 되는데…**

(홍사랑 교사, 심층면담)

개인적 요인으로 출산과 육아는 여성으로서 모두가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나 그로 인한 공동체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을 파악하였다. 아직까지 참여교사들의 적극적 참여가 아닌 주변적 참여로 인해 리더 교사들의 희생과 노력으로 공동체가 운영되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2) 공동체 요인

가) 공동체 성장통

실천공동체는 자생적으로 생성되어 공동체로서의 가치를 만들어내고 고유한 접근방법과 공동체만의 정체성을 확장해 나가게 된다(Wenger et al., 2002). 실천공동체는 잠재기, 결합기, 성숙기, 유지기, 변형기의 다섯 단계로 진행이 되는데 연구 대상의 공동체들은 대부분 초기 단계로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는 아직 잠재기에서 결합기 사이의 발달단계로 자리를 잡아가기 위한 단계라고 볼 수 있다.

이열정 교사는 '원더풀 공동체'가 아직 자리를 잡아가는 단계에서 공동체 활동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다.

저희는 누구든지 중간에 언제든지 올 수 있다고 개방을 해놓으니까 너무 이게 구미에 맞게 선생님들이 왔다, 안 왔다 이렇게 하니까 그것도 좀 힘들어요. 처음에는 새로우신 선생님 오시면서 너무 좋았는데, 이게 연습 흐름에도 중간중간 브레이크가 걸리니까 이제 이건 좀 아닌 것 같고 기수로 활동하고 제한을 걸고 싶은 거에요. 근데 이것 자체가 내가 좀 변했나 싶은게, 예전에는 와달라고 했었는데, 이제 좀 인원수가 차니까 이분들이 좀 부담스러워지고, 옛날에는 인원수가 없어서 게임을 할 수가 없었는데 지금 인원수가 많아가지고 게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들도 좀 생기고, 너무 이렇게 또 충돌이 생기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들도 있고 이게 참 어렵네 하면 할수록...

(이열정 교사, 심층면담)

또한 참여교사들이 공동체의 목표와 활동에 대해 완벽하게 파악되지 못하였고, 리더 교사와 다른 목표를 제시하기도 하여 공동체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

저희 공동체도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이 지금 뭔가 수업에 대한 연구보다는 같이 운동하고, 학교에서 힘든 부분 나누고 이런 장으로 바뀌고 있고, 근데 거기서 제가 처음에는 만족을 못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연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런 욕심을 버리고 나니까 그냥 있는 순간을 그냥 교사가 행복하면 애들도 행복하겠지 진짜 이런 마음으로 돌아가서, 저희 공동체는 좀 변하고 있고.

(이열정 교사, 심층면담)

나) **자율성의 양날**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는 교사들이 자율적으로 만들어 운영하고 있으므로 상급기관 또는 관리자들의 지시와 간섭 없이 본인들만의 목표를 실천해낼 수 있었다. 하지만 또한 이러한 자율성으로 인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야 하므로 행정적, 재정적으로 운영상 어려움을 보이기도 하였다.

하인성 교사는 '나이스 공동체'에서 연수를 개최하고자 할 때, 전국구를 대상으로 하고, 자율적으로 운영하다보니 참여교사들의 출장 처리, 연수 안내를 위한 공문 처리 등의 행정적 문제에 직면하였다. 이러한 것은 교사들의 연수 참여시 안전문제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꼭 확인되어야할 절차였다.

저희 교육청에서 안전을 위해서 출장처리를 하더라도 나머지 지역 선생님들은 등록된 게 없는 거에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행재정적인 부분 그다음에 공문 처리가 안 되니까**... 여러 가지 이제 안전적인 부분 앞으로 우리가 보완하고 좀 준비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하인성 교사, 심층면담)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는 순수하게 참여교사들의 회비로만 운영되어지고 있었다. 몇몇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는 연구회, 자율연수 등의 항목으로 금전적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대부분은 아니었다. 따라서 여러 가지 공동체 활동을 기획하고 싶어도 재정적인 제약을 받게 되기도 하였다. 하인성 교사는 전국에서 연수를 참여하기 위해서 오는 여성체육교사들에게 아무런 지원을 해줄 수 없음에 안타까움을 느꼈다.

> 제가 지금하고 해보니까 돈이 일단 운영을 하려는데 경비가 일단 들어가더라고요. 멀리서 오시는 선생님들 교통비도 들어야 되고 숙박도 들어야 되고 밥값도 들어야 되는데 거기다가 연수비까지 막 내라 하려 하니 너무 좀 미안한 자리가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도에 지금 등록도 안 돼 있죠. 저희는 왜냐하면 전국 단위니까.**
>
> (하인성 교사, 심층면담)

>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선생님도 회비를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는 있지만 아무래도 전국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할 때마다 비용이 조금 다른 연수에 비해서 많이 발생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학교 간 교원학습 공동체라고 해가지고 만약에 수도권에서만 진행을 한다면 학교에서 하는 교원학습 공동체처럼 학교 간으로 선생님들끼리 종목 상관없이 이렇게 교원 학습 공동체를 운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도 활용을 할 수 있으면 예산도 또 받아서 진행할 수 있고 참 좋은데 저희는 전국구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것도 사실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
> (정솔선 교사, 심층면담)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장소를 섭외하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 홍사랑 교사는 어디에도 등록되어 있지 않은 자율적인 공동체이다 보니 신원을 확인 할 수 없기에 장소섭외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였다. 조행복 교사도 현재 운이 좋아서 '함께해 공동체' 참여교사의 학교 체육관에서 운영되어지고 있다고 하였지만,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었다. 활동장소가 정해지고 확실해진다면 그에 따라 참여교사들도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공동체 활동을 할 장소 섭외가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장소 협조, 코로나도 그렇고 이제 뭐 하는 단체인지 모르는데 주말에 체육관에 빌려 달라 하니 말을 하는데 저희가 지금 연구회 등록된 것도 아니고 교학공이고...애매해요. **뭔가 아예 교육청이랑 협약을 맺으려면 뭔가 단체가 실체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임의**

의 단체잖아요. 그냥 자율적인 모임이잖아요. 지금 단체라고 말하는 법률적으로 단체라고 하기 좀…

(홍사랑 교사, 심층면담)

우리가 어떤 모임을 하거나 **이제 활동을 할 장소에 대한 섭외가 지금도 가장 어려운 것 같아.** 지금은 이제 운이 좋게 여기서 하고 있잖아. 근데 이것도 언제 바뀔지 모르는 거야 우리에게는 모임이 모일 장이 항상 불안한 거지. 근데 그거가 해결되면 더 많이 잘 많이 모이지 않을까 사람들이?

(조행복 교사, 심층면담)

3) 사회적 요인

가) 물리적 제약

공동체 외부에서 작용하여 활동에 어려운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제약 요인으로 과도한 업무, 거리와 시간적 제약, 지역적 차이를 제시하였다. 먼저 체육교사는 학교에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우리나라 체육교사의 직무내용 분석을 통해 교과지도업무, 교과지도 외 체육교육 업무, 학교체육 행정업무, 일반교무 행정업무 등으로 도출되었다(강연정, 이의재, 유정애 2021). 참여 교사들은 교과지도 외에 운동부, 학교 행정 업무 등 다양한 업무를 과중하게 맡고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과중한 업무들로 인해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 활동 참여가 어렵게 되었다.

방해 요인 또 하나 있는 게 **너무 일이 많아. 사람들이 일이 많으니까 오고는 싶어도 못 오는 사람도 꽤 되더라고요**. 일이 계속 있고, 운동부 맡은 애들은 못 오는, 그러니까 학교 업무가 많고 그런 부분이지.

(조행복 교사, 심층면담)

교육장배, 교육감배, 도지사배, 도민 체육대회, 그 외에도 개별적으로 시 대회, 그런 것들이 많은데, 또 운동부를 맡는 사람은 저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에게 가는 업무비중이 너무 많아서, 그날 참여를 하고 싶어서 참여를 눌렀는데, 그날 갑자기 '이거 내일까지 해주세요.' 이러면 못 가게 되잖아요.

(이명랑 교사, 심층면담)

두 번째로 거리와 시간적 제약이 있었다. 공동체가 주최되는 장소가 멀어 퇴근 후 참여가 어렵거나, 전국적으로 개최되는 연수는 지역 간의 이동으로 시간뿐만 아니라 비용도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리더 선생님께서는 이제 아기 엄마들이니까 아기들 밥 먹이고 그다음에 좀 쉬었다가 저녁 먹는 시간이 겹치면 애매하니까 8시 이렇게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10시, 11시에 끝나잖아요. 근데 저는 아기를 9시에 재워야 되는데, 그다음에 또 6-7시에 해도 학교에서 방과 후 하면 5시 반 이렇게 끝나고, **시간 맞추는 게 제일 어려워서 좀 참석을 못했던 못한다고 했던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
> (정도전 교사, 심층면담)

세 번째로 지역적 차이가 있었다. 연구 참여 교사들은 지역적으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차이가 존재하며, 이러한 요인들이 공동체 활동에 제약을 주었다고 언급하였다. 차이로는 지역마다 다른 교사 수, 분위기, 체육시설 등이 언급되었다.

이열정 교사는 해당지역에 있는 여자 체육교사 수 자체가 적어서 공동체를 구성하기 쉽지 않았다고 하였다. 실제로 2021-2022 시도별 중학교, 고등학교 여성 체육교사 현황에 따르면 서울 545명, 경기 818명, 충북 89명, 세종 30명, 울산 72명, 제주 39명 등으로 지역별로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하인성 교사는 모이고자 하는 인원이 적으며, 그 안에서도 지역별 학연, 지연 등으로 인해 의견을 모으는 것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 여기 지역은 너무 (여자체육교사)인원수 자체도 너무 적고 그리고 그 안에서도 선후배가 있고 어느 대학 라인이 있고, 또 나이대별로 어린 친구들은 어린애들끼리 또 있고 싶어 하고 언니들은 또 언니들끼리가 편하고 그러니까 이 모든 입을 맞추기가, 너무 이 모든 그런 요구 사항들 맞추기가 이제 중간에서 너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사실 있죠.
>
> (이열정 교사, 심층면담)

> **저희 지역이 조금 좁고 보수적이에요**. 이렇게 되게 바운더리는 넓어요. 일단 거리는 너무 멀고, 또 선배, 후배 너무 잘 아니까 굳이 자율연수나 실기연수 이런거 하려면, '우리가 그런 모임 뭐 할 필요 있어' 이렇게 되면서 실효성이 없더라고요. 수도권 이런 데서는 자율 연수를 하는 게 되게 많잖아요. 내가 필요하면 가도 저는 전국 단위로 받으러 다녀요. 근데 여기 자체에서 그런 건 되게 좀 보수적이고

조금 자유롭지 못한 게 아니라 되게 좀 굳어져 있어요.

(하인성 교사, 심층면담)

정솔선 교사는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 활동들이 수도권 위주로 이루어지다보니 타 지역에 있는 교사들은 참여가 어렵다는 의견을 내었다. 또한 학생의 입장에서도 다양한 스포츠 활동에 제약이 있을 수 있음을 지적 하였다. 홍사랑 교사는 이러한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초신성 공동체'가 타 지역 여성체육교사들을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하였다.

사실은 수도권에는 이제 신규 교사 선생님들께서 좀 할 수 있는 활동들이 많으시잖아요. 서울 애들은 확실히 이런 스포츠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지방하고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도 사실 좀 제가 수업을 하면서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런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전국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분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정솔선 교사, 심층면담)

지금 아직은 초창기 단계라서 수도권에 머물러 있고,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이 서울에서 이루어지고 축구팀도 기반이 서울이고, 농구 팀도 기반이 서울이고, 댄스도 사실 수도권 이 정도가 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비수도권에 계신 선생님들이 좀 더 소속감을 느끼고 참여할 수 있게끔 그분들을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계속 들죠.

(홍사랑 교사, 심층면담)

나) 비협조적인 분위기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으로 곱지 않은 시선과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동료교사 요인이 있다. 먼저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의 취지와 목적, 활동에 대한 설명이 안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체육교사들만의 모임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교사들도 있었다.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 리더 교사들도 처음에 이러한 곱지 않은 시선을 우려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운영하고자 하는 목표가 분명하였고, 이렇게 운영되어져야하는 당위성이 있기에 공동체를 추진해오게 된 것이었다. 연구 참여 교사들은 모두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가 부정적인 모습으로 받

아들여지는 것에 대한 걱정과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또한 역차별이라고 여기는 교사들에 대해 오해를 풀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기도 하였다.

> 부정적인 부분이 있다면 조금 **남자 선생님들의 곱지 않은 시선**이 사실 있습니다. 근데 어느 쪽도 마찬가질 것 같아요. 본인들이 우리 상황이 돼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목적이 우리는 한 개잖아요. 이게 차별이 아니라 **차이에 따른 부분을 가지고 우리끼리 운동을 하는 거고, 연수도 우리 수준에 맞게끔 해서 자기 개발을 하려는 건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일부 남자 선생님들은 여자들끼리 모임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 시선도 있는 것 같아요.
>
> (최책임 교사, 심층면담)

> 이게 조금 가장 제가 크다고 생각을 하는 게 **여자 모임이라는 인식이 조금 불편하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여교사의 실기 수업적인 전문성이 아무래도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고, 다른 연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자끼리만 해'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개인적인 느낌이지만 뉘앙스가 조금은 부정적인 인식으로 받아들여져서, 조금 아차 싶기도 했어요. 저희도 이게 그렇게 받아들여졌을까 이런 부분이 조금 그랬어요. 그런 의도가 아닌데 그렇게 페미니즘 이런 느낌으로 보는 것 같아가지고 그게 조금 불편했던 것 같아요.
>
> (정솔선 교사, 심층면담)

> '여'자가 들어가 버리면 약간 젠더인 느낌이 들어서 조금 서로의 감정이 상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계속 하긴 했었거든. 우리가 이러한 부족한 부분을 채우자라는 거였다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우리끼리 으쌰으쌰해서 잘 해 먹자라고 하면 안 되는 거지. 만약 **그런 연수를 연다고 했을 때 설명과 취지가 충분히 되어있었으면 더 좋을 것 같아**.
>
> (조행복 교사, 심층면담)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 참여 교사들은 공동체에서 학습한 것들을 현장에서 적용해보고자 할 때 동료교사들의 반대와 도전해볼 수 없도록 만드는 분위기로 시도해보기 어려웠다고 하였다. 정도전 교사는 연수에서 배운 새로운 평가방법을 적용하고 싶었지만 동료교사를 설득하기 어려워 기존의 수업 방식을 고수하게 되었다. 이열정 교사는 공동체에 참여하는 교사들이 주로 신규교사와 저경력 교사가 많아서 학교에서 자신의 주장을 가지고 뜻대로 수업을 펼치는데 제한이 있을 수 있음을 이야기 하였다.

정말 대 선배님들이어서 거의 거의 다 정년 퇴직 앞두신 분들이 위에 두 분이 계시고 이래서 이제는 저 혼자 뭐를 한다고 말을 못하고, 나의 수업적인 측면도 도태되지 않을까 이런 현실적인 고민들을 많이 했었어요. 만약에 이제 제가 기회가 되고 평가의 주축이 된다고 하면, 이번 연수에서 배운 대로 이렇게 이런 기능들을 종합해서 실제 경기 기능을 평가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도전 교사, 심층면담)

저도 부장이고 이런 주도적인 포지션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분들과 함께한다는 것만으로도 얘기를 할 때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걔네들은(체육신규교사) 이제 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했을 때 감수해야 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거를 본인들이 아직 견뎌낼 수 있을 정도의 단단함이 아닌 게 느껴져요.

(이열정 교사, 심층면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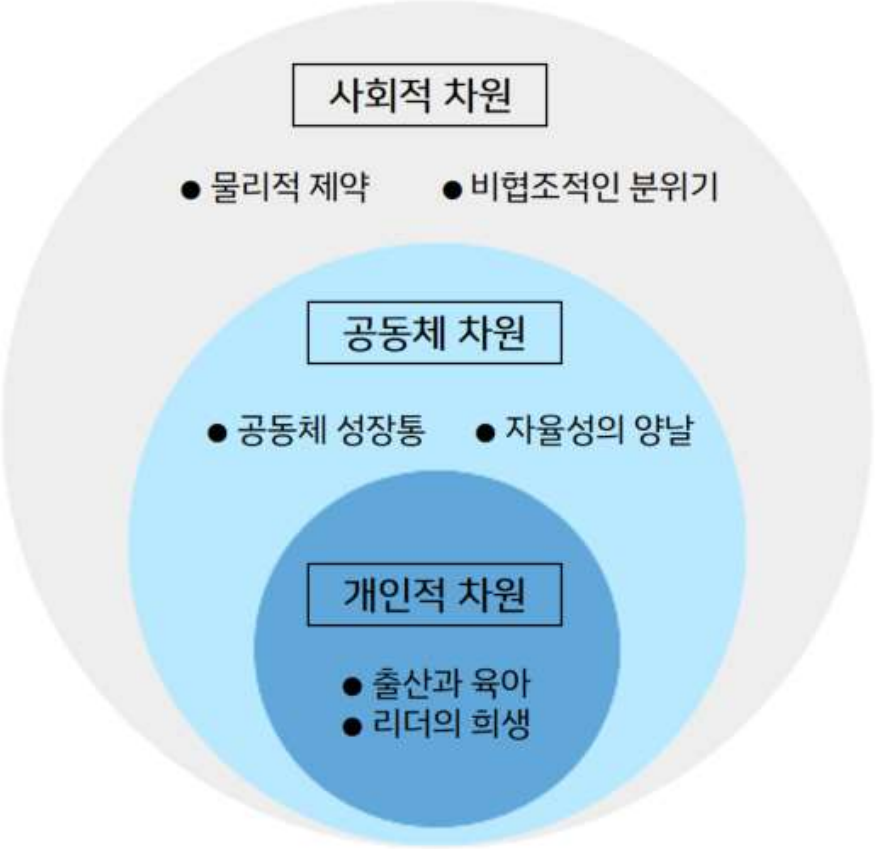


그림 16.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 참여 어려움 요인

3. 교사전문성과 리더십 개발의 허브 역할을 위한 조건

지금까지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의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이러한 공동체에 참여함으로써 어떤 효과와 참여하는 데 어려움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Wenger와 Snyder(2000)는 실천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한 7가지 요소들을 제안하였다. ①공동체가 성장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한다. ②내부의 관점과 외부의 관점 사이에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한다. ③구성원들의 다양한 차원의 참여를 유도한다. ④공적인 공간과 구성원들이 일대일로 만날 수 있는 사적인 공간을 모두 개발해야한다. ⑤집단이 생성하는 공동체적 가치를 지향해야한다. ⑥친숙함과 새로움의 결합으로 집단의 반복적인 일상뿐만 아니라 새로운 이벤트나 행사를 마련하여 구성원들의 흥미를 갖도록 해야 한다. ⑦집단을 위한 적정한 리듬이 있어야 한다. 본 장에서는 위에서 제시한 실천공동체 활성화 요인 7가지를 토대로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가 교사전문성과 리더십 개발을 위한 허브의 역할을 하기 위한 운영조건을 알아보고자 한다. 성공적인 운영조건으로는 개인적 차원(공동체 구성원 개인 내부 또는 개인 간), 공동체 차원(실천공동체의 운영 방법과 내용), 사회적 차원(실천공동체 외부의 사회적 요인)의 3가지로 구분되었다.

표 19. 실천공동체 운영조건

운영조건 (Wenger&Snyder, 2000)
성장을 위한 설계
내·외부 간 열린 대화
서로 다른 참여수준
사적, 공적 공간 제공
공동체 가치 지향
친교, 재미
적정한 리듬

⇨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 운영조건	
개인적	리더십 공유
	적극적 참여
공동체	주체적 운영
	지속가능한 활동
사회적	협조적 학교문화
	교육청·유관기관의 지원

가. 개인적 차원

개인적 차원이란,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에 참여하는 개인 내의 요인과 개인 간의 요인으로 볼 수 있는데 개인 내 요인은 구성원들의 철학, 태도 등을 일컫는다. 개인 간 요인은 참여 구성원으로 또는 리더와 회원들의 행위에 의한 요인으로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성공적인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 운영을 위해 1)리더십 공유, 2)적극적 참여 요소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1) 리더십 공유

실천공동체의 리더는 공동체의 목적을 명확히 하여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며 구성원들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의사소통을 증진시켜 실천공동체를 활성화 하는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한다(홍성수, 2010). 공동체에서 리더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또한 리더에게 모든 권한과 역할이 집중되어있어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한 명의 리더, 소수의 운영진에 의존하여 공동체를 운영해나가기 보다는, 모든 구성원들에게 권한을 나누어 리더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구체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공동체 운영과 유지를 위해서는 리더 뿐만 아니라 구성원들에게도 권한을 나눌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자발적인 노력과 헌신의 원동력이 발생하게 된다(parker et al., 2010)

> 저는 개인 리더십의 공유를 지향하고 있거든요. **모두가 리더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게 나를 따르라의 리더가 아니라 모두가 이 단체의 주인공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그냥 뒤에서 팔짱끼고 있는 게 아니라 함께 뛰는 그런, 그래야지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고, 소수의 인원이 끌고 가는 조직은 건강하지 못하고 오래 가지 못 하니까, 되게 다양한 움직임들이 있어요.
>
> (홍사랑 교사, 심층면담)

Conger와 Kanungo(1988)는 조직 구성원들의 권한을 높이고 그들이 가진 지식과 의욕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임파워먼트’ 라고 제시하

였다. 그리고 임파워된 개인이 조직구성원의 조직몰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홍사랑 교사는 지금까지 교사학습공동체들이 운영되는 과정을 보았을 때, 리더 혼자 이끌고 가는 공동체는 오래 지속될 수 없으며, 구성원들에게 주도권이 분배되어 힘의 균형을 이루는 공유된 리더십의 중요성을 이야기 하였다. 또한 '초신성 공동체'에서 리더십을 공유하기 위해 여러 분야로 나누어 그 분야의 운영진을 새롭게 구성하는 등 구성원들이 리더로 활동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보고 있었다.

> 저 혼자 이 모임을 이끌기 위해서 한다거나 서포트해 줄 분들이 되게 소수밖에 없다면 그분들도 언젠가는 힘이 빠지거나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조금 발전적인 방향은 조금 더 우리 모임을 위해서 좀 이렇게 자신의 시간이나 이제 여러 가지 역량들이나 재능 기부나 네트워크나 이런 것들을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조금 앞서서 지원해 주신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죠**. 재정적인 부분과 이 모임을 운영할 수 있는 함께해 주실 분들의 어떤 조금 더 보완... 대외적으로 활동하기를 희망하는 역량이 많은 분들이 한두 분씩만 더 나와 주신다면...
>
> (하인성 교사, 심층면담)

하인성 교사는 '나이스 공동체' 리더 교사로 4명의 운영진이 꾸려가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인성 교사는 각 지역별로 대표 이사 교사들을 지정하였지만 실질적인 운영은 4명이서 하고 있었다. 따라서 앞에 나서서 자신의 역량을 나눠줄 수 있는 교사가 필요하다고 이야기 하였다.

2) 적극적 참여

실천공동체가 번성하기 위해서는 공동체에 속해있는 구성원들이 그들의 공동체만이 가지고 있는 비전, 목적과 핵심가치를 공유하고 서로의 열정과 소망이 서로 교차해야 한다(Wenger et al., 2002). 이러한 비전, 목적, 핵심가치를 가지고 참여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 함께 활동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활동이 필요하다. 실천공동체에서의 참여는 단순히 공동체에 참가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일방통행으로 이루어져왔던 교사 연수와는 다르게 실천공동체에서의 참여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참여함으로써 성장하고 정체성을 구성하는 과정이다. 여기에는 곧 쌍방향적인 소통이 있

다는 것이다(Wenger, 2007).

이열정 교사는 '원더풀 공동체'의 리더교사로 업무가 많아 힘들고, 공동체를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어도, 공동체 참여를 진심으로 즐기며 하고 있었다. 따라서 참여를 한 번 하더라도 다 같이 어떻게 하면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지 고민하고 실천하였다.

> 이게 여기가 편해야 된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제 반적인 그런 자생력을 가지려면 **이 모임에 진심인 사람들이 일단 많이 생겨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처럼 사비를 써도 나는 이 모임이 좋다는 생각이 들게끔 우리가 해야죠.**
>
> (이열정 교사, 심층면담)

운영진으로서 홍사랑 교사는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를 이끌어나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자신을 개발시키는 노력을 하였다. 공동체를 구성하기 전부터 사전 조사와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운영방안을 구성했으며, 공동체가 만들어진 이후에도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하여 공동체 운영에 새로운 이벤트를 제시하였다.

> 이걸 내가 리더로서, 제가 대표로서 뭔가 방향을 제시해주거나 해야 하는데, 하는데 지금 물론 비전을 같이 공유했지만 그거에 대한 방향과 방법 같은 것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하고 있는 활동들이 다 전문성을 기르기 위한 방법들이고 노력들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더 발전시키거나 혹은 확장 보완해 나갈지에 대해서는 저 스스로 공부가 필요**한 것 같아요.
>
> (홍사랑 교사, 심층면담)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이명랑 교사는 신규교사이기에 다른 교사들에게 해결책과 조언을 줄 수 없었지만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공동체를 운영하는 리더와 운영진들의 희생과 노력을 알고 그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갖고 표현하고 있었다.

> 제가 답변을 할 수 있는 거는 수업에서 제 실패담을 이야기 해드리는 것이지만 또 그분들에게 새로운 부분에서 말해드리면 고마워하셔서, 답변이랑 질문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연수에 잘 참석하려고 노력합니다. 그 선생님들도 하는 게 엄청 많은데 개별적으로 수당을 받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활성화하고 **우리 애들**

잘 가르쳐보자, 이 취지에서 알려주시는 거를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참석을 하려고 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리액션을 크게 하게 하고 있어요.

(이명랑 교사, 심층면담)

나. 공동체 차원

공동체 차원이란,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라는 공동체 환경 속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공동체 구성원, 공동체의 운영방법과 운영내용이 여기에 해당된다. 본 연구에서는 운영방법과 운영내용에 초점을 두었다.

1) 주체적 운영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교사학습공동체를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운영 방법이 필요하다. 그리고 공동체에 다양한 수준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들을 온전한 구성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가)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 맞춤 운영

연구 참여 대상의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들은 설립 된지 얼마 되지 않았다. 따라서 자신들만의 운영체계를 잡아가는 중이었다. 실천공동체는 여러 연구들의 정의를 통해 구성원들 간에 자연스럽게 공동체를 구성하고 공동체 안에서 지식을 공유하고 창출해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정재삼, 2004).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들의 재정적 운영방법은 2군데를 제외하고 모두 교육청, 교육지원청의 지원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꾸려나가고 있었다. 교육청의 지원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김성천, 양정호, 2007)이 있는 반면, 교육청 지원이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입장(이동성, 2011; 함형인 등, 2014)도 있었다.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교육청의 행·재정적 지원과 계획, 결과 보고 등의 모니터링 과정으로 인해 교사연구회 운영에 동력이 될 수 도 있으나, 그러한 과정이 감시와 획일적인 운영이 되도록 자율성을 위

축시킬 수 있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이승호 외, 2015).

전미래 교사는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를 운영하면서 주위에서 연구회 가입을 권유하였지만, 지금까지 운영되어져 왔던 연구회의 운영방식을 봤을 때 자율적이지 못하였음을 이야기 하였다. 따라서 '초신성 공동체'만의 자율적인 활동을 위하여 어디에도 가입하지 않았다.

> 저희가 갑자기 이게 활동이 막 드러나다 보니까 커 보여서 많은 분들이 연구회 안 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시작한 지가, 사실 올해 초에 시작한 건데 연구회 같이 그 정도로 갈게 아니거든요. **저희는 약간 체육교육의 스타트업 느낌으로 어디에 구속받지 않는 자유로운 영혼이고 싶은데,** 이게 어쨌든 저희가 모임이 지속되다 보면 연구회 같은 성격이 계속 지속될 것 같긴 해요. 근데 연구회를 등록을 하고 싶지는 않아요. 지금까지의 연구회 형태는 탑다운 형식이었잖아요. 뭔가 교육청 소속의 연구회가 생겨서 교육청에서 '연구회는 이런 활동을 해라.' 탑 다운으로 해왔기 때문에 그런 방식이 이제 연구회라는 단어만 들어도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는 거죠.
>
> (전미래 교사, 심층면담)

하인성 교사는 연구회에 가입해서 직책이 정립이 되어버리면, 담당하는 교사들의 업무와 부담이 커지게 될 것을 걱정하였다. 전미래 교사는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를 운영하면서 주위에서 연구회 가입을 권유하였지만, 지금까지 운영되어져 왔던 연구회의 운영방식을 봤을 때 자율적이지 못하였음을 이야기 하였다. 따라서 '초신성 공동체'만의 자율적인 활동을 위하여 어디에도 가입하지 않았다.

> 아직까지 기관 등록도 안 했고 이렇게 제가 만들 때 기본적인 형식, 회장하고 운영진들 이렇게 뽑고 구성도 했지만, **교과연구회를 등록해서 묶여버리면, 그 해 운영진은 그냥 올인해야 하잖아요**. 다음에 누군가 바톤을 받아서 이 일을 해야 하는데 얼마나 부담스러우시겠어요.
>
> (하인성 교사, 심층면담)

자율적 참여에 제한이 가는 행동은 최대한 하지 않는 방향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한편으로는 교육청 소속이 되어 안정적으로 재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교육적으로 홍보가 되는 차원에서 연구회에 등록하고자 하는 공동체도 있었다.

앞으로는 그때 우리가 하려고 했다가 말았던 것처럼 연구회도 다시 한 번 도전을 해보려고, 이렇게 연수도 한번 직무 연수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우리끼리 해서 나는 농구를 가르치고 배드민턴 선출도 있고, 우리 안에서 충분히 있으니까, 배구하는 애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 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 그렇게 그런 게 다 있다. 연구회도 노력은 해봐야지 이제 이름을 조금 알리고 싶은 욕심이 살짝 있긴 하거든. 이제 '우리 이렇게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을 알린다는 건 이제 여자 체육 교사의 활동을 알리는 거잖아. 그렇게 된다면 조금 더 또 큰 영향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조행복 교사, 심층면담)

나) 참여유도와 홍보

여성체육교사들의 참여를 더욱 이끌어내기 위해 여성을 고려한 운영방법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반영하고자 하였다.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의 대상이 여성 체육교사인 만큼 여성들이 겪고 있는 출산, 육아, 가사로 인한 어려움을 고려하여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운영방법을 개선하고자 한 공동체도 있었다.

운영진들끼리 회의를 해서 계속 이 방향대로 나갈 수 없으니까, 좀 나은 방향으로 나가야 될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여자 선생님들의 육아나 이런 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 형성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선생님 임신 중이니까 괜찮아요. 이게 당연하게 배려를 해주는, 그리고 육아를 하시는 분들 너무 어린 경우에 애가 이제 막 태어났거나 이런 경우에는 육아 때문에 못 오신다고 하시는데 애가 좀 크고 맡기고 오거나 또는 데려올 수 있는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많이 참여하고 계세요.

(한미소 교사, 심층면담)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가 지속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새로운 구성원의 유입은 필수적이다. Wenger(1998)는 새로운 구성원이 교사학습공동체에 들어오게 되면 구성원들 간에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고, 이를 통해 새로운 관심사를 불러일으켜 공동체에 또 다른 자산을 축적하게 한다고 하였다. 지금까지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에서 새로운 회원을 모집하는 방법으로 직접 여성체육교사들에게 연락하거나, 연수에 찾아다니며 홍보하는 방법, 메신저, SNS를 통한 홍보 방법을 사용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으로도 소외되는 교사들이 있으며, 참여하고 싶어도 어떻게 참여해야하는지 모르

고 있던 교사들도 많이 있었다. 따라서 소외되어서 참여하고 싶어도 못하는 여성체육교사들이 없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전에 계시던 체육 선생님도 여자거든 나랑 동갑이야. 내가 데려왔어. 그 사람도 한 번도 여자 (체육)교사하고 근무해본 적이 없고 이런 커뮤니티를 해본 적도 없고, 심지어 전체 단톡방에도 없어. 나는 근무하면서 단톡방에서 마주친 사람 한 명도 없어.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정보가 되게 많고 그래서 다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이 단톡방에서 배제된 선생님들은 더 이런 걸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가 필요하지.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의 지금 대부분 홍보가 단톡방으로 하잖아요.**
>
> (이의리 교사, 심층면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공동체이므로 공문을 통해 곳곳의 교사들에게 안내될 수 없다는 점에서 제한적일 수 있다. 하지만 홍보와 공동체 운영 개선방안을 통해 참여 증진이 된다면 이러한 움직임이 점차 사회적으로 홍보가 되고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

'초신성 공동체'는 인터넷 홈페이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활동을 널리 알리고 있었다.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의 필요성과 목적, 활동 등을 안내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지원, 인정을 받을 수 있었다.

> 일단 저는 제가 여자 선생님으로서 먼저 활발하게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그걸 반영한 게 이제 여자 교사 공동체라는 거, 그것 때문에 **체육에만 한정돼서 우리끼리의 이야기로 끝나면 이거는 확장성이 없어요.**
> 국어 선생님도 체육을 같이 알아야 되고 과학선생님도 알아야 되고, 그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선생님도 당연히 알아야 돼 그래야지 체육 교육이 빛을 바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
> (홍사랑 교사, 심층면담)

2) 지속가능한 활동

효과적인 교사학습공동체의 운영을 위해서 프로그램 내용을 잘 구성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통해 공동체 구성원들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 교사들의 배우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시킬 필요가 있다. 운영내용으로는 먼저 내·외부와의 소통을 통해 개인과 공동체와 관련

한 관심사와 문제들을 바라봐야한다. 그리고 개인과 공동체가 성장, 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

가) 함께하는 프로그램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 참여의 어려움으로 여성체육교사들의 모임에 남교사들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의 취지와는 다르게 오해한 것이며, 성별을 떠나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 운영진들은 취지가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남자체육교사, 관심 있는 교원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였다.

> 생각을 해보면 저경력 남자 교사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도 참여를 하고 싶은데 어려운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저희가 좀 진행을 했던 표현 활동 영역이라든지, 융합 수업 영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같이 걱정하고 고민하시는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 **아까 말씀드렸듯이 참여를 원하시는 남자 선생님께서 계시는 것 같아가지고 이벤트성으로 함께 전반적인 사항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연수도 좀 계획 중**에 있습니다.
>
> (정솔선 교사, 심층면담)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 운영진들은 도움을 주고자 하는 교원, 같이하고자 하는 교원들에 대해서 항상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앞으로도 함께 할 수 있는 방향을 생각하고 있다.

> **남자 쌤들이 얘기를 많이 들어보니까 또 다른 시선이 있구나 해가지고 평가 계획이나 이렇게 수업을 얘기할 때는 함께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기 연수 같은 경우에는 뭔가 분반을 한다거나 그러면 더 좋을 것 같기도 한데, 평가 계획이나 수업을 준비할 때는 같이 하면 더 다양한 시선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경우에는 같이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해요.
>
> (이명랑 교사, 심층면담)

나) 성장, 발전의 장이 되도록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는 여성체육교사들의 성장과 발전의 장이 될 수 있다. 여성체육교사들은 학교와 수업에서 소외를 느끼는 경우가 있어왔고, 현장에서 혼자 문제를 해결하거나 방법을 터득해 왔었다. 또한 여성체육교사들은 결혼을 기점으로 출산 및 육아를 겪게 되는데, 이러한 요소가 교사 전문성의 퇴화 및 정체의 요인으로 다가오기도 하였다(박준혁, 2022). 여성체육교사들은 소외, 정체성의 혼란, 육아, 가사의 스트레스 등을 해소할 수 있고, 이로 인한 공백기를 채울 수 있는 방법으로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를 선택하였다.

조행복 교사는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에 참여하는 교사들은 자신들이 공동체를 통해 성장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기에, 그러한 목표를 채워줄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개인과 공동체가 서로 소통하며 같이 나아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시해야 한다.

> 정말 농구를 못해서 왔는데 그 부분을 충족해 주지 못하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야 스스로가 힘들어서. **그 부분을 케어해 줄 수 있다면 훨씬 이제 스며들 수 있는 확률이 더 높겠지.** 처음에는 우리가 이 모임에 농구를 보고 오는 경우가 많잖아. 그러니까 그 부분을 조금 빨리 흡수해 주면 함께 갈 수 있는 게 더 커지겠지.
> (조행복 교사, 심층면담)

하인성 교사와 조행복 교사는 여성체육교사들이 출산과 육아를 통해 정체성 혼란과 경력 단절을 경험한다고 하였다. 역량을 가진 교사들이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에서 능력을 펼치도록 기회를 제공해준다면 개인과 공동체 모두, 호혜적인 관계 속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다.

> **여자 체육교사들이 정체성을 많이 혼란스러워하는게 없지 않아 있거든.** 왜냐하면 육아하고 여자로서의 체육교사를 활동을 하면서, 이제 자기가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생각이 들 것 같기도 해. 그러니까 내가 이런 연수에서 강의를 맡아서 해. 그럼 그 자체가 성장이 되고 자기 스스로가 되게 만족스럽잖아. **훌륭한 애들이 많은데 그 인재를 좀 우리 팀에서 이용을 하면 영향력도 보일 수 있고 그리고 우리 팀 스스로도 되게 즐겁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 (조행복 교사, 심층면담)

여자체육교사가 이제 출산하고, 육아하고 몸은 힘들지만 가장 뭔가가 9~15년 되면 수업에 대한 노하우나 행정적인, 운영적인 노하우나 해줄 말도 많고 도와줄 부분도 있는데 그냥 멈추는 거죠. 애 키워야 되는데, 가서 해보니까 너무나 부대끼고 힘들고 체력이 두 배로 들고 하니까 그냥 한두 번은 시도를 해보지만 금방 이제 무너져 버리죠. 그런 시점에서 그분들이 자신의 역량을 좀 발현한다면 엄청나게 잘 될 거란 말이죠. **그런 기회가 없었을 뿐이지 또는 그런 기회를 그분들이 만들기가 쉽지 않았을 뿐이지, 분명히 이분들의 어떤 역할이 더 붙여진다면 훨씬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거다**...

(하인성 교사, 심층면담)

다) 다양한 프로그램 계획

지금까지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에서 이루어진 활동 내용은 주로 실기 연수, 강의식 연수 등의 형태로 이루어져왔다. 이로 인해 '교사학습공동체 활동은 곧 연수'라는 인식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들은 각자의 목표에 알맞은 다양한 실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기획할 필요가 있다.

최책임 교사는 '에이스 공동체'가 단순한 친목 모임, 동호회의 역할 뿐만 아니라 교육적인 목표와 가치를 실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고, 그러한 활동을 생각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이제 실기 연수 위주로 연수를 진행했다면, 연구해서 다른 수업 연수도... 이제 수업 연구대회 나가서 1등 하신 선생님이 회장님이고, 너무 잘하는 분들이 있어서 **수업 노하우라든가 이제 저경력 선생님들한테 수업지도 하는 방법이라든지 평가 계획 세우는 법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실무적인 부분의 연수도 하려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친목 운동모임 그 이상의 뭔가를 하고 싶어서 계속 회의를 하고 있거든요. 여성들이 모여서 하는 운동 동호회 이상의 뭔가 저희가 교육적인 가치를 가지고, 이 모임을 가지고 가려면 그냥 단순한 친목 운동모임보다는 조금 더 **저희 지역에서는 교육적인 가치에 치중해서 연구회 활동을 조금 더 내실 있게 키워가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최책임 교사, 심층면담)

한미소 교사는 실기위주의 연수도 좋지만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자신이 직접 적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나눌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넘버원 공동체'에서 교수학습 자료를 함께 개발한 경험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작을 해보고자 하였다.

실기 위주도 중요하지만 수업 방법이나 평가 계획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도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까지 연수를 했을 때 넷볼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실기를 하고 수업 운영 방식 전달, 이렇게 했더라면 어떤 한 종목을 가지고 평가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 얘기를 나누고 구체적으로 만드는... 그래서 이번에 축구 연수를 할 때, 시범 보이는 영상을 만들자 해서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했거든요. 근데 이제 영상에 본인이 들어가 있으니까 학생들한테도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걸 시범을 보여주는 것도, 내가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했다는 데 의미도 있고 학생들한테 더 가깝게 느껴지니까 학생들이 좋아해서 앞으로도 한 가지 종목이 끝이 아니라 계속 다음 종목에서도 이거 이렇게 해보자라는 의견이 나와서 그거를 이제 반영을 해볼까 해요.

(한미소 교사, 심층면담)

'원더풀 공동체', '초신성 공동체'에서 리더교사인 이열정, 홍사랑 교사의 대화에서 그들이 희망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그들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자신들만의 교수학습법을 재생산해 내는 마중물로 삼고 싶어 하였다.

이열정: 이제 축구를 했으면 저는 1학기 때 배운 걸 바탕으로 제가 그냥 2학기 때 바로 수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중간에서 거르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 이제 수업 계획서를 짜서 게임 같은 거, 변형 게임 리스트를 쫙 짜서 이걸 하나씩 해보는 거죠. 이걸 같이 공동체에서 하고 싶은데....

홍사랑: 저는 그거를 같이 하고 싶은데 일단은 저만 하고서 저 이렇게 수업 했어요라고, 근데 이걸 이제 **연수가 끝났으면 그거에 대한 공부모임처럼 연결됐으면 좋겠어요. 뭔가 마중물로 쓰고 싶은데**

(홍사랑, 이열정 교사, 포커스그룹면담)

Wenger(2002)는 실천공동체의 효과적인 운영방안으로 친교를 위한 공간과 적절한 자극을 조합한 운영방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교사학습공동체 구성원들의 결합과 친밀감을 높이기 위해 워크숍, 전시회 등을 통하여 서로 다른 형태로 자연스러운 접촉을 활성화 할 수 있다. 정기적인 활동은 관계성이 안정되도록 하지만, 새롭고 흥미로운 이벤트들은 일상의 모험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준다.

그리고 원래 **정기총회** 같은 경우에는 다 같이 펜션에 가서 이제 게임하고 레크레이션 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운영이 안 됐어요.

(한미소 교사, 심층면담)

워크숍 때 가서 운영방안 얘기하고, 저희 막 그런 이벤트 같은 거 진짜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가을 운동회** 준비해야 할 거, 작년에 시작이었어요. 작년에, 작년 **연말 파티**를 시작으로 이제 1학기 연수 끝나고, 강사 선생님들 몰래 카메라 겸 이제 쫑 파티를 계기로 해가지고...

(이열정 교사, 심층면담)

다. 사회적 차원

사회적 차원이란, 개인과 공동체를 제외한 사회와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정책적 요인들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 교육청, 교육지원청 차원을 제시하였다.

1) 협조적 학교 문화

학교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 운영 활성화 방안은 '협조'와 '의식개선'이다.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 운영 교사들은 학교차원에서 해줄 수 있는 협조로 먼저 장소 제공을 이야기 하였다. 다양한 지역에서 오는 교사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로 실기도 하고, 수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는 등 시설을 갖춘 환경이 필요하다. 정기적인 모임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공간이 필요하지만 공식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교사단체, 연구회가 아니므로 장소 대관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의 리더교사들은 장소 대관을 하고자 했을 때, 확실하게 단체의 정체를 증명할 수 없어 교사 공동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곳에서는 장소 대관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학교의 유실 공간이 학생들을 위한 공간이지만 첫 번째로 학생들이지만, 이제 거시적으로 바라보면 교사들을 위해야 교사들이 열심히 해서 학생들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럼 이 공간을 어쨌든 교사들이 잘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건데, 좋은 공간들이 있다면 **저희가 학생들의 교육 활동에 침해되지 않는 선에서 활용을 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학교에서 협조가 됐으면 좋겠고**...

(전미래 교사, 심층면담)

조행복 교사가 리더로 있는 '함께해 공동체'는 장소 대관에 어려움을 겪어 활동 장소를 여러 번 옮겨 다니는 상황을 겪기도 하였다.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 참여 교사들이 꾸준하게 참여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으로 고정된 장소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 **우리가 이 모임을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는 장소 섭외가 제일 처음인거 같아.** 우리가 멤버가 변할 거라 생각하지는 않아. 우리가 하고 싶은 마음도 변할 거라 생각하지 않아. 그런데 중요한 건 장소가 길게 가느냐 안 가느냐에 중요한 거지. 그리고 이제 그 위치에 따른 것도 되게 큰 거 같아. 위치,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시흥에서 시작했지만 다시 안양으로 들어갔고 다시 당정으로 들어갔고 위치에 따라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모일 수 있는 장이 얼마나 안정적이고 정확한가가 우리 팀에는 가장 큰 숙제가 되겠지**.
>
> (조행복 교사, 심층면담)

다음으로는 학교에서 구성원들의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와 참여하는 교사들을 바라보는 의식 개선이 필요하다. Wenger와 Snyder(2002)는 실천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해 내·외부 관점 간의 열린 대화를 지향할 것을 제시하였다.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 운영진과 구성원들은 이러한 활동이 사회에서 의도와는 다르게 편견으로 작용할 것을 염려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오해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소통과 서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학교 관리자들은 교사들의 연구회 활동, 학습공동체 활동을 반기면서도, 한편으로는 학교 업무를 수행하는데 피해가 생길까 찬성 반, 걱정 반의 태도를 지니고 있었다. 전미래 교사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학교에서 관리자분들이 공동체 참여교사들에 대한 인정과 이해, 협조적인 분위기를 구성해주기를 희망하였다.

> **학교에서 관리자분들이 이런 교사들이 이런 교육 활동이나 연구 활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진짜로 격려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너 왜 나대면서 이렇게 하냐.' 이런 느낌이 아니고, 진짜로 '저 선생님은 진짜 열심히 하려고 이런 것까지 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
> (전미래 교사, 심층면담)

학교 관리자 외에도 동료교사, 학생들의 의식개선이 필요하다.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에 참여하는 교사들의 수업개선에 대한 노력은 동료교사의

반대로 그냥 묻혀버리게 된 경우도 많았다. 공동체 활동을 통해 새롭게 수업에서 활용해볼 수 있는 종목, 평가방법, 다양한 게임들은 시도해보지도 못하고 잊혀지게 될 것이다.

학생들의 경우에도 여성체육교사들이 여학생 체육활성화에 강점을 두는 것에 대한 반발이 있음을 이의리 교사의 면담을 통해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프로그램들에 대한 충분한 안내와 설명으로 극복해나가야 할 것이다.

> 대부분 체육 시간 보면 남자애들은 우리가 막 이렇게 안 해도 알아서 하는데 여자애들은 우리가 땀 흘리고 하자 하자 해야 움직이는 애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될 필요가 있어. 여자는 점점 위축돼. 체육 시간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 수업에서도 무슨 양성평등 얘기만 하면 진짜 완전 극단적으로 고등학교 애들은 특히 더해. 그러니까 여학생만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으면 난리 나지. 지금 우리 여기서도 여교사 공동체 한다고 난리 났던 것처럼. **그런 의식 변화가 선행되어야 되는데…**
>
> (이의리 교사, 심층면담)

2) 교육청, 유관기관의 지원

기존의 연구들을 통해 교육청, 교육지원청, 유관기관 차원의 운영 지원 조건으로는 행·재정적 지원 방안, 정책적 지원 방안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먼저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향에 있어서 교사들의 요구를 파악하여 지원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되었다.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 강사 지원, 운영 예산, 장소 운영에 필요한 자료 등을 제공하여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다.

> 장학사님들이나 이런 전문직에 계신 분들이 **자발적인 교사들이 모여 있는 모임이나 공동체가 있으면 이런 곳들에서 요구하는 것들, 도와달라고 이렇게 도움 요청하는 부분들을 좀 잘 구성해서 연결만 지어주셔도 교육청도 잘 되고 저희 모임도 활성화되고 그리고 이것이 흘러들어가서 어쨌든 학생들까지도 잘 될 수 있는** 그런 뭔가에 작은 공 같은, 그런 시작점이, 나비 효과의 시작점이 되는 될 수 있는 부분들이 포인트가 너무 많이 보이는데, 이런 것들을 절차상의 장벽 때문에 행정상의 문제 때문에 그런 어려움 때문에 힘을 내지 않고, 그러니까 에너지를 아끼는 거죠 그냥.
>
> (전미래 교사, 심층면담)

교육청 단위로 교사학습공동체 활동에 대한 재정 지원에 차이가 있으며,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교육청에 등록을 해야 한다. 교사학습공동체에 대한 지원을 받기위해서는 계획서 및 결과 보고서 작성, 예산 사용과 관련한 보고 등 행적적인 업무가 복잡하고 많아 어려움을 겪는 교사들도 있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학습공동체에 대한 교육청 경비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박영숙, 2016). 더욱이 등록되지 않은 교사학습공동체들은 각자 활동비를 마련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다. 대부분의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들은 자발적으로 발생하여 스스로 예산을 마련해가고 있다. 자발적으로 발생한 교사학습공동체 지원에 대한 일관성 있고 안정적인 지원시스템이 구축될 필요가 있다.

'초신성 공동체'는 학교체육진흥회와 협력하여 연수를 진행하였는데, 공적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전국적으로 알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던 새로운 연수 방식으로 '초신성 공동체', '학교체육진흥회' 모두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 저희가 '초신성 공동체'로 활동하면서 이제 이런 연수를 계속 열고 있으니까 여학생 활성화로 해서 여자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를 열고 싶다고 기존에 얘기를 조금씩 해왔는데, **그중에 학교체육진흥회라는 기관에서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 그러면 체육 실기 연수를 같이 열어보자 해서 여자, 남자 반으로 분반해서 실기 연수를 했었거든요. 이제 뭔가 전국적으로 파급되기 시작했죠**. 그런 시도를 해주신 것, 저희의 의견을 많이 반영을 해 주셔서 그때 모임 나눔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요소들도 같이 넣어서 저희 스타일로 연출을 하게 되니까 되게 만족도도 좋고, 그런 파급력이 이제 정식 기관을 통해서 더 확산이 되는...
>
> (전미래 교사, 심층면담)

정책적 지원 방안에는 교사학습공동체 정책을 지원하는 방안, 교사학습공동체의 지역적 불균형을 지원하는 정책적 방안이 포함된다.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 활동에 있어서 운영진들은 교육청 차원의 관심과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를 촉구하고 있었다.

> 다른 연구회 보면 이제 교육청에서 참석을 하시더라고요. 응원하러 오시고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는 여자 체육교사 중에 좀 나이 드신 위쪽이 없어요**. 계속 얘기하는데 여성이 적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나이 많은 선배들 중에는 가정을 버리고

이렇게 꾸준히 참여하신 부분이 업무의 가장 부정적인, 차이점이라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책임 교사, 심층면담)

이러한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 내기위해 여러 공동체가 모일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성공요인을 중심으로 지원해야 한다. 정솔선 교사는 체육교육축전 행사에서 해당지역의 다양한 체육교사공동체들을 알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교육감과 교사들의 토론 자리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와 필요한 부분들을 바로바로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하였다. 따라서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도 체육축전 등의 함께 모이는 행사에 참여하여 홍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향을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

교육청에서 자율공동체 축전 같은 거를 만들어주셔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작년에 인천은 인천체육교육축전을 인천대에서 했는데, 8개 체육과 전학공 대표 분들끼리 모여서 아래서부터 기획해서 축전을 했어요. 서로 다른 교육공동체 선생님들 발표도 들어보고 시작 전에 교육감님 모셔서 체육쌤들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 교육감님한테 바로바로 요청하고 얘기하면서, 건강체력교실 운영 같은 부분에 있어서도 학교에 예산지원이 올해 처음 이뤄진 것도 있고 현장목소리에 좀 더 귀 기울이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자리가 있으면 발전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도 거기 가기 전까지는 인천에 체육과 교육공동체가 여러 개가 운영되고 있는지도 잘 몰랐어요**. 인천체육교육축전하면서 저희가 잘 안된 부분도 쌤들이랑 나누면서 해결방안을 찾아보는 시간도 좋았어요.

(정솔선 교사, 심층면담)

수도권 외 지역의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 운영진들의 면담을 통해서 지역적으로 여성체육교사, 학생들의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 환경에 차이가 있으며 지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하인성 교사는 수도권 지역에서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자율연수 등 다양하게 운영되어지고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하인성 교사의 지역에서는 활동할 수 있는 분위기와 시설 환경적인 면에서 어려움이 있음을 표현하였다.

지금 경기도 수도권 이런 데서는 자율 연수를 하는 게 되게 많잖아요. 내가 필요하면 가도 저는 전국 단위로 받으러 다녀요. 근데 경북 자체에서 그런 건 되게

좀 보수적이고 조금 자유롭지 못한 게 아니라 되게 좀 굳어져 있어요. 되게 그냥 정적이에요.

(하인성 교사, 심층면담)

김성실 교사는 지역에 체육활동 시설이 부족하여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에이스 공동체'에서 계획하여 교육청의 지원으로 실행할 수 있었다. 이처럼 교육청과 관련 기관에서는 프로그램 활동에 필요한 부분들을 지원해주어야 한다.

저희 지역이 되게 커요. 지역 자체가 지역의 규모가 되게 크고 면적이 넓다보니까 학교가 되게 많이 퍼져 있는데 **그에 비해서 저희가 제반 시설이라든가 그런 인프라는 좀 약한 편이에요**. 아무래도 도시가 아직 규모에 비해서 성장하지 못한 도시라서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어떤 종목을 해보고 싶어도 그 인프라가 만들어져 있지 않다거나, 아니면 그 인프라까지 가는 교통이 약하다거나 이런 게 좀 되게 많아요.

(김성실 교사, 심층면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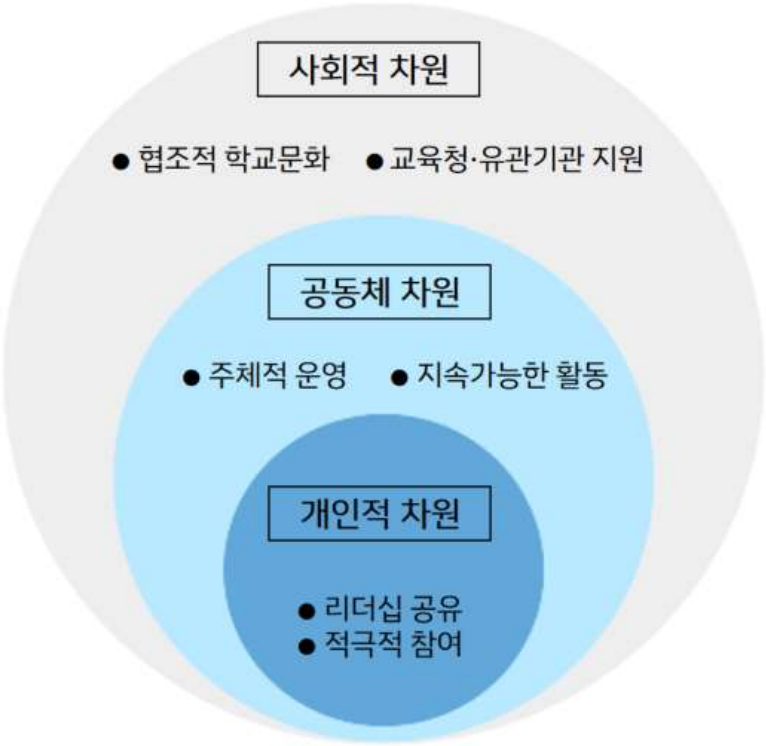


그림 17.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 성공적 운영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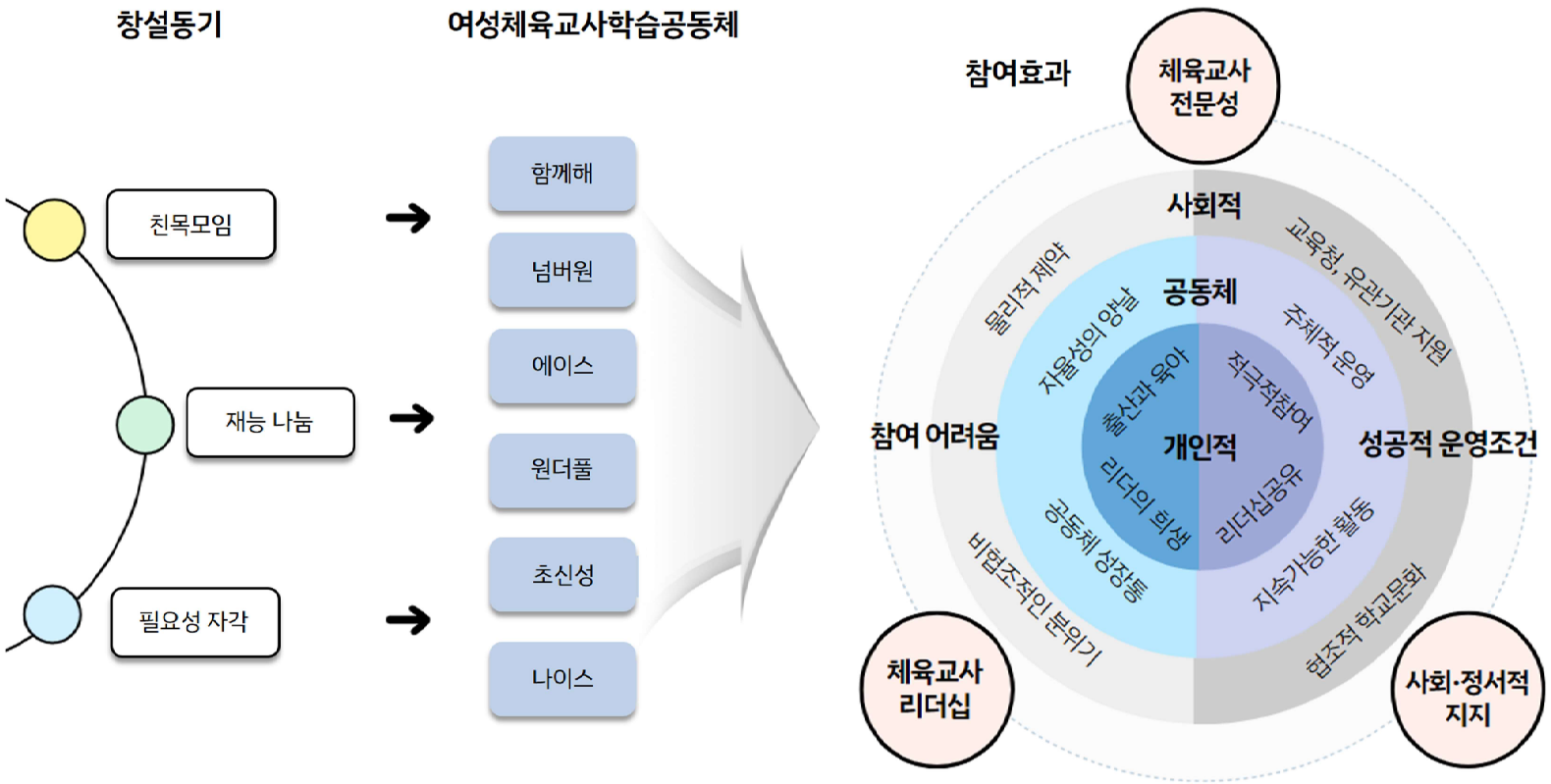


그림 18.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의 탄생-효과-어려움-성공요인

4. 종합논의

가.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 발생

교사는 학생들의 학습에 최전선에서 영향을 미치는 존재로, 교사로서 일을 잘 해내기 위해 지녀야하는 자질이 있으며, 그러한 자질들은 지속적으로 개발 되어야 한다. 교사의 전문성 개발을 위해 그동안 전통적으로 이루어져왔던 교사 전문성 개발 방법은 탈 맥락적이었고, 일회성의 과정으로 학습을 향상시키는데 비효율적이었다(Guskey, 2002). 이러한 전통적 교사 전문성 개발 방법의 대안으로 교사학습공동체가 주목받고 있으며 공동체적 접근이 교사들의 전문성 개발에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서경혜 2009; 오승현, 2014;이의재, 유정애, 2016; Armour & Yelling, 2007; Goodyear & Casey, 2015).

체육교과 교사학습공동체는 초등학교, 중등학교에서 활발하게 운영되어지고 있으며, 그에 따른 효과 탐색에 관련한 연구들도 많이 진행되어져 왔다(이승배, 2010; 오승현, 2014; 조기희, 이옥선, 2016). 하지만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 활동과 그에 대한 연구는 최덕묵, 고문수(2011)의 연구를 제외하고는 전무한 상태였다. 기존의 체육교사학습공동체에서 남성체육교사 위주의 운영으로 인하여 여성체육교사들이 참여시 그 안에서 유대관계 형성이 어려우며, 주변인의 경험을 하고 있다는 결과가 있었다(윤기준, 전세명, 정현수, 2017). 또한 연구 참여자들의 인터뷰에 따르면 과거에도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가 운영되었지만 소수의 인원을 대상으로 하였고, 일정기간 지속되지 못하고 사라지게 되었다고 하였다. 따라서 현재 발생하고 있는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들의 전국적인 현황과 효과를 탐색하여, 여성체육교사들에게 어떠한 긍정적인 효과를 제공할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운영되어질 수 있도록 운영조건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교사들이 학교 밖에서 자발적으로 참여를 희망하여 공동의 가치와 비전을 가지고 수평적 관계로 상호작용하며 교사의 전문성 및 학생들의 학습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체육교사들의 모임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1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전국에 분포되어진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는 모두 여성체육교사들의 필요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형성된 공동체이다. Wenger(2007)는 실천공동체가 다른 공동체, 커뮤니티와 구별되는 점으로 공동업무, 상호참여, 공동자산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선정된 6개의 공동체는 실천공동체로서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며, 정도의 차이는 공동체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었다.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의 발생 동기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었다. 먼저 친목을 위해 만들어진 경우이다. 여성체육교사들은 체육교과 내에서 소수인원이며 지역별로도 상당한 인원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소수의 여성체육교사들이 모임으로 만나 서로의 학교생활이 어떠한지, 고민은 무엇인지, 수업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야기를 나누던 모임이 점차 교사학습공동체로 방향을 잡아가게 되었다.

두 번째로 자신의 재능을 기부하고자 여성체육교사들을 대상으로 연수, 모임을 만들었다가 공동체로 발달하게 된 경우이다. 실기 향상을 위해 여성체육교사들을 대상으로 자율연수를 열었었고, 이러한 활동에 참여인원이 증가하게 되어 전문성 개발 활동의 장이 생기게 되었다.

세 번째로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의 필요성을 느낀 여성체육교사들이 공동체를 만들게 된 것이다. ‘원더풀 공동체’의 리더교사는 해당 지역 체육교과연구회에 참여하고자 하였는데, 여성이라는 이유로 거부를 당하였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여성체육교사들의 전문성을 개발하기 위한 실기 연수를 개최하게 되었는데 참여반응이 좋았고 앞으로 이러한 것들에 대한 필요함을 느껴 공동체로 만들어 실기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었다. ‘초신성 공동체’, ‘나이스 공동체’는 여성체육교사들이 학교 현장에서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고, 교류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함을 느끼고 다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게 되었다.

이옥선 외(2018)의 연구를 통해 교사들의 비공식적인 전문성 개발 형태에 있어서 자발적 의지의 수준이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으로 나타났다.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도 여성체육교사들의 자발적인 의지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유사하였으며, 이외에 교직에서 경험을 통해 느낀 공동체의 필

요성과 어려움에 대한 보완과 해결책의 방안으로써 참여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표 20.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 발생동기 및 형태

시작동기 / 형태	친목	재능기부	필요성
운동/실기연수		함께해	원더풀
다양한 활동	넘버원 에이스		초신성 나이스

나.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 참여

본 연구는 실천공동체의 지식 창출 과정을 바탕으로, 자발적으로 운영되는 교사학습공동체들의 참여효과에 대한 기존 연구들의 결과에 더하여, 여성체육교사들만의 교사학습공동체 활동을 통해 나타날 수 있는 효과와 어려움을 탐색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먼저, 연구 결과를 통해 연구 참여자들은 대부분 체육교사의 전문성을 수업 운영과 실기능력에 초점을 두었고, 공동체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실기연수를 주로 희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유는 연구 참여교사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알 수 있었는데, 자신들의 학창시절 때 체육수업, 스포츠 경험이 부족하여 현재 그것을 채우고자 실기연수를 필요로 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노력하고자하기 때문이었다. 이옥선, 조아라, 홍예리(2021)는 여성체육교사들이 과거에 운동을 잘하는 여학생으로 경험한 체육활동은 교직 입문과정에서 기능위주의 수업으로 재생산 되거나, 실제적으로는 다양한 스포츠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여 내용지식의 결핍을 가지게 되고 체육수업 현장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음을 보고 하였다.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는 서로간의 교류 및 공감을 나누는 사회적, 정

서적 지지의 장이 되었다. 교사학습공동체에서 교사들의 협력적이고, 친밀한 관계가 교사전문성 개발과 관계가 있음을 선행 연구들을 통해 알 수 있다(Keay, 2006; O'Sullivan & Deglau, 2006; Parker et al., 2010). 여성들만의 특징으로 인해 기존의 교사학습공동체 활동에 참여함에 있어서 차이점을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차이의 가장 큰 이유는 연구 결과를 통해 출산과 육아, 그로인한 공동체 자율적 참여에 대한 이해라고 볼 수 있다.

여성체육교사들이 결혼과 출산, 육아로 인하여 자신의 전문성 개발을 위한 활동보다 '아이' 중심의 활동에 더 초점을 두게 되었으며 그로 인해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 활동 참여가 어렵게 되었다. 선행 연구에서도 여성체육교사들은 결혼 이후 출산과 육아를 하면서 정체성 자체가 체육교사보다 엄마라는 역할에 중점을 두게 되어 실천공동체 활동참여에 있어 중단을 하게 되고, 체육교사로서의 전문직 정체성의 성장이 더뎌지게 된다고 하였다(김대훈, 2014; 박준혁, 2022; 이승배, 2008; 조기희, 2015). 이러한 부분들은 공동체 활동에 참여했을 때 서로의 고충에 대해 이야기를 하며 공감을 하게 되는 결속력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또한 참여에 대해 다른 교사학습공동체들과는 다르게 이해와 공감을 통해 참여 활동에 대한 자율성을 가지게 되었다.

교사학습공동체에서의 교사리더십과 관련하여 국내외를 막론하고 활발히 연구되어져 왔다(Harris, 2003; Fullan, 2006; 박수경 외 2016; 이경호, 2019; 김연경 외, 2020). 조기희(2019)의 연구에 따르면 공동체 활동을 통해 책임감, 의무감, 희생, 봉사정신과 같은 마음이 커지게 되고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체육교과 활동에 리더십을 발휘한다고 하였다. 여성체육교사들도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를 통해 리더십을 획득하고 발휘할 수 있는 장을 가지게 되었다.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 구성원들은 공동체 내에서 자신이 맡은 일은 무엇이고, 서로 구성원들과 소통하며 각자의 자원을 공유하는 전면적 참여자일 수도 있고,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비참여의 과정을 보여주는 구성원일 수도 있다(Wenger, 1999). 전면적 참여자들은 공동체를 이끌며, 비참여자들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활동의 장을 마련해주기도 하였다. 지금까지 현장에서 열심히 활동 중인 여성체육교사들의

사례가 많이 밝혀지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가 이러한 사례를 발굴하고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다.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 활성화

본 연구는 남성중심문화의 학교체육 현실 속에서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를 통해 여성체육교사들이 그들의 전문성과 영향력을 어떻게 개발하고 실천하고 있는지 탐색하고자 하였다. 여성체육교사들이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를 통한 전문성 향상과 리더십 개발의 양상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지금까지 여성체육교사의 정체성, 리더십, 역량 등과 관련한 선행연구(김미양, 2021; 김혜경, 2008; 김혜연, 2020; 이옥선, 조아라, 홍예리, 2021)들을 통해 다른 분야에서도 소수자들의 입지를 키우는데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간호사의 경우 학습조직화가 병원 조직의 성과를 달성하는데 매우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었으며(정석희, 2003), 특히 남성 간호사들의 경우 남성간호사 모임을 통해 소수로서 겪는 고충을 나누며 업무를 위한 활력을 얻었다(김지혜 외, 2016). 초등학교에서 남성 교사들의 경우 남성 관리자를 포함한 남교사회라는 비공식적 조직을 만들어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손형국, 2015) 이 과정에서 정체성 정립과 사회화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Catherine et al, 2020). 전문직, 기업영역 뿐만 아니라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이 공동체를 형성하고 구성원들 간의 소통과 상호작용을 통해 전문성을 향상시키며, 수행하는 업무에서 겪는 어려움과 문제들을 해결해가고 있다(양흥권, 2011).

체육교사의 전문성은 도달된 종결 상태가 아니라 성장, 정체, 퇴보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속성을 지닌다(박준혁, 2022). 체육교사 본인의 전문성의 현 상태가 최고가 아니며 변할 수 있고, 더 나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아프리카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 라는 말이 있듯이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를 통해 다른 여성체육교사들과

상의하고 의논하며 자신들의 전문성과 리더십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교직 사회에서 보여준 체육교사들의 전형적인 전문적인 모습에서 벗어나,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를 통해 발전시킨 자신만의 전문성을 발휘하여 다양한 스펙트럼의 전문성 양상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보여진 여성체육교사들의 지속적인 전문성과 리더십 개발의 모습을 통해 자기 자신, 동료교사, 학생, 학교 등 여러 분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다. 학교체육에서 신체활동은 주로 남학생들에게 주도권이 있었으며, 여학생들에게는 부족한 신체활동의 기회가 돌아가고 있다(이창섭, 남상우, 여정권, 2013).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성체육교사들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여성체육교사들은 학교현장과 사회에서 체육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드러내야하며(장진솔, 2021),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 중 하나에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가 포함될 수 있다(김혜연, 2020).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를 통하여 다양한 실기연수, 동호회 활동, 학교 체육을 위한 연구 등의 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여성체육교사들의 모습은 학생들에게, 학교와 사회에 여성체육교사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으며, 체육진로와 관련해 롤 모델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가 바람직한 학교체육 문화를 형성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Ⅴ. 결론 및 제언

1. 결론

오늘날 학교에서 여성체육교사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여성체육교사의 역할과 비중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지금까지 여성체육교사와 관련된 연구는 부정적 경험, 어려움, 노력해야할 부분에 대해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현장에서 여성체육교사들은 그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고,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가 그들의 전문적 성장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여성체육교사들이 전문성과 리더십을 향상하기 위해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를 통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에 따른 연구의 목적은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의 형성, 운영을 통해 여성체육교사들에게 체육교사전문성과 리더십이 어떻게 함양되는지 알아보고,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조건을 탐색하는데 있다. 이를 통해 현직교사교육에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의 필요성과 앞으로의 발전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목적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의 현황과 운영방식은 어떠한가?, 둘째,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 참여의 효과와 어려움은 무엇인가?, 셋째, 교사전문성과 리더십 개발의 허브 역할을 위한 성공적 운영조건은 무엇인가? 본 장에서는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에 대해 탐색하여 도출한 결과와 논의를 종합하여 결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연구대상으로 선정된 6개의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를 활동 동기, 목적, 운영방식 및 활동내용을 토대로 운영 현황을 파악하였다.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들은 모두 여성체육교사들의 필요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형성되었으며, 실천공동체로서의 공동업무, 상호참여, 공동자산의 조건을 충족하였다.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의 발생 동기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었다. 먼저 친목을 위해 만들어진 경우이다. ‘넘버원 공동체’는 해당 지역 여성체육교사의 수가 적어서 소수의 여성체육교사들끼리 친목모임으로 시작하게 되었다. 스포츠 교류를 통해 전문성 신장과 친목을 도모하고, 여학생 학교 스포츠클럽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운영방식은 회칙을 통한 정기총회, 정기모임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으며 구성원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활동과 환경을 제시하는 모범적 협력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에이스 공동체’는 친목모임으로 시작하였으며 2020년에는 교과연구회로 등록하며 여성체육교사를 주축으로 한 여학생 체육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운영진에게 주어진 과도한 업무로 힘들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공동체를 운영하고 있다.

두 번째로 자신의 재능을 기부하고자 여성체육교사들을 대상으로 연수, 모임을 만들었다가 공동체로 발달하게 된 경우이다. ‘함께해 공동체’는 실기 향상을 위해 여성체육교사들을 대상으로 자율연수를 열었었고, 이러한 활동에 참여인원이 증가하게 되어 교사공동체로 발달하게 되었다. ‘손잡고 정년까지’를 운영 모토로 여교사들의 농구 기능 향상과 수업 공유,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운영방식을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참여 방식도 유동적이게 운영하고 있다.

세 번째로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의 필요성을 느낀 여성체육교사들이 공동체를 만들게 된 것이다. ‘원더풀 공동체’의 리더교사는 여성체육교사들의 전문성을 개발하기 위한 실기 연수를 개최하게 되었는데 참여반응이 좋았고 앞으로 이러한 것들에 대한 필요함을 느껴 공동체로 만들어 실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었다. 농구, 축구의 실기종목 위주의 운영이 이루어지며 열정적인 리더가 연수 활동, 수업 적용 사례 등의 자료를 공유하고 있다. ‘초신성 공동체’는 여성체육교사들과의 교류를 통해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는 장을 마련하고자 공동체를 설립하게 되었다. 운영진과 구성원들이 주체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수업 나눔 연수, 동아리, 실기연수 등 다양한 활동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이스 공동체’는 여성체육교사들이 학교 현장에서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고, 교류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함을 느끼고 다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게 되었다. 전국의 여성체육교사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매달 주제를 정해 비대면 연수를 하고, 상반기와 하반기에 대면연수를 진행하고 있다.

둘째,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의 참여 효과로 체육교사 전문성, 리더십, 사회·정서적 지지의 측면에서 살펴보았으며,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 참여와 운영의 어려움으로 사회생태학적 모형을 토대로 개인적 요인, 공동체 요인, 사회적 요인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체육교사의 전문성은 체육교사로서 교과지도, 학생지도, 업무처리의 영역에서 발휘하는 능(能), 지(智), 심(心)의 자질과 능력으로 보았다.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의 참여로 향상된 능전문성에는 수업실행능력, 체육교사의 실기능력인 운동수행능력이 있었다. 지전문성에는 체육수업 아이디어 및 체육평가와 관련된 수업평가지식, 체육교과에 대한 이론적지식인 체육교과지식, 체육업무와 학교행정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업무수행지식이 해당된다. 심전문성은 공동체 활동을 통해 수업자신감이 향상되었고, 다른 여성체육교사들과의 교류를 통해 체육열정을 다시 높이게 되었으며, 자신의 수업을 스스로 되돌아보고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반성적 성찰능력을 지니게 되었다.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를 통해 여성체육교사들의 리더십이 함양되었는데 그 특징으로 목표지향성, 공동체성, 과업주도성, 전문성으로 볼 수 있다. 목표지향성은 열심히 하는 여성체육교사들을 널리 알리고 발굴하며, 이러한 모습을 통해 결국은 체육교과의 위상을 높이게 되는 것으로 확장되어질 수 있다. 공동체성은 구성원들과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교류하는 것으로 자료를 공유하고, 다양한 지역, 경력, 나이의 교사들과 소통함으로써 긍정적인 영향을 갖게 되었다. 과업주도성은 구성원의 행동을 격려하며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과업을 적극적으로 주도해가는 리더십의 속성으로 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퍼실리테이터로서 책임감과 능력을 기를 수 있었다. 전문성은 관련 분야에서 전문적 지식, 유능함으로 교사와 학생들에게 롤모델로 작용할 수 있고, 공동체와 학교, 학생, 동료교사, 자신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통로기관의 역할을 하였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를 통해 긍정적인 사회·정서적지지의 효과가 나타났다.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는 공감과 위로의 장이 되었으며 친한 언니, 동생사이가 되어 모임을 통한 즐거움과 소속감을 가지게 하였다. 사회·정서적지지 요인은 기존에 존재하는 교사학습공동체들과는 다르게 여성의 특징을 고려한 공동체의 결과로 중요한 핵심 효과라고 볼 수 있다.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 활동에 어려움을 주는 요인으로 개인적 요인, 공동체요인, 사회적 요인으로 구분해서 살펴보았다. 개인적 요인으로 여성이기 때문에 자기중심에서 아이 중심으로 정체성이 변화하게 되어 공동체 참여가 어려워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공동체 운영하는데 운영진에게 일이 과중하게 주어지게 되어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운영하는 어려움이 나타나게 되었다. 공동체 요인으로는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가 대부분 초기 단계로 자리를 잡아가는데 있어서 어려움과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었는데 운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사회적 요인으로 과도한 업무, 거리와 시간적 제약, 지역적 차이의 물리적 제약 요소들과 학교에서 동료교사들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인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셋째,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의 성공적 운영조건으로 개인적 차원, 공동체 차원, 사회적 차원 3가지로 구분되었다. 개인적 차원으로는 리더십 공유를 통해 조직구성원들에게 권한을 나눠주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의욕을 잘 발휘하여 리더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해줘야 한다.

공동체 차원으로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교사학습공동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운영방법이 필요하다. 운영내용으로는 모두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활동으로, 실기 연수 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차원으로는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 교육청, 교육지원청 차원의 도움이 필요하다. 학교에서는 공동체 활동에 필요한 장소 제공 및 동료교사들의 의식개선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교육청, 교육지원청 차원에서는 교사들이 공동체 운영에 필요로 하는 인프라를 파악하고, 지원해주어야 한다. 정책적 방안에는 교육청 차원에서의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에 대한 관심을 갖고, 시·도간 넘어서 활동하는 공동체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연구결과들을 통해 세 가지 논의점을 종합해볼 수 있다. 첫째,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의 발생에 대하여 원인과 동기를 친목, 재능기부, 필요성에 의해서임을 세 가지로 나누어 보았다. 둘째,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 참여와 관련하여 기존의 교사학습공동체와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의 참여 원인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셋째,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필요성과 역할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가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는 시작점이 되어 다양한 체육교육 분야에서도 여성체육지도자들의 전문성과 리더십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공동체를 조직하는 움직임을 불러일으키기를 기원한다.

2. 제언

가. 현장실천을 위한 제언

첫째,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에 참여 후 실천과 반성, 그리고 나눔의 과정이 필요하다. 실천공동체는 지식을 습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습득한 지식을 바탕으로 실천하고 반성적 성찰을 반복해가는 공동체이다(Lave&Wenger, 1991). 따라서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는 활동을 통한 학습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실천을 한 후 다시 반성적 성찰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기존의 일방적 방식의 교사연수 위주로 이루어진 교사연수는 교사들에게 부족한 전문적 지식을 채워주는 목적이 있었고, 그로인해 교사들은 수동적인 태도로 참여하였다(조기희, 2015). 교사학습공동체는 학습이 이루어진 후 그에 따른 실천이 이루어지는 연동성이 요구되는 조직(이윤미, 정광순, 2016)으로 교사들의 전문성 개발 활동이 순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 여성체육교사들도 교사학습공동체에 참여 후 현장에서의 실천과 반성을 통해 다시 공동체에서 구성원들과 나눔의 과정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

둘째,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 간 네트워크 형성이 필요하다. <결과1>을 통해 살펴보면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마다 운영방식, 환경, 구성원들의 특성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또한 리더들은 공동체가 발전하고 안정되게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하고 있다.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 리더 교사들 간, 더 나아가 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네트워크가 생긴다면 서로의 장점을 배워 적용하고, 어려운 점들은 해결할 수 있는 도움을 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를 연결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셋째,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가 활성화되기 위하여 정책적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 <결과 3>을 통해 교육지원청, 교육청 차원에서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았다.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는 자발적인 비공식적 공동체들로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공식적으로

받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연구회, 교사학습공동체 외에도 교사들의 학습을 위한 자율적인 모임을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이 확대되어야 한다. 행정업무 절차의 간소화와 타 지역 간의 교사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모이게 되었을 때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야 한다.

나.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첫째, 장기적 관점에서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가 변화하고 유지하는 모습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에 대한 탐색하는 연구도 필요하다. 현재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들은 새롭게 생성되고 발전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 오랜 시간동안 공동체가 어떻게 발전하고 성장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 여성체육교사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들이 일시적으로 흐름에 의해 발생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종단적인 교사학습공동체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전국적으로 분포해있는 6개의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를 선택하였는데, 사정상 연구대상으로 제외한 공동체들이 더 존재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의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는 연구들이 실행되어질 필요가 있다. 여성 체육신규교사들의 공동체, 예비교사와 여성체육교사들이 함께 하는 교사학습공동체, 체육과 관련된 연구를 하기 위해 모인 공동체 등도 다양한 형태의 공동체들이 발생 가능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다양한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들이 운영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가 나아가야할 바람직하고 효과적인 형태의 공동체를 판단하여 교사학습공동체 운영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를 통해 향상된 교사의 전문성과 리더십이 학생들의 학습향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연구할 필요가 있다. 교사의 전문성 개발과 학생성취도 사이의 인과 관계를 평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결과이면서도, 가장 어려운 측면이기도 하다(Kerka, 2003). 지속적인 전문성 개발은 결과적으로 학생 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지만 구체적으로 측정한 연구는 거의 없다. 본 연구도 연구 참여자와의 면담을 실시하여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를 통해 향상된 교사의 전문성과 리더십을 확인하였지만, 학생이 교사들의 변화로 인해 체감하는 영향은 파악하지 못하였다.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의 궁극적인 성공 여부는 학생들의 체육교육에 대한 성장을 통해서 확인될 수 있다. 따라서 여성체육교사들의 전문성과 리더십 함양이 학생들의 체육교육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셋째, 여성체육교사들의 교사학습공동체에서 비롯하여, 체육계에 존재하는 여성 체육교육 전문인들의 공동체에 대한 탐색으로 연구 대상의 범위를 확장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여성체육교육 전문인들 중에서 여성체육교사만을 초점으로 공동체를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여성체육교육 전문인에는 엘리트 코치, 생활체육지도자, 무용예술 강사 등 다양한 전문인들이 해당된다. 현재 은퇴 여성선수들이 만든 사회적 기업으로 '위밋업 스포츠(We Meet up Sports)'가 있다. 연구에서 언급한 실천공동체로 연결될 수 있는 개념이며, 사회에서 볼 수 있는 여성스포츠 단체로서 의의가 있다. 여성체육교육 전문인들의 경우에도 공동체를 형성하여 어떤 특성을 보이고 효과를 가지게 되는지 파악하여 여성체육교사학습공동체와 비교를 해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남성중심 문화의 체육계에서 여성체육교육 전문인들의 전문성과 리더십을 향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강경화, 송기준(2010).병원간호사의 학습조직화와 학습지향성이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영향. **간호행정학회지, 16**(3), 267-275.

강연정, 이의재, 유정애(2021). 우리나라 체육교사의 직무영역 및 직무내용 분석. **Asi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and Sport Science, 9**(1), 107-115.

강지민, 박상봉(2019). 한 초등학교 여자체육전담교사의 체육수업 전문성 개발의 첫 경험. **한국여성체육학회지, 33**(4), 15-31.

강주형(2022). **고등학교 여학생이 지각하는 체육교사의 서번트 리더십과 체육수업 몰입, 체육수업 만족도 관계 분석**.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서울.

강신복(2000). 초임 체육교사의 교직 사회화 연구. **Journal of the College of Education (사대논총), 61.**

고연주, 김영주, 이현주, 임규연(2017). 교사학습공동체 관련 국내 연구동향 분석 : 주제분석법을 활용하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7**(4): 429-457.

김경은, 정지현(2016). 국내 유아교사학습공동체 관련 연구동향 분석. **어린이문학교육연구, 17**(1), 213-238.

김기주(2020). **교사학습공동체 활동을 통한 체육교사의 운동소양 함양과 수업전문성 특징**.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서울.

김남균, 심영택, 김민조, 이현명(2014). 교사학습공동체의 대화 분석과 교육적 의미 탐색: 초등 수학교과를 중심으로. **화법연구, 25**, 7-40.

김대훈(2014). **교사학습공동체 참여를 통한 지리교사 전문성 발달: 근거이론적 접근**.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청주.

김미양(2021). **여자 체육교사의 교육적 성장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청주.

김민조, 심영택, 김남균, 김종원(2016). 교사들의 ‘반(半) 자발성’에서 출발한 학교 내 교사학습공동체 운영사례연구. **한국교원교육연구, 33**(4), 223-248.

김병찬(2000). 교사교육의 패러다임 변화. **한국교원교육연구, 17**(3), 113-141.

김병찬(2005). 교사 지도성 개발에 관한 시론적 논의. **한국교원교육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19-59.

김병찬(2007). **교사의 지도성**. 이윤식 외 공저. 교직과 교사(pp.267-294). 서울: 학지사.

김병찬(2015). 교사리더십 개념 모형 구안 연구. **한국교원교육연구, 32**(1), 339-370.

김병찬(2019). **왜 교사리더십인가.** 서울: 학지사.

김세기, 이승만(2020). 여성 체육교사의 젠더 고정관념과 역할갈등, 직무 소진 및 만족의 관계.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14), 1003-1020.

김연경(2020). 전문적학습공동체 참여교사의 교사리더십 인식 및 강화방안 연구 **한국교원교육연구, 32**(1), 339-370.

김영천(2016). **질적연구방법론 I** : Bricoleur (3판). 서울 : 아카데미프레스.

김영태(1999). **교사 지도성 탐색**. 서울: 창지사.

김옥예(2006). 교사 전문성의 재개념화에 관한 연구. **교육행정학연구, 24**(4), 139-159.

김은지, 조송현, 추나영(2017). 중학교 체육교사의 감성적 리더십이 교사신뢰 및 수업몰입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학회지, 56**(4), 287-299.

김이경 외(2004). **교사평가시스템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김지혜, 박광옥, 김종경, 윤하정, 이진희, 조은경, 김순의, 김연희(2016). 상급종합병원 남자간호사의 일반병동 적응 경험. **간호행정학회지, 22**(5), 496-506.

김창걸(1999). 학교장의 변혁적 지도성과 귀인과의 관계 연구. **교육행정학연구 ,17**(2),131-161.

김창석, 추나영, 조송현(2022). 중학교 체육교사의 진성리더십이 교사신뢰 및 수업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체육학회지, 87**, 21-32.

김해경(2008). **중학교 여자 체육교사의 교직사회화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청주.

김혜연(2020). **중등 여자체육교사의 교사 정체성 형성과정과 요인 탐색**.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울.

김혜원, 안신기(2021).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학습공동체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분석. **의학교육논단, 23**(3), 194-203.

김효정(2016). **학교공동체 형성을 위한 긍정탐색모형 개발**.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부산.

나주영, 고문수(2016). 한 초등학교 여교사의 체육수업에 관한 자문화기술지.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6**(11), 707-729.

남상우, 이해령(2019). 초(超)남성적 학교체육 문화 내 여자체육교사의 젠더 수행 이론화.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32**(1), 1-19.

노종희(1998). 학교공동체의 개념적 분석과 그 구축 전략. **교육행정학연구, 16**(2), 385-401.

류민정(2011). 체육수업 시간에는 여자 선생님이 더 좋아요?: 학생이 인식하는 운동흥미, 수업노력과 교사 피드백을 중심으로, **체육과학연구, 22**(2), 1999-2007.

류민정(2012). 예비 체육교사의 사회적 친화력 및 상호학습 향상을 위한 온라인 카페(online cafe)의 효과성 및 활용 가능성 탐색. **체육과학연구, 23**(4), 947-958.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9체육백서**.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2022). **2020체육백서**.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박미림, 이옥선, 조기희(2015). 초등 여교사들의 교사 경력 주기에 따른 체육 가르치기의 어려움 탐색.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22**(1), 1-23.

박미혜(2011). **중학교 여자 체육교사의 교직생활 스트레스 적응 과정**.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대구.

박다은(2019). **교사학습공동체가 중등학교 사회과 교사의 수업 전문성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울.

박수경, 정미라(2016). **교사학습공동체에 리더로 참여한 유아교사들의 경험과 리더십 특징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유아교육학논집, 20(4).

박영숙(2016). **학교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교사학습공동체 운영 지원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 RR 2016-03.

박인서, 김승재(2009).『체육교사모임』 운영 교사의 내러티브 탐구.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16**(2), 135-154.

박재정, 조순묵(2003). 초등학교에서 교사의 성이 편중된 체육수업을 경험한 학생의 인식.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10**(3), 97-121.

박준혁(2022). **체육교사의 전문직 정체성은 어떻게 형성되어 가는가? 퇴화, 정체, 성장의 모습과 특징 알아보기.**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울.

박현진, 신혜원(2006). 고등학교 기술, 가정 교과 교사의 교수행동, 교수자신감, 교수만족도, 교원리더십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사례 분석.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18**(2), 111-123.

박호근(2005). 교원리더십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사례 분석. **한국교원교육연구, 22**(3), 47-73.

박효원, 정향윤(2020). 교사학습공동체 운영 개선방향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한국교원교육연구**, **37**(3): 465-491.

박희진, 고영규, 권동택(2018). 초등학교 교사가 인식한 전문적학습공동체 활동 저해요인에 대한 개념도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16), 651-674.

방서영, 이의재(2019). 무용전공 고등학교 초임체육교사의 교직 적응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교과교육학연구, 23**(5), 409-421.

배을규, 동미정, 이호진(2011). 전문성 연구 문헌의 비판적 고찰: 성과, 한계, 그리고 HRD 함의. **HRD연구(구 인력개발연구), 13**(1), 1-26.

배효승, 이정희(2020). 사회복지기관 사례관리자의 지식공동체 참여 경험 연구. **한국사회복지행정학, 22**(3), 1-39.

백은정, 남재화(2019). 초등학교 여교사의 체육수업에 대한 스트레스와 대처방식의 관계. **한국스포츠학회**, **17**(3), 265-273.

백현, 김용순(2010). 여행사 종사원의 셀프리더십, 태도 및 고객지향성의 구조적 관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0**(5), 398-406.

변수정(2016). **학교공동체 형성에서 교장의 역할에 관한 교육인류학적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대학원, 대구.

서경혜(2005). 반성적 교사교육의 허(虛)와 실(實). **한국교원교육연구**, **22**(3): 307-332.

서경혜(2009). 교사 전문성 개발을 위한 대안적 접근으로서 교사학습공동체의 가능성과 한계. **한국교원교육연구**, **26**(2), 243-276.

서경혜(2013). 교사학습에 대한 공동체적 접근. **교육과학연구**, **44**(3), 161-191.

서경혜(2015). **교사학습공동체 : 집단전문성 개발을 위한 한 접근**. 서울: 학지사.

서진아, 최정아(2012). 미술과 교수학습공동체에서의 반성적 사고와 실천에 관한 연구; ㅈ미술교과모임의 사례분석. **미술교육논총**, **26**(3), 321-354.

성희동(2001). **초등학교 자연과의 상황학습이 과학적 태도·탐구능력 및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효과**.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중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서울.

손천택, 제성준(2017). 자생적 체육교사 학습공동체의 체육과 교육과정 개발과 의미. **교과교육학연구, 21**(3), 240-252.

손형국(2015). 초등학교 남교사의 교직생활에 관한 문화기술적 연구. **한국교육학연구 (구 안암교육학연구), 21**(4), 347-372.

안창규(2011). 체육교사의 셀프리더십이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과학회지, 20**(2), 447-459.

양정모. (2021). 초등 여교사의 체육수업경험에 관한 질적 메타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1), 1625-1646.

양흥권(2011). 실천공동체(CoP)의 학습 분석틀 구성 연구. **역량개발학습연구(구 한국HRD연구)**, **6**(4), 41-59.

염지숙(2011). 교육과정 실행 주체로서의 유치원 교사의 역할과 전문성, **유아교육논집, 15**(6), 295-310.

오승현(2014). 학습공동체 참여를 통한 체육교사의 변화 경험과 요인 탐색.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21**(3), 67-88.

오준식(2018). **체육교사의 서번트 리더십(Servant Leader-ship)과 학습동기 및 만족도의 관계**.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서울.

우송희(2012). **여자체육교사가 교수상황에서 경험하는 두려움 정서에 대한 이해**.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서울.

유정애, 최승현(2007).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체육과 내용교수지식(PCK)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RRI 2007-3-4.

윤기준, 이계산, 이창현(2018). 체육교사학습공동체 온라인 카페 활용 탐색 사례 연구.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25**(4), 21-40.

윤석주(2020). 비교과교사들의 교사학습공동체 경험에 대한 탐색: 보건교사의 수업연구회를 중심으로. **한국교원교육연구**, **37**(3), 235-257.

윤지희(2019). **교사학습공동체, 교장의 변혁적 리더십, 교사리더십, 학교개선 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서울.

이경호.(2019). 교**사학습공동체에서의 교사리더십 개발 방안 탐색**. 교육정치학연구,26(1),111-132.

이광무, 이유경(2010). 초등학교 여교사의 체육수업 실태 분석, **한국초등체육학회지**, **15**(3), 95-105.

이기림(2020). **학교기반 교사학습공동체는 초등체육 전문성을 함양하는가?.**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울.

이성아, 정효정(2016). 실천공동체에 기반을 둔 부모교육 프로그램 운영모델의 개발 및 적용. **가족과 문화**, **28**(2), 184-216.

이승배(2008). **초등교사의 체육교육 실천공동체 형성과 교수 전문성 개발에 관한 해석적연구**. 미간행 박사학 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이승배, 김택천, 박윤혁(2010). 초등교사의 체육교과 학습공동체 형성.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17**(2), 101-125.

이승호, 이지혜, 허소윤, 박세준, 한송이, 한은정(2015). 교사학습공동체의 속성에 관한 질적 메타 분석. **교육학연구**, **53**(4), 77-101.

이예훈, 권민정, 전선혜. (2014). 중등체육교사의 근무환경 실태 분석 및 향후 개선을 위한 담론.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21**(2), 47-65.

이옥선, 손혁준, 최의창, 이원희(2018). 중등 체육교사의 자발적 전문성 개발 활동 참여 형태 및 특성.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25**(1), 1-23.

이옥선, 조아라, 홍예리(2021). 여학생에서 여자 체육교사로: 초임 여자 체육교사의 과거 체육수업 경험이 교직 입문에 미친 영향. **교과교육학연구, 25**(3): 207-217

이우태(2012). **교사전문성 측정도구 개발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대학원, 부산.

이원희(2019). **중등체육교사의 직업적 정체성 형성과정과 요인탐색**.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울.

이유나, 김춘화, 이상수(2106). '교육공동체'에 대한 최근 연구동향에 대한 비판적 고찰 -언어 네트워크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교육종합연구**, **14**(2), 153-185.

이윤미, 정광순. (2016). 지역형 동학년 교사학습공동체 실천 사례 기술. **통합교육과정연구, 10**(2), 45-69.

이의재, 유정애(2016). 교육실천공동체활동을 통한 초임 체육교사의 성장과정 이해. **한국체육학회지, 55**(1), 285-298.

이제행, 김종욱, 김현식(2005). 중등체육교사의 교수전문성에 대한 인식. **한국사회체육학회지, 25**, 69-83.

이창섭, 남상우, 여정권(2013). 고등학교 여학생의 신체활동 저해요인의 종합적 이해. **한국체육교육학회지, 17**(4), 57-76.

이호철, 권오륜, 정우식(2005). 스포츠교육학: 초등 여교사의 체육수업 걱정거리. **한국체육학회지, 44**(3), 329-340.

임혜림(2016). **초등학교 체육전담교사 되어가기: 한 여교사의 교육적 성장과 그 의미.**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울.

장경환(2017). **초임교사의 체육 교육과정 실행 전문성 개발을 위한 협력적 탐구공동체의 실천 과정과 효과 탐색.**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울.

장연우, 소경희, 박지애(2021). 교사학습공동체에서의 교사학습 양상에 관한 질적 메타분석. **한국교원교육연구, 38**(2), 53-82.

장영화, 박재정(2018). 여자체육전담교사가 겪는 현실적 어려움과 역할수행 가능성.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 1267-1286.

장용규, 김동식(2015).초등학교 여성 체육부장으로서의 삶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한국초등교육, 26**(4), 183-209.

장제익(2008). **체육교사의 셀프리더십과 조직헌신 및 직무만족과의 관계**.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서울.

장진솔(2021). **체육돌, 사랑꾼, 롤모델: 중등 학생들이 인식하는 여자체육교사의 긍정적 이미지 탐색**.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울.

전남익(2010). **교사학습공동체에서의 교사리더십 개발과정에 대한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대학원, 서울.

정다희, 신인선(2018). 수학교사 학습공동체에서 나타나는 교사의 지식의 변화에 대한 사례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20): 1401-1423.

정민수(2018). 동료코칭 기반 교사학습공동체의 수업재구성 경험에 대한 연구. **한국교원연구, 35**(2), 23-49.

정석희(2003). **간호사의 학습조직화가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서울.

정성우, 표내숙, 정상훈(2009). 중·고등학생이 인식하는 체육교사의 변혁적 리더십이 내적동기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학회지**, **48**(6), 195-206.

정원희, 이용우(2020). 실천공동체 사회복지사의 지식창출과 공유가 사회복지 직무수행에 미치는 영향 -반성적 사고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복지학, 73,** 149-175.

정재삼(2004). **실천공동체의 촉진을 위한 조직적 접근방안**. 금융지식연구, 2(2), 230-251.

정현수(2019). **교사학습공동체 활동을 통한 체육교사의 인성함양**.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울.

정현수, 윤기준(2020). 체육교사학습공동체 참여를 통한 교사 전문성 개발 양상에 대한 질적 메타분석.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27**(2), 1-17.

정현수, 전세명(2021). 체육교사 학습공동체에서의 부정적 경험 유형, 원인, 대응 방안 탐색 연구.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28**(1), 81-101.

정현우(2015). 예비체육교사교육에서 비판적 전문성 함양의 의미와 방법. **체육과학연구, 26**(4), 935-950.

조기희(2015). **체육수업 전문성 증진을 위한 교사학습공동체의 실천 과정과 효과 탐색**.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울.

조기희, 이옥선(2016). 초등교사의 체육 교사학습공동체 참여 효과와 영향 요인 탐색. **한국체육학회지, 55**(6), 251-263.

조기희(2018). 체육 나눔 교사학습공동체의 성장 과정과 참여 동기 요인 탐색.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 229-256.

조기희. (2019). 체육 나눔 교사학습공동체 티처런커뮤니티의 지속력.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26**(2), 91-111.

조성식, 김효진, 맹이섭(2014). 여고생의 체육수업 참여 갈등요인과 여성체육교사에 대한 역할기대. **한국체육학회지, 53**(3), 127-137.

조용환(1999). 질적 연구의 동향과 과제. **교육인류학연구, 2**(1), 91-121.

조용환(2012). 교육인류학과 질적 연구. **교육인류학연구, 15**(2), 1-21.

주철안(2007). 학교공동체의 특성에 관한 분석적 고찰. **교육사상연구, 21**(1): 201-224.

주현준, 김갑성(2015). 교사리더십 특성에 기초한 연구동향 분석. **한국교원교육연구, 32**(4), 199-217.

차가현, 주은정, 장신호(2015). 과학교사 학습공동체에서 나타나는 초등교사의 PCK변화 과정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5**(1), 191-213.

최남정, 임부연(2013). 유아교사학습공동체의 성장과 발달에 관한 연구. **유아교육연구, 33**(5), 401-429.

최남례(2005). **유아 서번트 리더십 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서울.

최덕묵, 고문수(2011). 중학교 여자 체육교사의 학습공동체 형성 과정. **한국체육교육학회지, 16**(1), 133-144.

최민희, 김용은, 김준(2021). 중학생이 인식하는 여성체육교사의 감성적 리더십과 지도행동유형이 체육교사신뢰와 체육수업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34**(2). 1-18.

최원석(2016). 여자 예비체육교사의 젠더 인식에 관한 질적연구. **한국체육교육학회지**, **21**(1), 1-13.

최의창(2004). 가장 바람직한 체육교사는 누구인가?.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11**(2), 25-49.

최의창(2010). **인문적 체육과 하나로 수업**. 서울: 레인보우북스.

최의창(2011). 체육전문인 전문성의 재검토: 심성적 차원의 역할과 그 교육.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18**(2), 1-25.

최의창(2018). **스포츠 리터러시.** 서울: 레인보우북스.

최정희(2004). **교사의 변환적 지도력과 학생의 수업 참여의 관계**.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서울.

추나영(2019). 체육교사의 감성적 리더십이 중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교사교육연구, 58**(3), 279-290.

한국교육개발원(2019). **교육통계연보**. 서울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20). **교육통계연보**. 서울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21). **교육통계연보**. 서울 : 교육부.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6). **체육 중등교사 자격기준과 평가 영역 및 평가 내용 요소 수정·보완**.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함형인, 김기열, 이정훈, 김기수(2014). 기술교사 학습공동체의 참여 동기와 교수전문성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기술교육학회지**, **14**(1): 111-134

홍성수(2010). **대기업 실천공동체의 성과와 조직적 지원, 리더역량 및 운영방법 간의 구조분석**.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울.

홍은숙(2011). 교직관에 따른 전문직 교원윤리의 성격 재음미. **교육철학연구, 33**(3), 187-212.

황인택(2021). **교사학습공동체 활동을 통한 체육교사전문성 발달 탐색**.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청주.

홍애령(2017). 초등 무용교육자의 정체성과 수업 전문성에 관한 이론적 고찰. **한국초등체육학회지, 22**(4), 107-118.

홍예리, 조아라, 이옥선(2022). 결점에서 강점으로: 중등 여자체육교사가 인식하는 긍정적인 전문적 정체성 탐색. **한국여성체육학회지, 36**(3). 1-20.

Akkerman, S. F., & Meijer, P. C. (2011). A dialogical approach to conceptualizing teacher identity. *Teaching and Teacher Education, 27*(2), 308-319.

Burns,J.M.(1978). *Leadership*. New York: Harper& Row.

Bass,B.M.(1985). *Leadership and Performance Beyond Expectations,* New York: FreePress.

Bronfenbrenner, U.(1979).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Experiments by nature and desig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Catherine Palmer, Vaughan Cruickshank, Murray Drummond & Donald Reid(2020). Male primary school teachers, masculinity and identity work in regional Australia, Sport, *Education and Society*, 25:3, 261-273

Cochran-Smith, M., & Lytle, S. L. (1999). Relationships of knowledge and practice: Teacher learning in communities. In A. Iran-NeJad & C. D. Pearson (Eds.), *Review of Research in Education* (Vol, 24, pp. 249-306). Washington, DC: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Cohen, S., & Hoberman, H. M. (1983). Positive events and social supports as buffers of life change stress 1.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3*(2), 99-125.

Conger, J. A., & Kanungo, R. N. (1988). The empowerment process: Integrating theory and practic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3*(3), 471-482.

Creswell, J. W.(2013).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 (3rd ed.). London: Sage. 조흥식, 정선욱, 김진숙, 권지성 공역(2016). **질적 연구방법론**: 다섯 가지 접근. 서울: 학지사.

Danielson, C. (2006). *Teacher Leadership: that strengths professional practice*. Alexandria, VA: ASCD.

Deglau, D. & O'Sullivan, M. (2006). The Effects of a Long-Term Professional Development Program on the Beliefs and Practices

of Experienced Teachers. *Journal of Teaching in Physical Education*, 25(4), 379-396.

Denzin, N. K. (1994). The art and politics of interpretation. In N. Denzin & Y. Lincoln (Eds.),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pp. 500-515). London: Sage.

DuFour, R. & Eaker, R.(1998). *Professional learning communities at work: Best practices for enhancing student achievement. Reston*, VA: ASCD.

Guskey, T. R. (2002). Professional development and teacher change. *Teachers and teaching, 8*(3), 381-391.

Fernández-Balboa, J. M. (1997). Physical Education Teacher Preparation. Critical postmodernism in human movement, *physical education, and sport, 121*.

Fetterman, D. M. (1991). A walk through the wilderness: learning to find your way. In W. B. Shaffir, & R. A. Stebbins (Eds.), *Experiencing fieldwork: An inside view of qualitative research* (Vol. 124, pp. 87-96). SAGE Publications, Inc.

Fullan, M.(2006). Leading professional learning. *The School Administrator, 63*(10), 10-14.

Greenleaf, R.(1970). *The servant as leader (an essay)*. Greenleaf Organization.

Goleman, D., Boyatzis, R., & Mckee, A. (2002). *Primal leadership: Realizing the power of emotional intelligence*. Boston: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Guba, E. G., & Lincoln, Y. S. (1994). Competing Paradigms in Qualitative Research. In N. Denzin & Y. Lincoln (Eds.),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London: Sage.

Hargreaves, A.(2000). Four ages of professionalism and professional learning. Teachers and Teaching: *History and Practice, 6*(2), 151-182.

Harris, A.(2003). Teacher leadership as distributed leadership: heresy, fantasy or possibility? *School Leadership and Management,*

23(3), 313-324.

Hord, S.(1997). *Professional learning communities: Communities of continuous inquiry and improvement*. Austin, TX: Southwest Educational Development Laboratory.

Huff, A, S.(2008). *Designing research for publication*. London: Sage.

Katzenmeyer, M., & Moller, G. (2009). *Awakening the sleeping giant: Helping teachers develop as leaders*. Corwin Press. 양성관, 이경호, 정바울 역(2009). **잠자는 거인을 깨워라 : 학교혁신을 위한 교사리더십**. 서울: 에듀니티.

Keay, J. (2005). Developing the physical education profession: New teachers learning within a subject-based community. *Physical Education and Sport Pedagogy, 10*(2), 139-157.

Kuhn, T.(1970).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s*(2nd Ed).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Lawson, H. A. (1990). Beyond positivism: Research, practice, and undergraduate professional education. *Quest, 42*(2), 161-183.

Lave, J., & Wenger, E. (1991). *Situated learning: Legitimate peripheral participatio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Lincoln, Y. S., & Guba, E. G.(1985). Establishing trustworthiness. *Naturalistic Inquiry, 289*(331), 289-327.

Macdonald, D., & Tinning, R. (1995). Physical education teacher education and the trend to proletarianization: A case study. *Journal of teaching in physical education, 15*(1), 98-118.

Manross, D., & Templeton, C. L. (1997). Expertise in teaching physical educatio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Recreation & Dance, 68*(3), 29-35.

Manz, C. C., & Sims Jr, H. P. (1980). Self-management as a substitute for leadership: A social learning theory perspectiv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5*(3), 361-367.

Mathison, S.(1988). Why triangulate?. *Educational Researcher, 17*(2), 13-17.

Merriam-Webster. (n.d.). Sisterhood. In Merriam-Webster.com

dictionary. Retrieved November 23, 2022, from https://www.merriam-webster.com/dictionary/sisterhood

Morgan, D. L. (1996). Focus groups. *Annual review of sociology, 22*(1), 129-152.

Morgan, D. L., & Krueger, R. A. (1998). *Analyzing and reporting focus group results*. Sage.

Parker, M., Patton, K., Madden, M., & Sinclair, C. (2010). From committee to community: The development and maintenance of a community of practice. *Journal of Teaching in Physical Education, 29*(4), 337-357.

Patton, M. Q.(2002). Two decades of developments in qualitative inquiry: A personal, experiential perspective. *Qualitative Social Work, 1*(3), 261-283.

Schön, D. A. (1983). *The reflective practitioner: How professionals think in action.* New York: Basic Books.

Sergiovanni, T. J.(1994) *Building community in schools*. San Francisco: Jossey-Bass. 주철안 역(2004). **학교공동체 만들기 : 배움과 돌봄을 위한 도전**. 서울: 에듀케어.

Sergiovanni, T. J. & Strarratt, R. J.(2007). *Supervision: A redefinition* (8th ed). New York: McGrawHill.

Smith, S., Shochet, R., Keeley, M., Fleming, A., & Moynahan, K. (2014). The growth of learning communities in undergraduate medical education. *Academic Medicine, 89*(6), 928-933.

Spears, L. C.(Ed.)(1995). *Insights on leadership-Service, stewardship spirit and servant-leadership*.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Stoll, L. & Louis, K. S.(2007). Professional learning communities: Elaborating new approaches. In L. Stoll & K. S. Louis. *Professional learning communities: Divergence*, depth and dilemmas (pp. 1-13). UK: Open University Press.

Wenger, E(1999). Communities of practice: Learning, meaning, and identity. Cambridge, MA: Cambridge University Press. 손민호, 배

율규 공역(2007). (지식창출의 사회생태학)실천공동체. 서울: 학지사.

Wenger, E., McDermott, R., and Snyder, W. M. (2002).『Cultivating Communities of Practice』 Boston, MA: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Whitcomb, J., Borko, H., & Liston, D. (2009). Growing talent: Promising professional development models and practices. *Journal of teacher education, 60*(3), 207-212.

Wolcott, H. F.(1994). *Transforming qualitative data: Description, analysis, and interpretation*. London: Sage.

Yin, R. K. (2009). How to do better case studies. T*he SAGE handbook of applied social research methods, 2*, 254-282.

Zeichner, K. M., & Liston, D. P. (1987). Teaching student teachers to reflect. *Harvard Educational Research. 11*(5), 565-575

Zeichner, K. M., Melnick, S., & Gomez, M. L. (Eds.). (1996). *Currents of reform in preservice teacher education*. New York: Teachers College Press.

Abstract

The Birth of Communities of Practice for Female PE Teachers

- Exploring potential as a hub for PE professionalism and leadership development -

Najin Kim
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how physical education(PE) teachers' professionalism and leadership are cultivated through the formation and operation of a communities of practice(CoP) for female PE teachers, and to explore the conditions for successful operation. The research questions are as follows: First, what is the current status and operation method of the CoP for female PE teachers? Second, what are the effects and difficulties of participating in the CoP for female PE teachers? Third, what are the conditions for the hub role of teachers' professionalism and leadership development?

Qualitative case study was conducted from January 2022 to

December 2022(12months), through the stage of planning, data collection, data analysis, interpretation, and conclusion. The study participants consisted of 12 female PE teachers who were selected through purposeful sampling according th the selection criteria(6 CoP for female PE teachers). Data were collected through open-ended questionnaires, in-depth interviews, focus group interviews, and local documents. To increase the trustworthiness of the research, the triangulation, member check, and peer debriefing were used. Also, the researcher complied with the research ethics and followed Institutional Review Board(IRB) regulations.

The research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All of the CoP for female PE teachers were formed based on the necessity and willingness of female PE teachers. Motivation can be divided into three major categories. If it was made for friendship, if it was made to donate talent, or if it was made because of the need for a meeting of female physical education teachers. ① The 'Number1 Community' continues to hold regular meetings and shows exemplary cooperation by presenting activities and environments in which members can take the initiative. ② 'Ace Community' is registered as a research group and is taking the lead in operating a program to activate girls' physical education. ③ 'Together Community' aims to improve female teachers' basketball skills, share classes, and promote friendship with the motto of 'joining hands until retirement'. ④ In the 'Wonderful Community', it mainly consists of practical sports such as basketball and soccer, and passionate leaders share data such as training activities and examples of application of classes. ⑤ 'Supernova Community' was established to strengthen

professionalism and competency through exchanges with female PE teachers. There are various activities such as class sharing training, clubs, and practical training. ⑥ 'Nice Community' is targeting female PE teachers across the country and conducts non-face-to-face meeting by setting a theme every month.

Second, the effects of participation in the CoP for female PE teacher were examined in terms of PE teachers' professionalism, leadership, and social and emotional support. Difficulties in participating in and operating CoP for female PE teacher were analyzed by dividing them into individual factors, community factors, and social factors based on a socio-ecological model. The professionalism of PE teachers developed through the participation are ① Competence(class execution ability, skillful athletic ability), ② Knowledge(evaluation knowledge, kinesiology knowledge, performance knowledge), ③ Disposition(confidence, enthusiasm, teacher reflection). Characteristics of cultivated PE teacher leadership include ① goal orientation (passion, motivation, strengthening of PE status), ② community(sharing, connection, communication), ③ task leadership(responsibility as a facilitator), ④ professionalism(role model, link). In terms of social and emotional support, there were ① empathy and consolation(empathy, overcoming the leave of absence), ② sisterhood(close relation, rules considering childbirth and childcare), ③ being together(pleasure through gatherings, sense of belonging). Personal factors for difficulties are ① being mother(change in identity), ② leader's sacrifice(working alone, putting off the work). Community factors include ① community growing pains(developmental stage, lack of community goals), ② double-edged autonomy(difficulties in administrative, financial

management). Social factors include ① constraints(excessive work, distance/time constraints, regional differences), and ② uncooperative atmosphere(prejudice, uncooperative attitude).

Third, the conditions for successful operation were divided into three categories: personal factor, community factor, and social factor. Individual factors were ① shared leadership (empowerment), ② active participation(shared goals, sincerity to the community). Community factors include ① subjective operation(customized operation, encourage participation and public relations), ② sustainable activities (program for all, to be a place for growth and development). Social factors such as ① cooperative school culture(cooperation, awareness improvement) ② support from the Office of Education and the other related organizations(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upport, policy support) were derived.

The discussions that summarize and interpret the abov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rough this study, it is possible to propose sustainable operating conditions by exploring the current status and effects of CoP for female PE teachers occurring nationwide.

Second, in addition to the results of previous studies, this study explored the effects and difficulties that could appear through the CoP for female PE teachers only.

Third, in the reality of school physical education in a male-centered culture, this study tried to explore how female PE teachers develop and practice their professionalism and leadership through CoP. It is meaningful in that female PE teachers can show the aspects of professionalism improvement and leadership development through the CoP.

Finally, suggestions for field practice according to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practice, reflect, and share after participating in the CoP for female PE teachers. Second, it is necessary to form a network among female physical education teachers communities. Third, policy support is needed to vitalize the CoP for female PE teachers.

Recommendations for follow-up studies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study the changes and maintenance of the CoP for female PE teachers from a long-term perspective. In addition, research to explore CoP for female PE teachers, which exists in various forms, is also needed. Second, it is necessary to study how the professionalism and leadership of teachers improved through the CoP for female PE teachers had an effect on students' learning improvement. Third, there is a need to expand the scope of the research subject by exploring the CoP for female sports experts, starting with the CoP for female PE teachers.

Keywords **: Female Physical Education teacher, Community of Practice, Physical Education, Professionalism, Leadership**
Student Number **: 2021-21271**